

# 어촌지역 리더 육성과 지원방안

2007. 12

이승우 · 이종훈 · 이윤정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이승우 : 제1장~제6장

◆ 연구진

- 이 종 훈 : 제4장
- 이 윤 정 : 제2장, 제3장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회

◆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상일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장)

\* 연구자문위원회는 산·학·연·정 순임

## 머 리 말

어촌은 국토의 다른 지역과 달리 바다를 접하고 있다. 바다는 어촌주민의 주요한 생산공간으로서 그들의 생활터전이다. 생산공간으로서 바다는 도시의 생산공간은 물론이고 농촌의 생산공간보다 열악한 환경이다. 따라서 어촌주민들의 대부분은 어촌에 2세가 거주하지 않기를 바란다. 즉 생산공간으로서 바다의 열악한 환경과 생활공간으로서 어촌의 열악한 환경에서 자식들이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촌의 고령화와 어업인력의 부족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어촌의 주요한 소득원인 어업소득은 수산자원의 감소와 수산물 수입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여 어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어촌의 활력저하는 국토의 한 부분으로서 어촌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촌은 도시가 가지지 못한 다양한 자원과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지속적 생산을 위한 투자, 수산물 생산기반시설 투자와 어촌관광 관련 투자 등을 통한 어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사업이 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사업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촌인력의 확보와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투자사업의 효과는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인적자원의 자질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 어촌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촌의 인적자원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어촌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은 어촌주민에게 활력을 불어일으켜 어촌 활성화에 어촌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촌주민은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생계형 어업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정부시책의 홍보와 1차 산업인 어업 생산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이 피교육생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어촌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 리더의 육성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교육생의 개인적 발전뿐만 아니라 어촌의 잠재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이 시급하다. 그러나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을 위한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즉 전문적 교육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촌과 어업을 아는 지역리더 교육 강사가 부족하다. 또한 어촌주민의 대부분이 어업분야의 교육 참가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어촌지역 리더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곳에는 반드시 지역 리더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어촌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자원이 많은 지역이더라도 그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리더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유의 자원이 많지만, 그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촌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어촌주민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의 교과과정에 어촌지역 리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민간교육기관을 활용한 어촌지역 리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나아가 어촌지역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은 물론이고 피교육생의 선발, 피교육생의 현장실무 기회의 제공과 교육생의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어촌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어촌지역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함께 어촌지역 리더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한 필요하다. 특히 도시에서 어촌으로 생활근거지

를 옮긴 사람 중에 어촌지역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리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수한 어촌지역 리더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이 있을 경우에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어촌지역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 어촌지역 리더의 활동을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적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어업인력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어촌주민 대상 교육을 확대시켜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어촌지역 리더 육성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우리 원의 수산·어촌연구센터 이승우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이종훈 부연구위원과 이윤정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로서 어촌지역 리더 육성과 지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보고서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선임연구위원과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이상일 과장, 등이 바쁘신 가운데도 연구결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료 제공과 자문에 적극 응하여 주셨다. 아울러 전국 해양수산사무소 직원들과 지방자치단체 어업인력 담당 공무원의 면담과 설문조사에 대한 협력 덕분에 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향후에도 유사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 어촌지역 리더 육성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이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7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이 정 환

# **목 차**

Abstract	i
요 약	iii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어촌지역 리더 육성의 필요성	5
1. 어촌지역 리더의 정의 및 역할	5
1) 어촌지역 리더의 정의 / 5	
2) 어촌지역 리더의 역할 / 5	
2. 어촌지역 리더 육성의 필요성	7
1) 수산전문인력의 리더육성 한계 / 7	
2) 수산업이외 전문인력의 리더 육성 한계 / 10	
3) 외부 전문인력 유입의 현실적 어려움 / 10	
3. 어업전문인력 육성과 어촌지역 리더 육성의 관계	10
제3장 어촌지역 리더 육성실태 분석	13
1. 어촌지역 리더 육성 실태	13
1) 어촌지역 리더 육성정책 / 13	

2) 어촌지역 리더 육성 및 활용 사업 / 17	
3) 어촌지역 리더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 23	
2. 농촌지역 리더 육성 실태 .....	27
1) 농촌지역 리더 육성정책 / 28	
2) 농촌지역 리더 육성사업 / 29	
3) 농촌지역 리더 교육 / 40	
4) 어촌과 농촌지역 리더육성 비교 분석 / 47	
3. 일본의 농·어촌지역 리더육성 정책 .....	49
1) 일본의 농업리더 육성 정책 / 49	
2) 일본의 어업리더 육성 정책 / 52	
3) 일본의 민간단체활동 / 54	
4) 일본의 농·어촌지역 리더육성 정책의 시사점 / 58	
4. 어촌지역 리더 육성의 문제점 .....	60
<b>제4장 국내·외 사례 및 설문조사</b> .....	62
1. 국내·외 사례조사 .....	62
1) 국내 사례조사 / 62	
2) 국외 사례조사 / 66	
2. 어업인 및 공무원 설문조사 .....	71
1) 조사의 개요 / 71	
2) 어업인 의식 분석 결과 / 72	
3) 공무원 의식 분석 결과 / 83	
4) 의식조사에 대한 시사점 / 91	
<b>제5장 어촌지역 리더 육성 및 지원방안</b> .....	92
1. 어촌지역 리더 육성체계 .....	92
1) 개요 / 92	

2) 어촌지역 리더 육성체계 / 93	
3) 교육기관의 활용 / 95	
2. 어촌지역 리더육성 .....	98
1) 어촌지역 리더육성 단계 / 98	
2) 피교육생 선발단계 / 99	
3) 교육·훈련단계 / 102	
4) 현장적용 단계 / 103	
5) 평가단계 / 104	
3. 어촌지역 리더 지원방안 .....	105
1) 경제적 지원방안 / 105	
2) 법·제도적 지원방안 / 107	
제6장 결 론 .....	109
참 고 문 헌 .....	111
부 록 (설문지) .....	115



## 표 목 차

〈표 2-1〉 어업인후계자 선정 평가기준 .....	8
〈표 2-2〉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의 2007년 신규 전업경영인 대상 교육과정 ...	9
〈표 3-1〉 어촌지역 리더 육성제도 변천 과정 .....	14
〈표 3-2〉 어업인후계자 단계별 사업 내용 .....	18
〈표 3-3〉 1981~2006년 업종별 어업인후계자 육성 현황 .....	19
〈표 3-4〉 어업인후계자의 어촌지역사회 리더역할 현황 .....	19
〈표 3-5〉 신지식어업인 실태조사 결과 .....	20
〈표 3-6〉 수산업인턴 제도 사업 내용 .....	22
〈표 3-7〉 창업어가후견인 제도 사업 내용 .....	23
〈표 3-8〉 해양수산 관련 대학(교) 현황 .....	24
〈표 3-9〉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의 어업인 집합교육 .....	26
〈표 3-10〉 단계별 농업인력 육성 정책 .....	29
〈표 3-11〉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내용 .....	30
〈표 3-12〉 농업컨설팅지원 내용 .....	31
〈표 3-13〉 농업인 전문교육 내용 .....	32
〈표 3-14〉 신지식농업인 선정 세부 내용 .....	32
〈표 3-15〉 2006년 농촌지역개발리더십 육성과정 세부 내용 .....	34
〈표 3-16〉 2006년 사업주제별 특성과정 세부 내용 .....	35
〈표 3-17〉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사업 내용 .....	36
〈표 3-18〉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의 교육 내용 .....	37
〈표 3-19〉 농산물유통전문교육 사업 및 교육 내용 .....	38
〈표 3-20〉 지역농업클러스터 유형 .....	39
〈표 3-21〉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 .....	40

---

〈표 3-22〉 농업인 교육 현황 .....	41
〈표 3-23〉 지역별 지역농업교육협력체의 교육 내용 .....	44
〈표 3-24〉 농업연수원 리더육성 교육프로그램 .....	45
〈표 3-25〉 생산자단체의 리더육성 교육프로그램 .....	46
〈표 3-26〉 그린투어리즘 인스트럭터 육성 스쿨 개요 .....	56
〈표 3-27〉 지역산업 매니저 연수세미나 개요 .....	57
〈표 4-1〉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에 대한 정책적 지원 실적 .....	63
〈표 4-2〉 설문조사 조사설계 .....	71
〈표 4-3〉 표표본의 지역별 분포현황 .....	72
〈표 5-1〉 교육기관별 장·단점 .....	96

## 그림 목 차

〈그림 3-1〉 단계별 어업인력 육성정책 .....	16
〈그림 3-2〉 어업인 대상 교육·훈련 기관 .....	24
〈그림 3-3〉 사업추진체계 .....	31
〈그림 3-4〉 농업인 교육기관별 역할 분담 및 특성화 .....	42
〈그림 3-5〉 농업인 교육·훈련기관 .....	43
〈그림 3-6〉 일본의 농업 교육 및 육성 체계 .....	50
〈그림 3-7〉 수산기본계획의 개요 .....	53
〈그림 4-1〉 NPO법인 “아부꾸마 NSNET”의 체험활동 .....	67
〈그림 4-2〉 유한회사 “새로운 마을” 조직도 .....	70
〈그림 4-3〉 어촌지역의 발전가능성 .....	73
〈그림 4-4〉 어촌지역발전의 중요요소 .....	73
〈그림 4-5〉 현재 어촌을 주도하는 리더 .....	74
〈그림 4-6〉 마을발전에 있어서 지역리더의 결정적 역할수행 여부 ·	74
〈그림 4-7〉 지역리더 역할에 있어서 중요요건 .....	75
〈그림 4-8〉 마을리더의 필요 역량 .....	75
〈그림 4-9〉 마을리더로서의 주요 덕목 .....	76
〈그림 4-10〉 리더육성의 효과적인 방법 .....	76
〈그림 4-11〉 외부 인재에 대한 수용의사 .....	77
〈그림 4-12〉 리더역할 수행을 위한 이주민의 선결조건 .....	77
〈그림 4-13〉 본인에게 해당하는 인력육성정책 .....	78
〈그림 4-14〉 어업인력육성정책 만족도 .....	78
〈그림 4-15〉 어업인력 육성정책에 대한 불만족 사유 .....	79
〈그림 4-16〉 어업인력육성정책 만족 사유 .....	79

〈그림 4-17〉 어업 지식·정보·기술 습득 경로 .....	80
〈그림 4-18〉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도움 여부 .....	80
〈그림 4-19〉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강 동기 .....	81
〈그림 4-20〉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방식 만족도 .....	81
〈그림 4-21〉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강 의사 .....	82
〈그림 4-22〉 수강 희망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 .....	82
〈그림 4-23〉 3개월 이상 장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 의향 .....	83
〈그림 4-24〉 어촌지역의 발전 가능성 .....	84
〈그림 4-25〉 어촌지역발전의 중요 요소 .....	84
〈그림 4-26〉 어촌지역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 .....	85
〈그림 4-27〉 마을발전을 위한 리더의 주요 역할 .....	85
〈그림 4-28〉 지역리더의 주요 덕목 .....	86
〈그림 4-29〉 지역발전을 위한 리더의 역량 .....	86
〈그림 4-30〉 리더 육성 방안 .....	87
〈그림 4-31〉 리더육성의 필수 조건 .....	87
〈그림 4-32〉 리더육성에 대한 현 인력육성정책의 효과성 여부 ....	88
〈그림 4-33〉 현 어업인력육성정책의 문제점 .....	88
〈그림 4-34〉 어업인력육성정책의 개선점 .....	89
〈그림 4-35〉 어업인 대상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어려운 점 ....	89
〈그림 4-36〉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영어·어촌정착도움 여부 .....	90
〈그림 4-37〉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 ...	90
〈그림 5-1〉 어촌지역 리더 육성체계 .....	94
〈그림 5-2〉 교육 담당기관의 분류 .....	97
〈그림 5-3〉 지역 활성화단체 구성방안 .....	97
〈그림 5-4〉 어촌지역 리더 육성단계 .....	98
〈그림 5-5〉 지역리더 투자사업 지원방안 .....	106

## ABSTRACT

### **The Plans to Nurture Leaders of the Fishing Communities**

It is necessary to make fishing villages multi-functional, as residents who live there rarely have the ability to utilize the various resources of the fishing villages. Hence, there is an urgent need to educate the human resources to use them.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nurture suitable leaders of the fishing village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Japan is establishing various policies to educate the human resources which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Policies for educating the human resources do not have a large effect, but they have been making progress. There are cases where farmers returned to the soil after being educated i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to nurture the human resource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his has some implications for us.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still has some hurdles to overcome to educate the necessary human resources. But it is very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nurture the leaders of the fishing communities who take charge of the residents of fishing villages. The general plan to raise the level of the human capital is as follows:

- Var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taken into account to train the human resources needed for the fishing communities.
- An educational program to include in-service training and theoretical curriculums has to be planned and implemented.

*ii* ABSTRACT

- The professional group usually must consult the leaders and residents of the fishing communities.
- The nurturing of the human resources needed is considered to be a public investment, which can be assessed afterward.

## 제 1 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 어촌의 국내외 여건변화는 어촌주민의 생산의욕과 생활의욕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여건과 함께 도시보다 빠른 어촌인구의 노령화는 어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어촌지역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수산물의 생산, 유통과 소비의 연계기능이 어촌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회복하는 기능과 새로운 문화와 생활양식을 창조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기능의 어촌 지역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어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원적 어촌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글로컬(glocal)의 추세에 부응할 수 있으며, 어촌주민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내재적 어촌발전이 필요함
- 그러나 어촌은 지역 혁신을 주도한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상향식·내재적 어촌발전 정책의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어촌지역을 이끄는 지역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함
  - 해양수산인력개발원과 해양수산사무소의 인적자원 개발 교육프로그램

의 대부분은 개별경영단위의 기술교육이거나 정부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의무교육임  
따라서 교육과정의 이수자가 어촌혁신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기 어려운 실정임

- 어촌주민에게 어촌 비전을 제시하고 어촌주민이 지역혁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임

## 2) 연구의 목적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촌의 젊은이들이 어촌을 떠날 정도로 어촌경제는 침체되고 있음
- 어촌경제의 침체는 어촌주민의 소득을 저하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려 어촌인구의 노령화를 촉진시키고 있음. 따라서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투자증가와 함께 어촌주민이 적극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함
- 어촌주민에게 어촌의 밝은 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의 제공과 함께 어촌주민이 자발적으로 어촌혁신에 참여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함
- 그러나 1차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대부분의 어촌주민은 자연 순응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 지역 적 배타성이 도시주민보다 높은 편임. 따라서 지역 혁신에 대한 욕구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에 필요한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에 대한 욕구가 낮은 편임
- 그러므로 정부가 어촌지역 리더를 육성함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인적자원 계발 교육을 중심으로 어촌



지역 리더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육성과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정부가 효율적으로 어촌지역 혁신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어촌 및 수산업 관련 인력 육성 담당자와 피교육자의 면담을 통하여 어촌 지역 리더육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임
- 그리고 국내 지역 활성화의 성공사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리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전문가와 면접과 지역주민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지역 혁신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을 심층 조사분석할 것임
- 외국의 사례에 정통한 전문가 및 외국기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 지역 리더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을 위한 정보로 활용함
- 본 연구는 어촌의 생산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리더 육성을 포함한 어촌의 다양한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어촌지역 리더 육성과 지원방안을 연구대상으로 함
  -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어촌 인적자원 육성교육 현황과 역할을 살펴봄
  - 정부의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어촌의 상황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조사하고, 이러한 리더 육성체계와 관련한 육성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할 것임
  - 리더가 지역혁신을 이끈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방안을 도출함에 있어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할 것임
  - 이러한 조사분석을 기초로 어촌지역 리더 육성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어촌지역 리더 육성체계 수립, 교육기관과 전문가 네트워크화 방안,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지역 리더의 활용방안을 제시함
  - 끝으로 어촌지역 리더 육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법·제도적 지원방안

을 제시할 것임

## 제2장 어촌지역 리더 육성의 필요성

### 1. 어촌지역 리더의 정의 및 역할

- 어촌지역의 리더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자원을 여건에 맞게 활용하여 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지닌 사람과 단체를 지칭함
- 한편,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육성하는 리더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지역개발자로서 정보·지식·기술의 제공, 비전제시, 사업 기획 및 추진 그리고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분야는 어업생산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2·3차 산업, 그리고 어촌관광 등이 포함되어야 함

### 2. 어촌지역 리더 육성의 필요성

- 어촌은 현재 열악한 소득수준·정주·교육환경 등으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어촌은 지금까지 어업생산 공간으로서 인식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어촌이 가지고 있는 깨끗한 자연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정주공간·휴양공간과 독특한 지역문화 및 고유한 전통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창출공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
-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개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필요성이 절실함
- 하지만 현재 인력육성정책을 살펴보면, 개인의 수산업 역량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이렇게 육성된 전문인력이 지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유도하지는 못하고 있음. 또한 어촌지역의 인력육성이 어촌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 하나인 어업 생산부분에 치중하고 있어, 이외 휴양·정주문화 창출 기능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인력 육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인력육성정책을 통해 육성된 수산업전문인력이 개인차원을 넘어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게 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양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어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능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어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외부 인력이 어촌지역에 이주하여 지역개발을 주도하게 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필요함

### 3. 어업전문인력 육성과 어촌지역 리더 육성의 관계

-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력육성은 전문 어업인력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 리더 육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즉 개별 경영체의 경영성과 향상뿐만 아니라 어촌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어촌지역 인력 육성이 필요함
- 첫째, 어촌지역 리더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육성되는 전에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수산물 생산기능은 어촌의 주요한 기능이므로, 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의 수산물 생산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어야 함. 따라서 어업전문인력 중에서 지역 리더의 품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어촌지역 리더로 육성할 때 어업의 경영성과 개선은 물론이고 어촌지역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음
- 셋째, 어촌이 생산기능에만 집중될 때 어촌의 다양한 자원의 활용도가 떨어질므로, 전문 어업인력 육성과 함께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을 통하여 어촌 기능의 다기능화와 어촌 활성화를 동시

에 이끌 수 있는 어촌지역 리더 육성이 필요함

- 넷째, 어촌의 부족한 인력을 새로이 확보함과 동시에 어촌주민에게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보완할 수 있는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 어업인력 육성과 지역 리더 육성 또한 필요함
- 이와 같이 어촌지역 리더 육성은 기존의 전문 어업인력 육성과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연계될 때 효과가 커질 수 있음. 즉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어업인력 육성의 교육프로그램을 어업인 아닌 어촌의 다양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러한 어촌 전문 인력교육만으로 어촌 인력육성으로 제한하지 않고 이들 중에 어촌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 리더 육성과 전문 인력육성을 연계하여야 함

### 제3장 어촌지역 리더 육성실태 분석

#### 1. 어촌지역 리더 육성 실태

##### 1) 어촌지역 리더 육성정책

- 본 연구에서는 어업이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어촌지역 인력”이라는 큰 틀에서 살펴보고자 함
- 지금까지 어촌지역 인력은 어업분야 인력 육성에 집중하여 왔으며 “어촌 지역 리더”라는 개념도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어업인력 육성사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어업인력 육성정책은 어업발전단계를 기준으로 정착단계(일반후계자)에서는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이들이 어업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돕고, 성장단계(전업경영인)에서는 전업경영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지막 선도단계(선도경영인)에 이르면 어업을 선도하는 리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어업의 전문역량을 가지고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단계는 어업에 정착하여 어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성장단계 이후이며, 특히 오랜 경력 및 노하우, 뛰어난 기술역량, 기계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선도단계의 어업인이 어촌지역 리더의 적임자임
- 한편 어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어,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리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어업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어촌지역의 인력 육성 정책을 어업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로 넓혀가야 할 것임

## 2) 어촌지역 리더 육성 및 활용 사업

- 현재 어촌지역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은 어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신지식어업인 발굴 및 인증사업이 있음. 한편 어촌지역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으로는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의 해외연수 지원과 수산계통 교육기관 지원 사업이 있음
- 어촌지역의 리더는 현재 수산업분야, 즉 어업생산과 가공업에 국한되어 육성되고 있으며, 이렇게 육성된 리더가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있음. 단지 어업인후계자제도를 통해 육성된 선도단계의 선도경영인은 수산업인턴제도 및 창업어가후견인제도에 참여하여 잠재어업인이나 신규어업인 육성에 기여하고 있을 뿐임
- 어업 이외분야에서 선도단계의 어업인을 활용하여 어촌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은 현재 없음. 다만 농림부에서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의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무장은 체험마을을 이끌어가는 리더라기보다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리더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리더육성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3) 어촌지역 리더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을 개설한 대학교, 해양수산인력개발원과 해양수산청(사무소)을 중심으로 한 공공 교육기관, 그리고 생산자 단체인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이 있음. 실제 어업인 대상 교육은 해양수산인력개발원과 해양수산청(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외 해양·수산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5개 대학, 1개 전문대학 등의 학교교육기관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농림수산정보센터 역시 어업인 대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들 기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어업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해양수산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집합교육과정 7개가 있고, 해양수산인력개발원에서 원격영상교육을 통해 수산기술 상담 및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해양수산청(사무소)에서 어가를 방문하여 어업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리더가 수행해야할 역할이나 자질에 대한 교육은 전무함

## 2. 농촌지역 리더 육성 실태

### 1) 농촌지역 리더 육성정책

- 여기서는 어촌지역 리더육성 실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농업인력 육성 정책을 살펴보고, 사업으로 농업분야, 농촌지역개발 분야, 그리고 이외 분야에 대한 인력육성사업을 살펴보고자 함
- 농촌지역 인력육성정책은 농림수산부 시설이었던 1981년에 실시된 “농어민후계자육성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지역 인력육성정책과 유사함

- 즉 농촌 역시 근간이 되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이 인력 육성의 핵심이며, 농업에 진입한 창업단계의 후계농업인이 성장단계의 전업농으로, 그리고 최상위 단계인 선도농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2) 농촌지역 리더 육성 및 활용 사업

- 농촌지역 리더 육성사업은 어촌지역과는 달리 농업분야 이외 유통분야 및 정보화분야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인력육성사업은 동일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또한 농촌지역 개발 리더 육성사업이 전문인력 육성사업과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음. 그리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리더육성 사업을 전문인력육성사업과 연계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그 외 지역농업클러스터 관련 사업과 외부의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사업은 비록 사업 목적이 농촌지역 인력 육성은 아니지만 이들이 농촌지역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음
-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분야의 인력육성사업으로는 후계농업인을 선도농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인 전문교육, 신지식농업인 발굴 및 육성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농촌지역개발 리더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 프로그램, 농촌지역개발 인재뱅크시스템 개발, 농촌지역개발 현장전문자(농촌마을 CEO) 인증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그 외 기타사업으로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농산물유통전문교육,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내고향 잠재자원 개발 컨테스트 개최 등이 있음

## 3) 농촌지역리더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초기에는 농업기술에 집중되었으나 이후 경영(회계 등), 유통, 지역개발 등으로 교육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2006년 현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107개,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21개,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81개 과정과 12개의 지도사업과 농가 및 브랜드 컨설팅을 포함하여 총 209개가 있음. 교육인원은 총 1,235,410명이며, 지도사업 및 컨설팅을 합할 경우 총 1,241,321명의 농업인이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음
- 또한 주기적·체계적으로 농업인력 구조를 분석하고 농업인력 수급을 예측하여 이를 중장기인력 육성계획에 반영하고, 종합적인 인력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중앙부처,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사회 교육기관 및 학교 교육기관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음
-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주로 공공기관, 생산단체, 민간단체 등의 사회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계 전문대학이나 농학계 대학에서 부설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음. 최근에는 지역농업교육협력체를 통해 특정 농촌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한편 민간교육기관을 육성하고 농업·농촌 교육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각종 교육사업을 민간기관 중심으로 추진하고, 해외연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연수일정 및 교육내용을 기획하고 전문연수기관을 공모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대학, 지자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인단체 등 지역 내 교육역량을 결집한 지역농업교육협력체를 통해 지역농업 특성에 부합되는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하고 있음
- 농업인 리더육성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공공기관인 농업연수원과 생산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AgriEdu.net)을 구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음

#### 4) 어촌과 농촌지역 리더육성 비교 분석

- 어업과 농업의 인력육성정책은 1981년도에 실시된 “농어민후계자육성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어, 농어업의 발전단계 기준으로 단계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육성체계가 비슷함



- 어촌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리더 인력 육성 사업이 없고 오직 어업 전문인력 육성에 그치고 있음. 반면 농촌은 지역개발 리더 육성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다만 농업 및 농업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사업과 연계되어 있지는 않음. 그 외 농업전문인력인 선도농과 신지식농업인의 활용 측면에서도 어업보다 다양하여 농업인턴제, 창업농가후견인제, 연수 및 현장훈련과정, 교육, 지역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음
- 인력육성사업은 아니지만 선도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농업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사업과 출향도시민을 활용하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한 어촌지역에서 리더육성 대안으로 적극 시도해볼 만함
- 교육부분은 농업과 어업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어업인 대상 교육 인프라는 농업인 대상 교육 인프라에 비해 상당히 열악함
- 어업과 농업의 유사성을 생각할 때 농업인 대상 교육기관을 활용한다면 부족한 어업인 대상 교육 인프라를 대처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지역 활성화를 위한 리더교육의 경우 농촌과 어촌의 정주여건 및 인구구성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농업인 대상 교육기관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임
- 농업인 대상 교육은 기관수가 많은 만큼 교육내용도 다양하며, 최근에는 지역개발 리더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반면 어업인 대상 교육은 인프라의 부족 등의 이유로 육성정책과 관련된 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3. 일본의 농·어촌지역 리더 육성 실태

#### 1) 일본의 농·어업리더 육성 정책

-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농·어촌지역의 인력 육성은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를 주도할 리더 육성에는 어

려움을 겪고 있음

- 일본은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학교 교육부터, 취농준비, 청년농업인, 장년 농업인, 지역리더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로 교육·연수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음. 농업인력 육성 체계에서 최종단계가 지역리더인 것을 볼 때 일본의 농업인력 정책은 개인의 농업기술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지역 활성화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장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청년농업사제도는 장래 우수한 농업경영을 목표로 하여 지역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청년농업인을 현장에서 선정하여 연수 및 연구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농업 발전단계 중 지역리더 단계에 있어 전문 농업경영을 실천하고 지역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은 지도농업사로 선정함. 이를 통해 후계자를 육성하게 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지도농업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됨. 즉 청소년 대상으로 농업연수를 시키고, 농촌청소년단체에 조언 및 지도를 실시하며, 농촌청소년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에 제언을 하고, 전국지도농업사연구회나 지도농업사연구회 등을 통해 정보·지식 교환이나 연수회를 개최함
- 일본 농업인력 육성 정책은 “식품·농업·농촌기본계획”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는데, 최근에는 “바람직한 농업구조의 확립을 위한 농업 후계자(担い手) 육성 및 확보”에 집중하고 있음
- 한편 어업리더 육성 정책은 “수산기본계획”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되는데, 최근 어업인력 관련 정책은 국제 경쟁력이 있는 경영체의 육성·확보와 어업 취업구조의 확립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어업후계자(担い手) 육성, 어업인력 확보, 그리고 기존 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음
- 어업 후계자(担い手)는 농업 후계자(担い手)와 유사한 개념으로 확보 활동은 사단법인 대일본수산회와 어업취업자확보육성센터에서, 교육은 수산업개량보급 조직에서 실시함. 그리고 어업인력 확보를 위한 대표적 방안

으로 어업취업자확보육성센터 운영과 재 챌린지(再 Challenge) 사업이 있음. 마지막으로 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는 어업 스킬업(Skill-up)과 경영개선 추진사업이 있음

## 2) 일본의 민간단체활동

-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교류를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는 그린투어리즘의 인스트럭터(instructor) 육성 스쿨, 농촌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역산업 매니저 연수 세미나를 통해 인력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그린투어리즘의 인스트럭터(instructor) 육성 스쿨 중 코디네이터 과정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기획·입안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구성원의 의견을 조정하는 ‘기획입안자’ 육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음
- 지역산업 매니저는 농산어촌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리더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조연자, 비즈니스 계획자로서, 농·산·어촌에서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브랜드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혹은 그린투어리즘 등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함
- 그리고 일본 각 도도부현의 어업협동조합연합회나 지역의 어업협동조합을 연계하는 대표조직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어업경영의 개선과 정부정책 및 어업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파악을 위해 각종 교류대회를 열어 조합원간의 교류 증진 및 정보 전달을 돕고, 핵심어업자협동업무체 등의 청년그룹을 육성 지원하고 있음

## 3) 일본의 농·어촌지역 리더육성 정책의 시사점

- 일본의 농업 교육 및 육성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농업 발전단계에서 최상위단계를 지역리더로 설정하여 농업전문인력이 자신의 농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업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제적·제도적 지원하기 보다는 교육 및 연수 혹은 타 지역 농업인과

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한편 어촌의 지역리더 육성은 주로 민간단체인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주도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 청년·여성 어업인그룹 리더자질 향상 취조(取組), 핵심어업인협업단체의 경영개선 취조(取組)등이 있음
-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는 농·림·어업이 아닌 관광업으로 농·산·어촌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력 육성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4. 어촌지역 리더 육성의 문제점

- 우리나라 어촌지역 리더의 문제점은 첫째, 어업인력 발전단계에서 각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과 리더급 어업인의 활용이 미흡함
- 둘째, 교육기관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교육내용의 다양하지 못함
- 셋째, 전업경영인 이상 어업인에 대한 전문 교육이 필요함
- 넷째, 교육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함
- 다섯째, 어업·어촌지역의 리더 육성은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어업인의 열의가 중요함

### 제 4 장 국내·외 사례 및 설문 조사

#### 1. 국내·외 사례조사

##### 1) 국내 사례조사

- 충남 홍성군 홍동면 소재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은 마을지도자의 의지와

마을 변혁을 위한 노력으로 마을 전체적인 의식전환이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마을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소규모로 농업과 축산업을 하고 있던 매우 평범한 마을이었으나, 1994년부터 오리를 이용한 환경농법 실현과 유통망 개선 그리고 녹색관광 도입 등으로 두레공동체를 회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의 환경보전측면에도 기여하고 있는 환경농업마을 가꾸는데 힘쓰고 있음
- 환경농업마을의 추진과 함께 정보화 사업을 통한 사이버 마케팅 즉 도시·농촌교류에 의한 직거래 확산 등으로 새로운 마을 공동 소득원을 개발하였으며, 대를 잇는 농촌 구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보화 시대의 정착을 착실히 실현해 나아가고 있음
- 문당리 농업환경마을의 마을지도자는 교육을 통한 이해와 접근이 없이는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영속성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이후의 교과에 자연과 농촌 및 어촌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후세는 사회 구조 전반에 걸친 고른 이해를 할 수 없고 이는 산업구조의 근간이 되는 농어업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또한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해서 보다 중요한 사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 주민의 정주의식을 배양시킬 수 있는 인력의 양성에 있다고 피력하고 있음
- 한편 문당리 마을지도자에 따르면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 어느 곳을 막론하고 해당 지역에 있어서 미래 발전 가능성 여부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첫째는 적극적인 마을 지도자가 존재하는가 여부이며, 둘째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존재하는가 여부 그리고 셋째는 일정기간에 따른 마을 내 기금조성이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이며 넷째는 무농약, 저농약 등 친환경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여부라고 함 마지막 다섯째로 아름다운 경관을 지녀 방문객을 끌 흡인력을 지

냈는지 여부가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각각의 마을발전가능성을 가능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2) 국외 사례조사

- 후쿠시마현(福島県) 사메가와촌(鮫川村)의 신지 토오루(進士 澈, 이하 신지 氏)는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이하 도농교류기구)에서 그린투어리즘 교육을 받았고 사메가와촌에서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지역에서의 신지 氏의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이주초기부터 꾸준히 실시한 도시지역과의 교류활동으로 폐쇄적인 산촌을 개방화하는데 공헌하였으며, 현재 이주민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 청년회와 이주민의 조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신지 氏가 리더역할을 하는 주된 분야는 그린투어리즘 사업으로, 현재 사메가와촌에서 지역을 연계하여 그린투어리즘을 진행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음
- 신지 氏가 동경에서 사메가와촌으로 이주하여 지역에서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리더역할을 수행하는 과정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이주 준비기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통해 이주 대상지와 접촉하였으며, 정착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촌장의 도움을 받았음. 그리고 그린투어리즘 사업은 민간단체인 도농교류기구에서 교육을 받았고, 사업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었고, 사업이 정착된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화덕 오븐과 휴게정자 등의 시설을 지원받았음
- 사메가와촌의 신지 氏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농·산·어업 교육 혹은 농·산·어촌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지역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고, 사람이 아닌 사업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사업기획능력을 높일 수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리더역할을 한 사례로 사이타마현(埼玉縣)의 미야

시로마치(宮代町)가 있다. 미야시로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중심으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연구 발표회 등의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참가형 농업중심 지역개발 추진체인 유한회사 “새로운 마을”을 설립하였음. 미야시로마치의 지방자치단체가 51%, JA南彩이 20%, 일반 주민이 13% 그리고 상공회의소와 금융기관 등이 16% 출자하였음

- 새로운 마을의 조직을 살펴보면, 생산 소비과에서는 유통 및 가공 부분을, 농업서비스과에서는 농작품 생산, 농업생산 위탁실시 등을 하고, 기획관리과에서는 농원과 관광농원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 새로운 마을에서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전통 농업방식 및 농촌 모습을 복구하고, 전문 농업인을 고용하여 미경작 농지를 위탁 경작하여 농지를 유지하고, 직판장 혹은 가공 등 소득 증대방안을 모색하여 실시하고, 취농 희망자의 이주를 돕고, 평생 농업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새로운 마을의 시민농원, 체험농원, 허브동산, 전통방식의 논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 사이타마현의 미야시로마치는 지역개발 시 지방자치단체가 리더역할을 수행한 사례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즉 개발 초기 단계에 지방자치단체가 비전 및 개발방향 제시, 개발계획 수립 등을 하되 실행에 있어서는 주민의 참가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그 개발주체를 민간에게 이양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임

## 2. 어업인 및 공무원 설문조사

- “어촌지역 리더육성 및 어업인 대상 교육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어업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 향후 어촌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가장 우세하였는데, 이는 어촌지역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어업자원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는 점과 갈수록 수입 수산물의 식탁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 짐
- 어촌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은 수산업과 어업에 관광

과 유통 등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사업 발굴과 기획을 언급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생산 위주의 어업활동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어촌지역 방문을 유도하여 체험활동을 즐기는 한편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정부에서 시행중인 인력육성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주된 이유는 적은 용자규모와 미흡한 사후 관리 등에 기인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인력육성정책상의 문제점으로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어업인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바, 정부의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반면에 지금까지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자체가 어업인이 수산업 관련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물어 본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이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의사가 소극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제5장 어촌지역 리더 육성 및 지원방안

### 1. 어촌지역 리더 육성체계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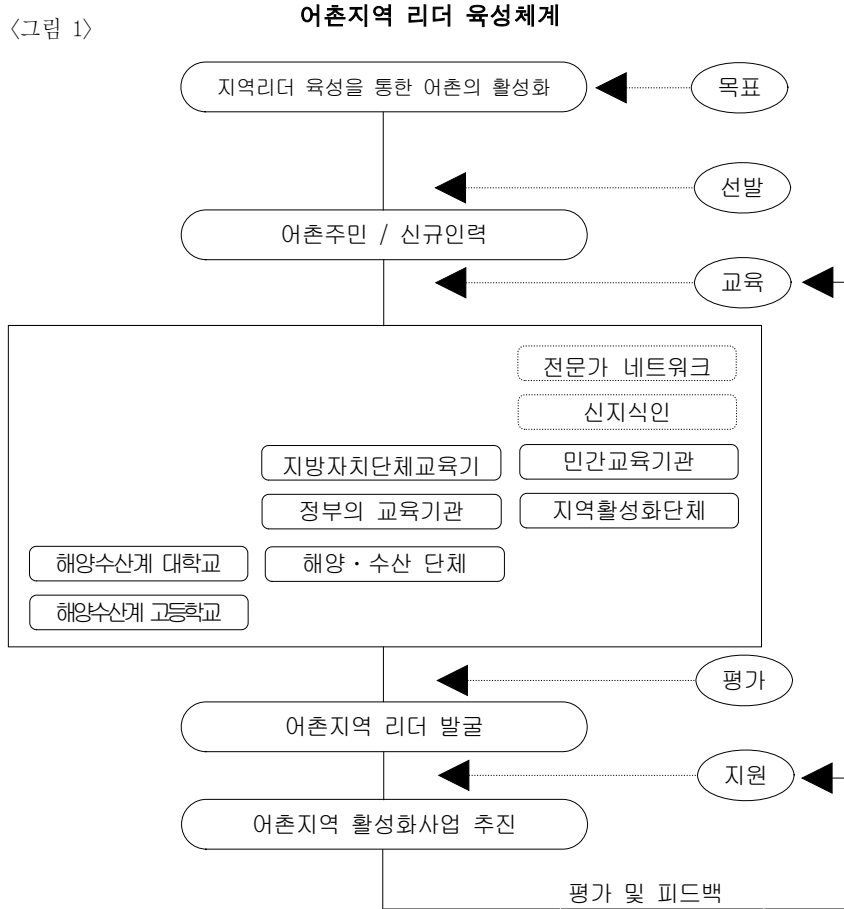
- 어촌의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어촌의 노동 생산성 저하는 어촌 활성화를 가로 막는 장애요소임. 즉 1차 산업으로서 수산업은 상대적으로 노동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촌의 노령화는 어촌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이고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 활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어촌주민이 수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어촌과 바다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 계발이 필요함



- 어촌에 대한 비전이 확고하고 지역 발전에 적극적인 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계발 교육을 실시할 필요함.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육성한 어촌지역 리더가 어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2) 어촌지역 리더 육성체계

- <그림 1>은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체계를 나타내며,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 목표는 ‘지역 리더 육성을 통한 어촌의 활성화’임



- 정규 교육기관, 공공교육기관과 민영 교육기관 등이 어촌지역 리더 육성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보다 나은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음. 교육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촌지역 리더로서 잠재적 자질을 가진 자의 선발 또한 중요함. 후 우수한 어촌지역 리더를 선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며, 어촌지역 리더가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3) 교육기관의 활용

- 교육기관은 어촌지역의 리더 육성체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표 1>은 어촌지역 리더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장점과 단점을 나타냄

<표 1>

교육기관별 장·단점

교육기관 종류	장점	단점
해양수산계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어촌 관련 전문가 활용</li> <li>○야간 혹은 방학기간 활용</li> <li>○기존 행정인원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과정의 운영·관리 집중도 저하 우려</li> </ul>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교육시설 활용</li> <li>○기존 행정인원 활용</li> <li>○지역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방자치단체)</li> <li>○예산 지원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강사 부족</li> <li>○교육기간 연장 곤란</li> </ul>
해양수산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촌주민과 원활한 연계</li> <li>○어업전문교육 가능(품종별 수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경험 부족</li> <li>○교육 강사 부족</li> </ul>
민간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교육프로그램</li> <li>○교육과정 선택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촌·어업분야 연계 강사 부족</li> </ul>
지역활성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활성화와 지역리더 육성 연계</li> <li>○교육의 피드백 활성화</li> <li>○지역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개설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강사 확보 곤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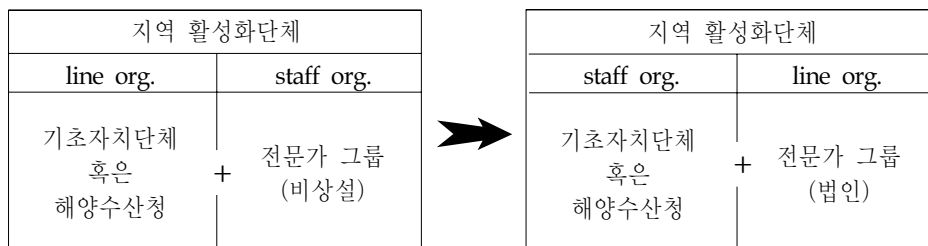
- <그림 2>와 같이 의무교육의 성격이 강한 전문교육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 단체가 담당하고, 자발적 교육 수요자의 교육은 민간 교육기관 혹은 지역 활성화 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2〉 교육 담당기관의 분류

지역리더 교육			
전문 교육			
	정부 혹은 지자체 교육기관	해양수산계 교육기관 해양수산단체	지역활성화 단체 민간교육기관

- <그림 3>은 지역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는 단계를 나타냄

〈그림 3〉 지역 활성화단체 구성방안



- 지역 활성화 단체의 중심인 전문가 그룹은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함. 즉 어업 전문가, 지역개발 전문가, 경관 전문가, 경영관리 전문가, 관광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사학자, 민속학자, 지리학자, 문학가, 생태환경 전문가와 건축 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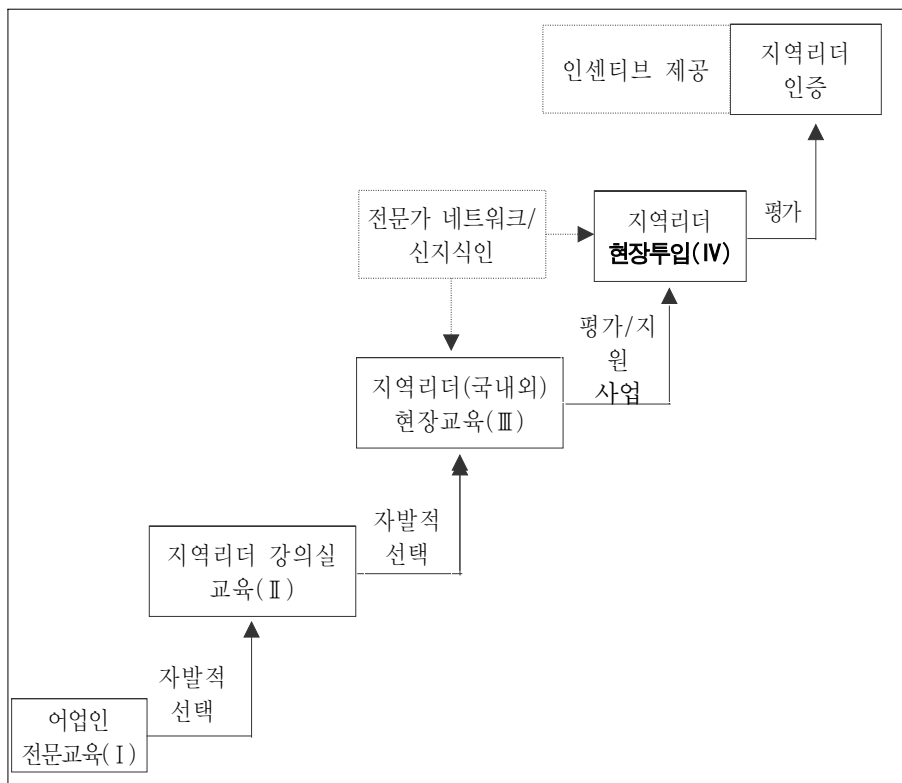
## 2. 어촌지역 리더 육성

### 1) 어촌지역 리더 육성 단계

- <그림 4>는 어촌지역 리더 육성 단계를 나타내고 있음. 교육은 어업인 전문교육과 어촌지역 리더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음. 전자와 후자는 반드시 연계할 필요는 없으며, 전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후자의 교육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촌지역 리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효과가 높을 것임

<그림 4>

어촌지역 리더 육성단계



## 2) 피교육생 선발단계

- 어촌지역 리더 육성의 첫 단계는 피교육생의 선발임. 선발기준은 거주지, 피교육의 의사, 교육비용 부담, 선발인원과 교육 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어촌지역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대상자를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발할 것인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도 선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 어촌지역 리더 교육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의무교육이 아닌 자발적 교육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부담 유형은 교육과정 개설주체인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피교육생의 부담, 그리고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피교육생의 공동부담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교육대상 인원의 선발은 다수 교육과 소수정에 교육 중의 선택 문제임
  - 피교육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교과내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어촌지역 리더 교육과정의 신청자가 교육 대상자의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 피교육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피교육생의 지역리더 교육의 신청순에 따라 선발하는 하는 것과 신청자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음
  - 전자는 선발과정이 단순하고 선발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리더의 자질여부와 관계없이 선발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후자는 전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촌지역 리더 교육의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법임
- 어촌지역 리더 교육 대상자를 평가할 때, 평가항목은 리더의 자질과 리더가 활동하는 어촌의 활성화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어촌지역 리더의 자질의 평가항목에 지역주민의 신뢰도, 지역 비전 제시 능력과 어촌 및 어업에 대한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어촌의 활성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항목에 어촌의 자연자원과 인문자원, 어촌주민의 지역 활성화에 대한 의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평가위원회는 어촌지역 활성화와 관련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1차 서면평가를 한 후에 2차 대면평가로 지역 리더 교육과정의 피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음

### 3) 교육·훈련단계

- 교육·훈련과정은 어촌지역 리더 육성을 위한 두 번째 단계임. 어촌지역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과정, 교육 방식, 교육매체, 교육기간, 우수한 교육 강사의 확보와 교류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교과과정은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과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어촌지역 리더와 관련한 이론교육과 함께 현장교육과 국내외 성공사례 등에 대한 체험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교육효과는 강사와 대면 교육이 사이버 교육보다 효과가 크지만, 어업에 종사하는 어촌주민이 교육에 참여하기 쉬운 것은 사이버 교육임
  - 교육기관의 우수한 강사 확보는 중요한 요소이며, 지역리더 육성 관련 전문가와 지역리더로서 성공한 사람 등을 강사로 확보하여야 함
  - 교육의 특성에 따라 교육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4) 현장적용 단계

- 피교육생의 자비에 의한 교육은 물론이고 정부의 지원에 의한 교육도 피교육생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 피교육생이 어촌주민일 경우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어촌이 자신이 혁신시켜야 할 대상이지만,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피교육생은 지역리더로서 역할을 하여야 할 대상지를 찾아야 함
- 어촌지역 리더 육성에 있어서 교육 훈련과정도 중요하지만, 피교육생이 어촌지역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피교육생이 지역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적 인적 기반 조성이 필요함

- 피교육생이 지역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며, 정부의 투자사업 지원은 이러한 여건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5) 평가단계

- 평가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나눌 수 있음
  - 사전평가는 교육기관이 시행하고, 평가 자료는 어촌지역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함
  - 사후평가는 피교육생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서 어촌지역 리더로서 활동에 대한 사기양양과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며, 평가 자료는 우수한 어촌지역 리더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로서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의 적극 홍보 및 어촌지역 리더 육성의 개선방안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3. 어촌지역 리더 지원방안

### 1) 경제적 지원방안

- 어촌지역 리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교육비용의 지원, 사업비용의 지원, 컨설팅 비용의 지원과 인센티브의 지원 등으로 구성됨

#### (1) 교육비용의 지원

- 어촌주민이 교육비용을 부담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어촌주민을 어촌지역 리더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하여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용을 부담하여 교육참가를 유도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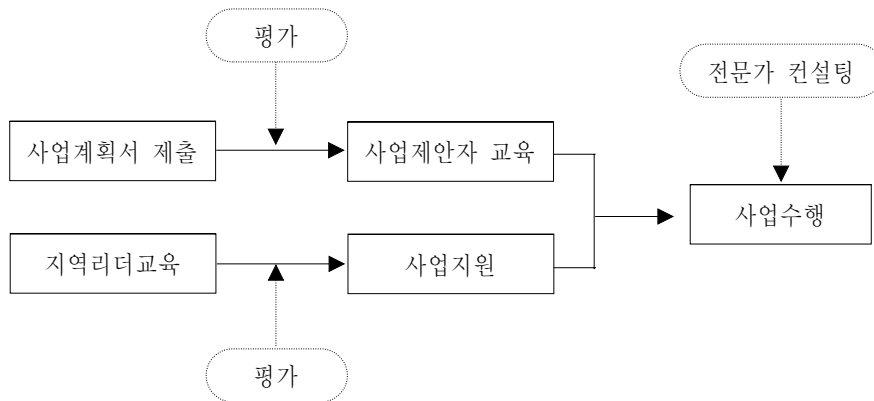
#### (2) 정부 투자사업과 우수한 어촌지역 리더의 연계 가능한 지역투자사업 지원

-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이 어촌지역 리더가 활동하는 지역과 연계가 가능할 경우에 어촌지역 리더가 거주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투자사업 지원 방안은 <그림 5>와 같이 두 종류가 있음

- 지역리더 교육의 수강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특성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계획서의 제안자에게 사업시행의 기회를 제공함
- 지역리더 교육을 수강한 자를 평가하여 지역리더가 거주하는 지역에 적합한 투자사업을 지원함

〈그림 5〉

## 지역리더 투자사업 지원방안



## (3) 경영 컨설팅 비용의 지원

- 어촌지역 리더가 어촌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로부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투자사업의 경영컨설팅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이고 어촌주민의 비전 확신과 사업의 참여도를 높여 어촌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4) 인센티브의 지원

- 투자사업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어촌주민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함. 즉 어촌주민의 개별적 인센티브가 아닌 기존 투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사업 혹은 새로운 투자사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2) 법·제도적 지원방안

- 어촌지역 리더가 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도 마련되어야 함
- 어촌지역 리더 육성정책과 정부 투자의 연계를 통한 정부 투자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고려되어야하는 법·제도적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음
  -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의 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중앙정부의 부서별 투자사업의 연계를 통한 투자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의 평가를 통하여 어촌지역 투자사업을 선정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어촌지역 투자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어촌 지역 간의 투자사업의 홍보와 경쟁을 통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제6장 결론

- 어촌의 기능을 고기를 잡는 마을로부터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의 어촌으로 전환이 요청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촌주민이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업 이외의 생산에 관심이 적은 편임
-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계발의 교육이 시급하며, 그 일환으로서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이 요청되고 있음
- 일본도 농어촌의 활성화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계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단기간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인재 육성의 특성과 농어촌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적자원 계발정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우수한 인적자원 계발을 위하여 인적자원 계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인적자원 육성 교육을 받은 귀농자가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어촌지역 리더 육성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어촌의 배타성과 투자사업과 인력 육성사업의 연계부족, 인력 육성 교육기관의 부족 등으로 우리나라의 어촌지역 인적자원을 계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어촌소득의 감소와 삶의 질의 저하로 사기가 저하된 어촌주민을 이끌고 갈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며,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어촌지역 리더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기관을 활용하여야 함
  -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함께 현장연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의무교육이 아닌 자발적 참여교육이어야 함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어촌지역 리더 교육을 받은 자의 지속적인 자질 향상과 지역 투자사업의 경영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어촌지역 리더 육성을 담당하는 부서와 어촌 투자사업 부서가 투자사업의 계획과 집행에 상호 협력하여야 함
  - 어촌지역 리더가 작성한 사업추진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역에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함
  - 어촌지역 리더가 추진한 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하여야 함
- 이상에서 제시한 어촌지역 리더 육성과 지원방안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어업주체인 어촌주민의 생산공간의 축소와 자원감소에 따라 어촌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도하개발아젠다(DDA)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변되는 무역자유화의 여파는 어업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 같은 어촌의 국내외 여건변화는 어촌주민의 생산의욕과 생활의욕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과 함께 도시보다 빠른 어촌인구의 노령화는 어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어촌지역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촌지역 혁신은 어촌지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의 연안에 위치한 어촌은 국토의 균형개발에 중요한 부분이다.

수산물의 생산, 유통과 소비의 연계기능이 어촌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회복하는 기능과 새로운 문화와 생활양식을 창조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기능의 어촌 지역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어촌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있기 때문에 21세기 문명창조를 지향하는 개척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촌은 국토의 균형개발 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토의 중요한 공간이다.

어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원적 어촌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글로컬(glocal)의 추세에 부응할 수 있다. 어촌주민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내재적 어촌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자원과 여건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체 역량의 배양이 필요하다.

특히 어촌은 지역 혁신을 주도한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상향식·내재적 어촌 발전 정책의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어촌지역을 이끄는 지역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해양수산인력개발원과 해양수산사무소의 인적자원 개발 교육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개별경영단위의 기술교육이거나 정부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의무교육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이수자가 어촌혁신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촌에 투자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투자와 휴먼웨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 소프트 웨어와 휴먼 웨어 투자는 인적자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어촌지역 발전을 이끄는 어촌지역 리더는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어촌주민에게 어촌 비전을 제시하고 어촌주민이 지역혁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 2) 연구의 목적

생산공간이면서 생활공간인 어촌은 생활기반 시설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어촌주민의 자발적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촌의 젊은이들이 어촌을 떠날 정도로 어촌경제는 침체되고 있다.

어촌경제의 침체는 어촌주민의 소득을 저하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려 어촌인구의 노령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국토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따라서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투자증가와 함께 어촌주민이 적극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어촌주민에게 어촌의 밝은 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의 제공과 함께 어촌주민이 자발적으로 어촌혁신에 참여하는 동기부

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어촌지역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나 1차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대부분의 어촌주민은 자연 순응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 지역적 배타성이 도시주민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지역혁신에 대한 욕구가 낮은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에 필요한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에 대한 욕구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어촌주민 중에서 지역혁신 리더의 탄생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가 어촌지역 리더를 육성함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인적자원 계발 교육을 중심으로 어촌지역 리더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육성과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정부가 효율적으로 어촌지역 혁신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정부는 어업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어업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의무교육이다. 즉 정부의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교과를 중심으로 어업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업인 대상 교육의 대부분이 어촌의 생산기능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어촌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어촌의 다양한 기능의 수행은 어촌주민뿐만 아니라 도시주민의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 어촌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어촌지역을 혁신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어촌 및 수산업 관련 인력 육성 담당자와 피교육자의 면담을 통하여 어촌지역 리더육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인다. 즉 어업인력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담당자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해양수산인력개발원 담당자와 해양수산사무소 담당자 등의 면담을 통한 어촌지역 인력 육성의 문제점과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어

촌지역 리더 육성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 지역 활성화의 성공사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리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전문가와 면접과 지역주민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지역 혁신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을 심층 조사·분석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에 정통한 전문가 및 외국기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 지역 리더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을 위한 정보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어촌의 생산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리더 육성을 포함한 어촌의 다양한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어촌지역 리더 육성과 지원방안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어촌 인적자원 육성교육 현황과 역할을 살펴본다. 즉 해양수산부가 실시하고 있는 어촌 인적자원 육성교육을 살펴보고, 어촌지역 리더의 역할을 정의함으로써 연구의 실마리를 풀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어촌의 상황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조사한다. 이러한 리더 육성체계와 관련한 육성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할 것이다.

리더가 지역혁신을 이끈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방안을 도출함에 있어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분석을 기초로 어촌지역 리더 육성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어촌지역 리더 육성체계 수립, 교육기관과 전문가 네트워크화 방안,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지역 리더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어촌지역 리더 육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제2장 어촌지역 리더 육성의 필요성

### 1. 어촌지역 리더의 정의 및 역할

#### 1) 어촌지역 리더의 정의

사전적 의미로 리더란 앞장서서 여러 사람을 이끌어 가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Hustedde(1991)는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역 리더를 민주주의적 환경에서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동기부여를 해주는 개인이나 일련의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이성·정지웅(2002)).

본 연구는 공간을 어촌지역으로 국한지어, 어촌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촌지역의 리더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어촌지역 리더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자원을 여건에 맞게 활용하여 어촌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는 사람 혹은 단체로 정의한다.

#### 2) 어촌지역 리더의 역할

농촌의 지역개발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역의 리더가 마을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 리더는 정부와 지역 주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했던 과거의 행정적 리더 역할 보다는 새로운 농법이나 기술 등을 도입·개발하여 스스로가 실천할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허장·정기환(2002)).

기존문헌에서 제시한 지역개발에 있어서의 리더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찬경(1981)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리더의 역할로 ①사업계획의 작성

(계획자로서의 역할), ②이해와 갈등의 조정(조정자로서의 역할), ③지역개발 사업의 선도적 활동(선도자로서의 역할), ④정보의 전달 및 지도(교육가로서의 역할), ⑤지역개발사업의 사후관리(관리자로서의 역할) 등 5가지로 제시하였다.

김진모(2003)는 농촌리더가 수행해야할 역할로 전략적/미래지향적 사람관리 영역에서 변화촉진자, 후계자양성자, 주민교육관리자, 연구자, 전략적/미래지향적 사업과정관리 영역에서 홍보가, 마케터, 계획자/설계자, 프로그램개발자, 일상적/운영적 사람관리 영역에서 상담자, 조직원관리자, 여론지도자, 조정자, 그리고, 일상적/운영적 사업과정관리 영역에서 평가자, 내외부연계자, 사업인프라관리자,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한편, 정철영 외(2002)는 신지식농업인이나 성공적인 영농정착자를 연구하여 농업 리더에 필요한 기본자질과 전문자질을 제시하였다. 농업 리더의 기본자질로는 농업흥미, 농업적성, 농업애착심, 농업의지 및 신념, 농업기초지식 및 기술이 있고, 전문자질로는 농업인로서의 사명감, 농업전문지식과 기술개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자기계발의지, 농업경영능력, 마케팅 능력 등이 있다.

이용환 외(2000)는 농업 리더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열정, 전문농업경영능력, 대인관계능력, 변화대처능력, 선도적 지도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제시하였다.

이제까지 농촌지역 리더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지역리더에게 요구되는 역할 및 자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촌 또한 농촌과 처한 환경이나 문화 및 인적 자원이 유사하기 때문에 어촌지역 리더의 역할 및 자질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리더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의 특성이나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된다. 따라서 어촌지역 리더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촌의 특성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어촌은 바다와 접하여 1차산업인 수산업을 영위하는 지역공동체로서, 최근 수산업의 경쟁력이 산업화 및 세계화 과정에서 약화되면서 도시가계와 어가간 소득불균형, 어촌인구의 유출 및 고령화가 발생하여 점점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와 어촌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차원에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지역개발 차원에서 도시



에는 없는 어촌만의 고유자원을 개발하여 시장가치화 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잡는 어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기르는 어업병행, 수산물 가공업 및 특산물 판매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2·3차 산업과 어촌의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을 이용한 어촌관광을 활성화하여 어업외소득을 높임과 동시에 어촌지역을 부흥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개발자로서 어촌지역 리더가 외부와의 지역을 연계한 새로운 지역을 도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비전 제시자, 사업 기획·추진·전파자로서의 역할, 정보·지식·기술의 제공자 및 후계 양성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역의 여론 형성자 및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 및 지식 분야는 어업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가공, 어촌관광 등 다양하다.

## 2. 어촌지역 리더 육성의 필요성

어촌은 현재 열악한 소득수준·정주 및 교육환경 등으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어업생산공간으로만 인식되어오던 어촌이 깨끗한 자연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정주공간·휴양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으로 해수부에서는 어촌체험마을사업과 어촌복합생활공간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주도로는 그 한계가 있어, 이러한 어촌의 해결해야 할 과제와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어촌지역의 인력육성정책은 어촌지역의 리더를 육성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 1) 수산전문인력의 리더육성 한계

현재의 정책으로는 전문인력이 어촌지역을 선도할 리더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 정

책을 집중하고 있으며, 어업인후계자를 선정하여 경영기술지도 및 교육, 각종 수산물 관련 정보 보급, 자금지원을 실시하여 일반후계자에서 전업경영인, 선도경영인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 내수면어업, 수산물 가공업에서의 영어경력이 있거나 의욕이 있는 어업인 중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경영규모와 영어 능력을 갖춘 사람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교육과 단계별로 차등을 둔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전업경영인과 선도경영인은 일반후계자와 달리 지역발전 기여도가 추가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한 배점크기는 선도경영인 선정기준이 전업경영인 선정기준보다 작고, 대신 선도경영인 선정 기준에는 기계화 및 시설수준에 대한 가점이 추가되었다. 이는 어업인후계자 제도가 청장년을 발굴하여 유능한 수산업경영인력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육성된 전문 수산업경영인력이 어촌지역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데는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표 2-1〉

**어업인후계자 선정 평가기준**

어업인후계자 (일반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경영인
영어경력(100점)	영어경력(100점)	영어경력(100점)
학력 및 교육훈련(100점)	학력 및 교육훈련(100점)	학력 및 교육훈련(100점)
영어정착의욕(100점)	재배기술 및 자격증(100점)	재배기술 및 자격증(100점)
어업기반(100점)	신청사업의 경영규모(100점)	신청사업 경영규모(100점)
수산시책 참여여부 등 가점사항(100점)	지역발전 기여도(100점)	지역발전 기여도(50점)
-	어업인후계자 경력 등 가점사항(100점)	기계화 및 시설수준(50점)
-	-	전업경영인 경력 등 가점사항(100점)
총 점 500점	총 점 600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해양수산인력개발원에서 신규 선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07년도의 어업인후계자 신규교육 과정은 전업경영인 대상으로 교육과정만이 있었으며, 어선어업·어류양식·패류양식 등 어업형태별로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별 어업 역량 강화에 집중하였지 지역개발을 위한 리더쉽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2-2〉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의 2007년 신규 전업경영인 대상 교육과정

분 류	어선어업과정	어류양식과정	패류양식과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산전문인력 육성</li> <li>살기 좋은 어촌건설 및 어촌사회 변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li> </ul>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6년 신규자 중 교육 미이수자</li> <li>20067년 선정된 전업경영인</li> </ul>		
교육내용	어선의 안전조업, 어업관리와 자원관리, 어업전문인력 육성,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어류양식방향, 어류질병 대책, 어업전문인력 육성,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신 양식기술 개발, 종묘생산기술관리, 어업전문인력 육성,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기존 어업인후계자를 대상으로는 해양수산사무소에서 어업경영기술 및 정보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역시 개별 어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다.

선도 경영인에 대한 교육과정은 구체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없으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모두 개인의 어업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최근 선도경영인이 수산업 역량이 미숙한 청년 어업인 혹은 잠재 어업인을 육성하게 하는 제도(수산업인턴제와 창업어가후견인제)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전문 어업경영인을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리더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후계자 양성 이외에도 비전제시, 사업기획 및 운영, 갈등 조정 등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업인후계자 이외 수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신지식어업인이 있다. 신

지식어업인은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어업방식을 개선·혁신하는 어업인으로 2006년 현재 100명이 발굴·선정되었다. 하지만 선정이후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용 계획 없어, 이들의 혁신결과가 개인 차원에 머무를 뿐이지 지역전체로 파급되어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지는 못하고 있다.

## 2) 수산업이외 전문인력의 리더 육성 한계

이외 어촌지역의 인력육성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의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사무장은 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대표를 도와 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체험마을사업을 이끌어가는 리더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체험마을사업과 관련된 리더육성은 초보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외부 전문인력 유입의 현실적 어려움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리더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어 현실적으로 인재가 부족하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어촌에 대한 애착과 전문능력과 소양을 갖춘 이들이 어촌으로 이주하여 리더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3. 어업전문인력 육성과 어촌지역 리더 육성의 관계

투자의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투자와 마찬가지로 공공투자의 효과를 높이는데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는 민간기업의 투자와 다르게 투자수익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지역주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투자비의 참여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공공투자의 효과가 기대한 것보다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질 향상뿐만 아니라 투자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인력개발원에서 해양수산 인력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어촌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전문 어업인력 육성과 관계가 깊다. 즉 1차 산업인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개별 경영체의 경영성과 개선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이다.

이러한 전문 어업인력 육성 과정은 개별 경영체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하고 있지만, 그가 거주하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실정이다. 어촌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수산물 생산기능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어업인력의 어촌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주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력육성은 어업전문인력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 리더 육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개별 경영체의 경영성과 향상뿐만 아니라 어촌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어촌지역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어촌지역 전문 어업인력육성과 어촌지역 리더 육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지역 리더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육성되기 전에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어촌지역 리더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기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지역의 리더가 어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자발적 지역 리더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강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의 미래 비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수산물 생산기능은 어촌의 주요한 기능이므로, 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의 수산물 생산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수산물 생산기능의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어업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어업인력은 개별 경영체의 생산성 향상에 관심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업경영뿐만 아

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활성화에 앞장 설 때 교육의 효과는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전문 어업인력 중에서 지역 리더의 품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어촌지역 리더로 육성할 때 어업의 경영성과 개선은 물론이고 어촌지역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촌이 생산기능에만 집중될 때 어촌의 다양한 자원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육성도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함께 이들을 어촌지역 리더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전문 어업인력 육성과 함께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을 통한 어촌 기능의 다기능화와 어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어촌지역 리더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어촌에 거주하는 전문 인력은 어촌과 어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어촌주민과 화합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지식과 경험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어촌의 부족한 인력을 새로이 확보함과 동시에 어촌주민에게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보완할 수 있는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 어업인력 육성과 지역 리더 육성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어촌주민의 열린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어촌의 배타성은 우수한 자질을 가진 도시주민의 어촌정착 뿐만 아니라 어촌 활성화를 위한 자질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촌지역 리더 육성은 기존의 전문 어업인력 육성과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연계될 때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즉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어업인력 육성의 교육프로그램을 어업인 아닌 어촌의 다양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촌 전문 인력교육만으로 어촌 인력육성으로 제한하지 않고 이들 중에 어촌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 리더 육성과 전문 인력육성을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 제3장 어촌지역 리더 육성실태 분석

### 1. 어촌지역 리더 육성 실태

최근 어촌은 어업 생산기능뿐만 아니라 자연보전 혹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기능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또한 어촌을 어업생산공간 뿐만 아니라 휴양 및 정주공간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어업이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어촌지역 인력”이라는 큰 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우 어촌지역 리더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 중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하며, 어촌지역 리더 육성은 이러한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어촌지역 활성화를 주도하는 리더로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촌지역 인력은 어업분야 인력 육성에 집중하여 왔으며 “어촌지역 리더”라는 개념도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어업인력 육성사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후, 농촌지역 및 일본의 농·어업 인력육성 정책과 비교하여 어촌지역 리더 육성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

#### 1) 어촌지역 리더 육성정책

전문지식을 가진 지역리더가 사업 기획·추진, 후계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리더가 어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기술·지식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어촌의 자원을 활용하는 분야는 수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어업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 모두가 포함된다.

즉 어촌지역 리더는 어업 혹은 어업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어촌지역 리더 육성은 어업 혹은 어업과 연계된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가장 효율적이다.

지금까지 어촌은 수산물 생산 공간으로서만 주목되어 왔기 때문에 어촌지역의 인력육성 역시 어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어업이외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지역을 활성화하는 인력 육성 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어촌지역 리더 육성은 전문인력 육성과 연계되어야 하지만, 현재 어촌지역의 인력 육성정책이 어업전문인력 육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전문인력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어촌지역의 리더육성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어촌지역 인력 육성정책 연혁

어촌지역의 인력육성은 산업화로 청장년층의 인구유출과 어업의 경쟁력 약화가 심화되자 어촌지역의 개발 및 영어승계 인력확보를 목적으로 1980년대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인재육성사업으로는 1981년에 실시된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에 뿌리를 둔 “어업인후계자육성사업”이 있다(〈표 3-1〉 참고).

〈표 3-1〉 어촌지역 리더 육성제도 변천 과정

연도	근거법령	사업/제도	내 용
1978	-	영농후계자육성지원사업	새마을청소년 회원을 중심으로 “영농후계자육성지원사업” 실시 농촌개발을 주도하고 과학영농을 선도할 영농후계자 육성을 목적으로 함
1981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영농후계자 육성자금을 통합하여 최초의 국가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농어민후계자육성” 제도가 신설됨



## 어촌지역 리더 육성제도 변천 과정(계속)

연도	근거법령	사업/제도	내 용
1990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이 농어촌발전특별 기금으로 통합되면서 재원이 커짐. 정책의 범위가 후계자에서 전업어가와 영어 법인 등으로 확대됨
1992~ 1995	"	"	농어민후계자제도의 체계화 : 어업인후계자→ 전업어가→선도어업경 영체 ※어업인후계자산업기능요원 육성
1994	"	"	육성재원이 농어촌발전기금에서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로 변경됨
1996	"	어업인후계자육성사업	해양수산부로 주관부처 이전됨
2004	"	"	육성재원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수산발전기금으로 변경됨
2005	"	"	명칭변경 및 지원방법 개선(선정 후 지원) 전업어가→전업경영인 선도어업경영체→선도경영인
2007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어업인후계자육성사업, 창업어가후견인제, 수산 업 인턴제, 수산 전문계 고교 특성화	잠재어업인의 수산업 진입을 도와 신규인 력 유입을 촉진시키고, 이들을 전문인력 으로 육성하기 위함

어업인후계자육성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으며, 육성자금은 2004년부터 어업협정 및 FTA·WTO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한 수산발전기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 인재육성을 함께 주관하다가, 1996년 해양수산부가 발족하면서 현재는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어업 여건에 기초한 독자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잠재어업인을 확보하기 위한 어업인턴제와 창업어가후견인제가 실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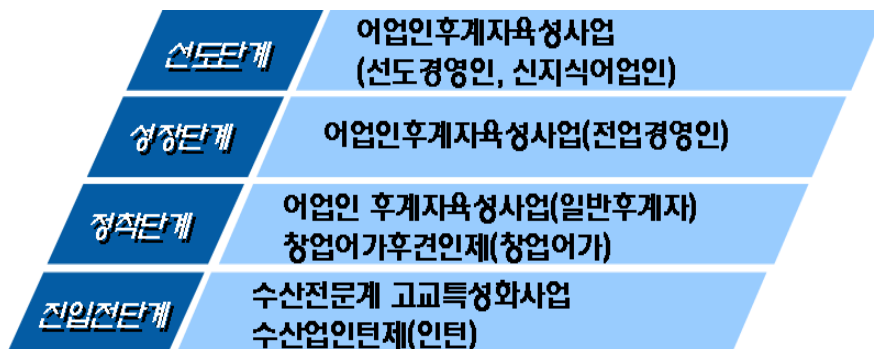
## (2) 어촌지역 인력 육성체계

어촌지역의 인력 육성정책은 주된 산업인 어업부문의 인력 육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어업인력 육성정책은 어업발전단계를 기준으로 정착단계(일반후계자)에서는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이들이 어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성장단계(전업경영인)에서는 전업경영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지막 선도단계(선도경영인)에 이르면 어업을 선도하는 리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2007년부터는 어업인후계자육성사업 이외에 ‘수산업인턴제’와 ‘창업어가후견인제’를 도입하여 선도경영인의 경영능력·어업기술·정보를 활용함과 동시에 잠재어업인의 영어 진입과 초보수준에 있는 창업어업인의 정착을 돕고 있다.

〈그림 3-1〉

단계별 어업인력 육성정책



어업의 전문역량을 가지고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단계는 어업에 정착하여 어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성장단계 이후이며, 특히 오랜 경력 및 노하우, 뛰어난 기술역량, 기계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선도단계의 어업인이 어촌지역 리더의 적임자일 것이다.

한편 어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어,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리더가 필요

하다. 현재 어촌을 어업 생산공간이외 정주 및 휴양공간으로 인식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어촌체험마을사업 혹은 어촌복합생활공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어촌 거주민이 직접 자신의 지역을 정주 및 휴양공간으로 가꾸어 가는 리더가 필요하다.

또한 어촌은 전통 문화와 가치의 보전 및 새로운 문화 창출, 자연환경 보전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촌의 다양한 기능이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리더를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어업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어촌지역의 인력육성 정책을 어업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로 넓혀가야 할 것이다.

## 2) 어촌지역 리더 육성 및 활용 사업

### (1) 어촌지역 리더 육성사업

어촌지역 리더 육성사업은 현재 어선어업 혹은 증·양식업 등 어업 전문인력 육성에 집중하고 있어 수산물가공업 전문인력 육성은 미진하고, 특히 어업과 연계된 수산물 유통 혹은 어촌관광 등을 통해 어촌지역을 활성화하는 리더육성사업은 없는 실정이다.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의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사무장의 교육프로그램에 지역리더 관련 교과과정이 없을뿐만 아니라 사무장의 선발 기준에 리더 자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장이 지역리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촌지역의 발전을 주도할 선도단계의 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어업인후계자 육성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은 어촌지역 인력 육성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다. <표 3-2>는 2006년까지 어업인후계자 육성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

## 어업인후계자 단계별 사업 내용

구분	일반후계자	전업 경영인	선도 경영인
단계별	1단계(정착육성)	2단계(자립안정)	3단계(선도경영)
최초 실행년도	1981년	1992년	1995년
선정대상	영어에 종사가 가능한 자로서 사업신청년도에 만 40세 이하인 자	어업면허를 받은 사업을 3 년 이상 계속 경영하는 만 50세 이하인 자	어업면허를 받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만 50세 이하이면서, 경영규모 가 지원사업 범위 내에 있는 자
지원자금	40~50백만원 융자 이자율 연 3% 5년 거치 10년 상환	50~100백만원 융자 이자율 연 3% 5년 거치 10년 상환	100백만원 융자 이자율 연 3% 5년 거치 10년 상환
교육	신규	대상: 신규 선정자                      시기: 선정 후 1년 이내 신규 기관: 해양수산사무소, 선도경영인 사업장, 해양수산인력개발원	
	보수	대상: 기존 어업인후계자            시기: 선정 후 5년 마다 기관: 해양수산사무소, 선도경영인 사업장, 해양수산인력개발원, 수산계학교 등	

이 사업은 미래 어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어업 정착단계에서부터 전문경영 수행까지 단계를 설정하여 단계가 높아질수록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전문적 경영을 하는 선도경영단계의 선도경영인에게는 가장 많은 1억원을 융자해주고 있다. 지원금은 수산발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원 내역은 수산업경영체를 발전모델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생산, 유통, 가공, 저장시설 및 장비와 교육·견학제공에 필요한 기타시설과 장비 구입비에 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후계자의 신규 및 보수교육은 해양수산사무소에서 실시하나, 전업 및 선도 경영인의 교육은 해양수산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표 3-3〉은 단계별 업종별 어업인후계자 육성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일반후계자가 전체의 85.6%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업경영인은 14.1%에 해당하는 2,401명, 선도경영인은 0.3%에 해당하는 53명에 불과하다. 즉 일반후계자가 전업경영인으로, 전업경영인이 선도경영인 성장하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업유형을 살펴보면, 어업유형은 어선어업(52.1%)과 증·양식어업

(44.4%)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가공업은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즉 현재 어업인후계자는 어업생산에 집중하여 육성되고 있다.

〈표 3-3〉 1981~2006년 업종별 어업인후계자 육성 현황

구 분	합 계	어선어업	증·양식 어업	수산가공업
합 계	16,992명	8,854명	7,541명	597명
일반후계자	14,538명	7,802명	6,306명	430명
전업경영인	2,401명	1,052명	1,186명	163명
선도경영인	53명	0명	49명	4명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실제 어촌지역 및 어업분야의 리더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3-4〉는 2006년 말 기준으로 연안시군 및 수협, 어촌계 등에서 리더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어업인후계자를 보여주고 있다.

〈표 3-4〉 어업인후계자의 어촌지역사회 리더역할 현황

지자체	군수	지방의회의원	시·군자문위원	리·동장
	1명	15명	4명	129명
	새마을지도자	수산조정위원회위원	-	-
	56명	145명	-	-
수협	수협장	수협임원	수협대의원	농협장
	17명	194명	374명	2명
어촌계	어촌계장	어촌계대의원	어촌계임원	-
	259명	253명	109명	-
기타	신지식어업인	청년회장	수산관련협회장	연합회장 등
	56명	23명	11명	13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그러나 어촌 단위에서 어업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지역리더로서, 앞에서 제시한 비전제시, 사업기획·추진·전파, 정보·지식·기술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② 신지식어업인

신지식인 발굴 및 선정은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제2건국위)” 지침에 의해 199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각 부처에서 신지식인을 추천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일괄하여 인증서를 수여한다. 2006년까지 총 100명이 신지식어업인으로 선정되었고 2007년에 10명이 추가되었다.

〈표 3-5〉는 2007년 4월에 실시된 신지식어업인 실태조사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2006년까지 선정된 총 100명의 신지식어업인 중 14명은 이직·이주 등으로 사업을 종료한 상태였다. 나머지 신지식어업인의 어업활동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신지식어업인은 42명, 보통은 36명, 미흡은 8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지식어업인은 해양수산부의 인력육성사업과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신지식어업인을 위한 사업도 없다. 따라서 농촌지역 리더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신지식어업인을 활용 및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신지식어업인은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가공업 및 유통분야에서 선정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촌관광분야도 포함하는 등 분야를 넓혀야 할 것이다.

〈표 3-5〉 신지식어업인 실태조사 결과

지방청	인원	평가			
		사업종료	미흡	보통	우수
부산청	5	2	1	2	-
인천청	2	-	-	1	1
여수청	9	1	2	2	4
마산청	18	3	2	10	3
울산청	5	-	-	2	3
동해청	6	2	-	-	4
군산청	8	1	1	4	2
목포청	21	3	-	8	10
포항청	5	-	1	-	4
평택청	4	1	-	-	3
대산청	9	-	1	5	3
제주특별자치도	8	1	-	2	5
합 계	100	14	8	36	42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 ③ 인력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리더급 어업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으로는 수산업경영인연합회의 해외연수 지원과 수산계통 교육기관의 수산경영자과정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전국 수산업 경영인의 자주적인 협동체이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기술과 경영의 발전을 위한 사업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업 경영인의 정보·기술 교류촉진을 위한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와 해외 선진 수산경영 및 어업현장 체험을 위한 해외연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어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리더급 어업인의 능력 제고를 위한 수산경영자과정은 강릉대, 경상대, 제주대에서 실시하고 있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과정 교육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국고 30%, 지방비 60%, 자담 10%)하고 있다.

## (2) 어촌지역 리더 활용사업

지금까지 살펴본 어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은 개인차원에서 어업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이렇게 육성된 선도경영인이 지역에서 리더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수산업인턴제도와 창업어가후견인제도를 통해 선도경영인을 어업현장의 리더로 활용하고 있다.

어업 이외분야에서 선도단계의 어업인이 어촌지역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게 하는 사업은 현재 없다. 현재 농림부에서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의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무장은 체험마을을 이끌어가는 리더라기보다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리더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리더육성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① 수산업인턴제도

수산업인턴제도는 수산업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잠재인력 중 선도경영인의 사업장 실무를 연수받는 제도로, 수산업부분으로의 신규인력 유입 및 전문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2007년에 처음 실시되었다(〈표 3-6〉 참고).

〈표 3-6〉

## 수산업인턴 제도 사업 내용

선정 대상자	사업시행연도 1월1일현재 만 18~40세 미취업자 사업시행연도 3월 31일 현재 수산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해양수산 관련 대학 재학생
채용 대상자	어업인후계자 선도경영체
연수 내용	인턴은 선도경영입 사업체의 지도하에 현장실습을 받으며, 기간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익년도까지는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다.
지원 내용	인턴을 채용한 선도경영체에 자금 지원 ⇒ 인턴 1인당 월 5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 내외로 연간 5백만원

이 제도는 기존 인력육성제도와 연계되어 실시되며, 선도경영인에게 어업 리더로서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도경영인과 인턴에게 사업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용 대상자에 신지식어업인도 포함시켜 인턴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창업어가후견인제도

창업어가후견인 제도는 실제 창업을 준비하는 어업인후계자와 해양수산관련 전문가를 연결하여 창업에 필요한 기술, 경영, 시장여건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비롯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수산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창업어의 안정적인 영 어 정착을 돕고, 더 나아가 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창업에 필요한 지식, 정보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 역시 후견인 자격에 신지식어업인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표 3-7〉 참고).



〈표 3-7〉

창업어가후견인 제도 사업 내용

지원 대상자	2003~2007년도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중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혹은 지원 예정인 자
후견인 자격	해양수산신지식인, 선도경영인, 수산계 대학교수, 수산직렬(지도직, 연구직, 수산직) 경력자, 수산관련 연구원 등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어가: 후견인에게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를 제공받음</li> <li>- 후견인: 창업어가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자금 지원</li> <li>- 기간: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약정체결기간을 10월을 원칙으로 하며, 익년도까지는 최대 24개월까지 허용</li> </ul>

향후에는 대학생 및 창업어가 이외 일반 후계어업인이나 전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연수 활동과 어업체험을 위한 도시민의 개별 어업체험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 선도경영인과 신지식어업인 등 어업 리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어촌지역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전이 아닌 다양한 기회(연수, 판매 등)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만들어 선도경영인과 신지식어업인의 pool을 확대해 가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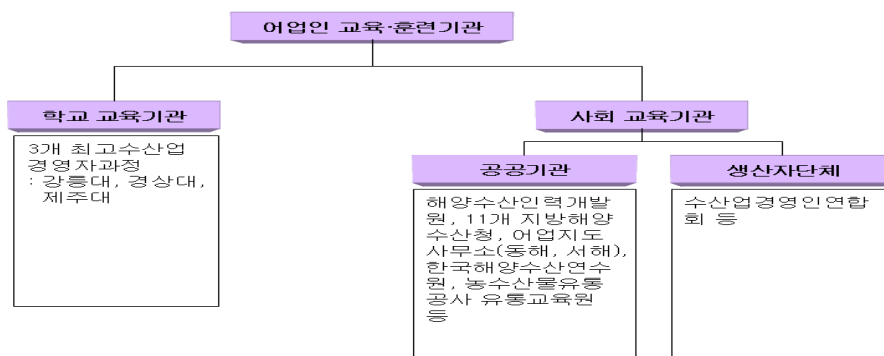
### 3) 어촌지역 리더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 (1) 어촌지역 리더 교육기관

어업인 대상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일반대학의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을 비롯한 교육기관, 수산경영인연합회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어업인 대상 교육은 해양수산인력개발원과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3-2〉 참고).

〈그림 3-2〉

## 어업인 대상 교육·훈련 기관



## ① 수산계통 학교 교육기관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해양수산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대학교 5개소와 전문대학 1개소가 있다. 〈표 3-8〉은 해양수산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3-8〉

## 해양수산 관련 대학(교) 현황

대학(교)	단과대	학과(부)수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6개	식품생명공학부,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수산해양과학부, 수산생명의학과, 수해양산업교육과, 해양산업경영학부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5개	토목환경공학부, 해양생명과학부, 수산경영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해양경찰시스템학과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1개	해양과학부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7개	해양생명과학부, 해양생산학 동력기계시스템공학부, 식품생명공학 해양시스템공학부, 해양학과, 수산생명의학과
전남대	수산해양대학	3개	해양기술학부, 식품·수산생명의학부, 해양경찰학부
강원도립대학		2개	해양경찰과, 해양생명과학과

이 중 강릉대, 경상대와 제주대만이 최고수산업 경영자과정을 개설하고 있지만, 해양수산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나머지 대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어업인 대상 교육이 가능하다. 현재 어업인 대상 교육기관이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② 사회 교육기관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어촌지도자 협의체 운영, 지도인력능력 향상 및 교육, 어업인후계자 교육,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 지원, 신지식어업인 관리, 자율관리어업 육성지도, 양식·종묘생산 등 기술 지도 등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은 해양수산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주로 어선 및 상선 운행 및 승선에 필요한 안전교육, 항해사, 통신과 오염방지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며, 어선 선박 직원을 승무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은 농수산물 유통 전문인 양성을 위한 공공분야 교육전문기관이며, 수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수산정보센터는 농업·농촌의 정보화사업을 실시하고 농업정보의 활용촉진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91년도에 농협, 축협, 수협과 마사회 등 당시 농림부 산하 10개 단체의 출연에 의해 만들어진 재단법인이다. 현재 진행사업으로는 농업 정보서비스사업, 농업인 정보화 교육사업, 농업인 홈페이지사업, 임업인 홈페이지사업, 통합 농업교육 정보사업, 농산물 생산유통사업, 농산물 이력추적사업, 농식품 안전정보사업, 정보화 마을운영사업 등이 있다. 현재 어업인 대상 정보화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 어업 교육인프라는 풍부하지 못하므로 위의 기관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2) 어촌지역 교육프로그램

대표적인 해양수산 교육·훈련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관은 해양수산인력개발원과 지방해양수산청(사무소)이며, 교육은 집합교육, 방문교육, 원격영상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된 교육내용은 정부의 어업인 대상 정책과 관련된 교육이나 어업기술이다.

하지만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리더가 수행해야할 역할이나 자질에 대한 교육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다. .

### ①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의 집합교육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은 어업인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수산업, 해운·항만·물류, 관련 법규, 연안정비, 해양보호, 해양레저 등에 대한 총 60개 교육훈련 과정이 있다. 이중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은 7개 과정에 불과하다. 어업인 후계자 중 전업경영인의 교육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집합교육과정에 대한 세부내용이다(〈표 3-9〉 참고).

〈표 3-9〉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의 어업인 집합교육

교육명		교육일정	인원	대상	교과목 혹은 교육목표
어촌관광 가이드		2.26~2.28	50	어업인 공무원	어촌관광정책, 관광자원조성, 상품화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전략,接客기술 및 해설기법, 해양관광포털 소개 및 활용, 현장체험
어촌종합 개발사업		3.14~3.16	40	어업인 공무원	사업 해설, 어촌·어항법규, 해양수산 시설관리 및 집행절차, 어촌경영효율화 방안, 해양관광포털 소개 및 활용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11.14~11.15	30	산업기능요원	WTO/DDA 및 FTA 대응, 어업전문인력 육성, 병역법해설, 해양관광포털 소개 및 활용, 인터넷전자상거래
어업인현지 기술교육		연중 (1일4회)	320	어업인	새로운 개발기술 및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수산기술의 제공, 현지를 방문하여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운영
전업경영인 교육	전업경영인 어선어업	3.21~3.23 3.28~3.30	40 40	전업경영인	WTO/DDA 및 FTA 대응, 어업전문인력 육성, 어선의 안전조업, 인터넷 전자상거래, 어업관리와 자원관리, 현장학습, 어업정보교류
	전업경영인 어류양식	4.4~4.6	20		WTO/DDA 및 FTA 대응, 어업전문인력 육성, 어류양식방향, 인터넷 전자상거래, 어류질병 대책, 현장학습, 어업정보교류
	전업경영인 패류양식	6.27~6.29	20		WTO/DDA 및 FTA 대응, 어업전문인력 육성, 신 양식기술 개발,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묘생산기술관리, 현장학습, 어업정보교류
	전업경영인 해조류양식	5.21~5.23	20		WTO/DDA 및 FTA 대응, 어업전문인력 육성, 해조류양식, 인터넷 전자상거래, 히조류 유전육종, 현장학습, 어업정보교류
수산업경영인 간부연찬		11.29~11.30	70	수산업경영인간부	WTO/DDA 및 FTA 대응, 정책당국자와의 대화, 간부 직무능력 향상, 토론 및 정보교류
여성어업인 지위향상		8.30~8.31	50	여성 어업인	여성 어업인력 육성, 양성평등의식 제고 방안, 수산해양 관광 포털 소개 및 활용, 수산물 가공·유통 등 창업지원 방안, 인터넷 전자 상거래, 여성 어업인 정보 교류, 현장학습
원격어촌 정보화교육		연중 (1,3일6회)	390	어업인 공무원	PC 정비 및 환경개선, 어업인 소프트웨어, 파워포인트·엑셀·한글 2002, 전자상거래

자료 : 한국수산인력개발원, 「교육훈련계획」, 2007.

## ② 수산기술지도 보급

지방해양수산청에는 2005년 현재 253명의 어촌지도·수산직 공무원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해양수산사무소별로 지역특산물 발굴 및 고소득품종 보급확대를 위해 “지역 으뜸품종”을 개발·육성하고 있는데, 선도경영인과 신지식어업인 등 지역의 어업리더와 함께 진행된다면 개발 및 보급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③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의 원격영상교육

국립수산물과학원 인력개발본부는 원격영상교육시스템을 통해 원격수산기술상담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원격기술상담을 통해 어류질병, 신품종 양식기술, 성공사례, 해양수산시책 등을 정기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고, 어업 현장에서 애로가 발생하는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어업기술 이외 정보화교육을 통해 PC정비, 파워포인트, 엑셀, 네트워크 등 경영정보화 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다.

## 2. 농촌지역 리더 육성 실태

농촌지역 인력육성정책은 농림수산부 시설이었던 1981년에 실시된 “농어민 후계자육성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지역 인력육성정책과 유사하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근간이 되는 농업이외 정보화, 농산물유통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개발을 주도하기 위한 역량 및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리더교육과 지역개발 리더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인재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역량을 결집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만들어 농가소득의 증대를 꾀하고 있는데, 이 지역농업클러스터는 특화사업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 리더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농촌지역 인력육성체계 하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 사업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어촌지역 리더육성 실태와 비교하기 위해 농업인력 육성 정책을 살펴보고, 사업으로 농업분야, 농촌지역개발 분야, 그리고 이외 분야에 대한 인력육성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농촌지역 리더 육성정책

앞에서 살펴본 어촌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 리더 육성은 농촌의 근간이 되는 농업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으며 현재 농촌지역의 인력육성 체계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만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농업인력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농촌지역 인력 육성정책 연혁

농촌지역 인력 육성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농촌 인구유출이 급속히 이루어지자 농촌지역의 개발을 주도할 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1981년에 실시된 “농어민후계자육성정책”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우수 농업인 육성사업인 전업농육성사업은 1991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1994년에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통해 우수 후계농업인을 전업농으로, 전업농을 선도농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체계가 수립되었다. 1995년에는 영농규모화사업을 시작하였고, 1999년에는 “농업·농촌기본법”을 통해 원예, 특작, 축산 전업농을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통합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농업인턴제와 창업농후견인제를 도입하여 신규인력 확보 및 신지식농업인 등의 선도농 육성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이외 정보화, 유통, 지역개발 등으로 리더육성의 분야를 넓히고 있다.

### (2) 농촌지역 인력 육성체계

농촌지역의 리더육성 정책을 주된 산업인 농업의 발전단계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표 3-10>은 농림부의 농업인력의 단계별 육성체계와 주요 육성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 성장단계는 창업이전 교육, 창업, 성장과 성숙단계로 나뉘는데 이중 성숙단계에 있는 농업인이 지역 농업의 리더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성숙단계인 선도농에 대한 육성정책으로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지역을

선도하는 자연인과 법인 육성을 하는 신지식농업인과 농업벤처육성 정책 등이 있다.

〈표 3-10〉 단계별 농업인력 육성 정책

단계	육성체계	주요 농업인력 육성 정책
성숙	선도농	신지식농업인 및 농업벤처육성 등
성장	전업농	영농규모화사업, 선도경영체 육성 등
창업	후계농업인	자금지원을 통한 후계농업인 육성 등
교육	학교·사회교육	자영농고·특성화대 지원, 한농전 설립, 영농 4-H지원 등

자료 : 농림부 내부자료,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2005).

## 2) 농촌지역 리더 육성사업

농촌지역 리더 육성사업은 어촌과는 달리 농업분야 이외 유통분야 및 정보화분야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인력육성사업은 동일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리더육성 사업을 전문인력 육성사업과 연계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외 지역농업클러스터 관련 사업과 외부의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사업은 비록 사업 목적이 농촌지역 인력 육성은 아니지만 이들이 농촌지역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농업분야 리더 육성사업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후계농업인을 선도농으로 육성하는 사업과 신지식농업인 관련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중 성과가 우수한 자를 선정하여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표 3-11〉 참조).

〈표 3-11〉

##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내용

사업 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경과된 농업인
지원 자금	8천만원 이하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 적용 대상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자, 복합영농 등)와 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추진절차	농업인 신청→기초평가 실시 및 추천→시군단위 추천→도에서 대상자 선정→농림부에서 최종대상자 승인→대상자 명단통보→자금지원→사후관리(농협, 시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업 주관기관	-시군자치구 및 농업기술센터 : 접수, 평가, 심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사후관리 총괄 -시도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지원대상후보자 농림부 보고 -농협중앙회 : 사전 신용조사, 사업비 지원, 지원용자금 관리 -외부 평가전문기관 : 후계농업경영인 평가,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위한 자료 작성 협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후계농업경영인 평가 및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참가, 사후관리

이 사업은 우수한 농업 인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②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성장이후 단계 농업인에게는 자신의 영농성장이 한계에 다다르거나 보다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집단 교육·훈련보다는 개별적인 경영진단 및 자문의 효과가 크므로, 농림부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농업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농가가 직접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받으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컨설팅업체는 전문인력을 보유한 등록 사업체를 공모방식으로 모집하여 컨설팅업체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한다. 〈표 3-12〉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이고, 〈그림 3-3〉은 사업추진체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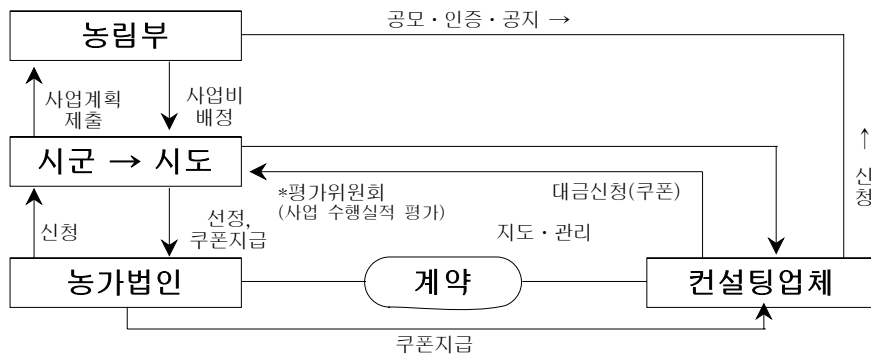
〈표 3-12〉

## 농업컨설팅지원 내용

사업 대상자	쌀전업농, 일정규모 이상 원예·특작·축산농가, 매출규모가 큰 국산농산물 가공업자,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상위 공동마케팅조직,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미곡종합처리장, 농촌관광, 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지원 자금	개별농가 8백만원, 법인·업체 10백만원, 기타 30백만원 이내 -1,2차년도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3차년도 : 국고 40%, 지방비 10%, 자부담 50% -4차년도 이후 : 자부담
사업시행절차	농가 등 신청→지원대상자 선정→쿠폰지급→농가가 컨설팅업체와 계약체결→시장·군수 계약 승인 및 컨설팅업체와 약정체결

〈그림 3-3〉

## 사업추진체계



자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시행지침서.

## ③ 농업인 전문교육

농업인 전문교육은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실천자로서의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사업이다.

농업인 전문교육에서는 단일품목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품목별로 농업인을 소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또한 교육의 효과가 한 개인이 아니라 지역 전체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도력 배양 및 실천의지 함양에도 주력한다.

2007년에 실시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새해 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농업인교육,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지역농업교육협력체사업, 우수농작물관리제도 등이 있다. 교육방식은 강사에 의한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토의, 사례 발표, 실기실습, 견학 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표 3-13〉 **농업인 전문교육 내용**

사업 대상자	품목별 농업인
추진절차	교육수요 조사→교육계획 수립→교육계획 확정→교육실시계획 수립→교육 실시
사업 주관기관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 ④ 신지식농업인 발굴 및 육성

신지식농업인은 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공유를 통해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개발·개선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농업 및 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활동을 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선정된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농업지식을 창조·전파·공유하고, 신지식을 이용하여 농업 및 농촌발전을 이끌며, 일반 농업인을 신지식농업인으로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표 3-14〉 참고).

〈표 3-14〉 **신지식농업인 선정 세부 내용**

대상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작물재배업, 축산업, 조경수식재관리, 수렵업, 임업·관련 서비스, 농업생산자재산업, 식품가공산업, 농산물유통산업, 관련 서비스
선정절차	농업인이 지자체·농업관련기관/단체·제3자에게 신청→신청 받은 기관은 조사 후 농림부에 추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실태조사→농림부 후보자 평가→위원회 후보자 심의 및 선발

현재 창업농 후견인 활동, 농업인턴 현장교육, 대학생 창업연수, 농업교육 기관 강의 등을 통해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사업 등에 참여하여 지역 농업 및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자금지원보다는 종합자금 용자나 신용 평가시 가산점 부여, 농업경영컨설팅 우대, 해외선진 농업 및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상품판로 확대를 위한 박람회 개최 및 참여 등 간접적인 정책지원을 행하고 있다. 한편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에서는 신지식기술 연구·확산 및 교육을 통해 신지식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다.

## (2) 농촌지역개발 리더 육성계획

이전에는 정부 중심의 하향식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지방자치제와 사회의 다양화가 진척되면서 지역주민에 의한 상향식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농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사업추진능력을 배양시키고,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관련 사업으로는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촌지역개발 인재뱅크시스템 개발과 농촌지역개발 현장전문가(농촌마을 CEO) 인증제도 운영 등이 있다.

### ①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 프로그램

지역에 의한 상향식 개발에 필요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농촌지역개발리더십 육성과정, 사업주체별 특화과정, 동기화과정, 특별과정 등 4개 과정이 있다.

교육프로그램의 집행을 전담하는 기관은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이며, 교육시행은 한국농촌공사 혹은 민간교육기관이 하되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지속적인 학습 유도를 위해 표준교재를 개발한다. 또한 학적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육이수자의 교육내용, 학점이수상황, 단계 등 전반적인 교육관련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자는 리더급 지역주민과 지자체공무원 중에서 공모 및 추천을 통

해 선발하며, 교육비용은 국고부담으로 운영하되 숙박비 및 식비 등 부대경비는 참가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각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기화과정은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의식화 교육으로 의식전환 및 마을공동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순회교육방식으로 추진한다. 특별과정에서는 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교육과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원생활 관련 실무 교육이 실시된다.

〈표 3-15〉와 〈표 3-16〉은 각각 농촌지역개발리더십 육성과정과 사업주제별 특화과정의 세부 내용이다.

〈표 3-15〉 2006년 농촌지역개발리더십 육성과정 세부 내용

교육 목적	지역리더로서 종합적인 역량 배양
교육대상	지역에서 리더역할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지역개발 담당 공무원, 리더역할을 하고자 하는 농촌이주 희망 도시민 ※ 2006년 교육인원 : 60명
교육시기/기간	교육은 6개월에 걸쳐 농한기인 3~4월과 6~9월 중 월 1회 시행
교육방법	강의, 워크숍, 분임토론, 사례발표 등
교육내용	-1단계 : 자기혁신 및 리더십 개발 -2단계 : 농촌발전의 이해(사회정세, 정책, 성공사례 견학 등) -3단계 : 우리지역의 가치발견과 미래비전 구상(지역자원조사방법, 가치 찾기, 미래비전 구상 등) -4단계 : 기획력 개발(지역 마스터 플랜, 기획성 작성 등) -5단계 : 조직력개발 및 파트너십(갈등관리, 조직화 등) -6단계 : 지역경영의 이해 및 지역가꾸기(지역 경영·마케팅 등)

〈표 3-16〉

2006년 사업주제별 특성과정 세부 내용

교육 목적	지역주민이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촌체험관광 등의 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선택식 교육 실시
교육대상	지역에서 리더역할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지역개발 담당 공무원, 리더역할을 하고자 하는 농촌이주 희망 도시민 ※ 2006년 교육인원 : 925명
교육시기/기간	교육은 6개월에 걸쳐 농한기인 3~4월과 6~9월 중 월 1회 시행
교육방법	강의, 사례발표, 현장실습, 워크숍, 국내외 견학 등
주제	1. 친환경농업지역 개발, 2. 농촌민박 경영, 3. 지역자원 발굴, 4. 홍보·마케팅, 5. 마을경영 관리기법, 6. 갈등 관리 기법, 7. 향토자원의 개발 및 차별화

## ② 농촌지역개발 인재뱅크시스템 개발

농촌지역개발 인재뱅크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이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전문 지식을 농업인이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먼저 농촌지역개발과 관련된 각 분야별 혹은 지역별 전문가 및 기관의 등록·검색 기능과 농촌지역과 전문가간 그리고 전문가간의 온라인 교류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개발 자문단을 구성하여 농촌마을이 요청하면 자문단과 마을을 연결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 ③ 농촌지역개발 현장전문가(농촌마을CEO) 인증제도 운영계획

실제 농촌지역을 선도하고 있는 핵심 리더를 농촌지역개발 현장전문가인 “농촌마을CEO”로 인증하는 제도로, 명예를 부여하여 지역사회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촌마을CEO는 농촌지역개발 교육을 수료한 리더 중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 (3) 기타 농촌지역 리더 육성사업

#### ①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사업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보화능력을 갖춘 사람을 정보화선도자로 지정하여 농업인에게 정보화 교육을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읍면지역에서 역량을 갖춘 정보화 우수자를 최소 1인 이상 발굴 및 선정하여 정보화선도자로 위촉하되 2년 주기로 재 위촉 절차를 거쳐 선도자 자질과 역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농림수산정보망 동호회 코너(on-line)나 오프라인 정기모임을 통한 정보화선도자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노하우 공유 및 공감대 형성을 도모한다. <표 3-17>은 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표 3-17〉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사업 내용

지원 대상자	읍면지역의 정보화선도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정보화선도자 활동비(국고 50%, 지방비 50%) 지원 ※ 활동비 : 농가교육(2시간) 1회당 2만원 지급
사업시행절차	농림부 기본계획 수립→시도 시군의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량 배정→시군 사업추진(정보화 교육실시)→시군 사업결과 교육관리시스템에 입력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선도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합교육과 바우처제도를 활용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연수원, 외부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에 대한 훈련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보화선도자에 의한 정보교육 내용은 <표 3-18>과 같다.

〈표 3-18〉

##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의 교육 내용

농가교육 형태	개별 방문교육과 마을회관 등 교육장을 이용한 집합교육
교육 내용 및 활동	-교육내용 : 컴퓨터 및 인터넷 기초, 농가경영장부 활용, 홈페이지 운영요령 교육 -기타활동 : 마을홈페이지 등 마을단위에 설치된 정보화시스템 운영, 동호회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활동
교육 추진방법	정보화선도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내 농업정보119대학과 연계하여 실시→농가로부터 농가방문확인서 확인→시군서 활동비 집행

## ② 농산물유통전문교육 사업

농산물유통전문 교육 사업의 목적은 농산물 유통개혁을 선도할 인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지 및 소비지 유통현장의 실무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의해 개설되는 분야는 산지 마케팅, 소비지 마케팅, 품목별 마케팅, 유통업 경영혁신 등이 있으며, 신지식농업인이나 선도농업인이 이 과정을 통해 마케팅, 유통, 소비자 행동분석 등에 대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농산물유통전문교육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하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전문교육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한다. 전문교육기관은 공모를 통해 대학이나 생산자단체 등을 모집한 후 농산물 유통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교육이수자에게는 유통정보자료를 제공하거나 유통조직 및 기업의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교육생간 정보교환 등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모임결성을 지도한다. 농산물 유통전문교육 사업 및 교육 내용은 〈표 3-19〉와 같다.

〈표 3-19〉

## 농산물유통전문교육 사업 및 교육 내용

사업 내용	지원 대상자	유통 전문교육기관
	지원 내용	국고 70%이내에서 지원 ※ 1인당 자부담을 포함한 총교육비는 500만원 이내
	사업시행절차	농림부 기본계획수립→전문교육기관 공모(교육계획서 제출)→ 농산물 유통교육심의위원회 심의→전문교육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생 모집→등록결과를 토대로 교육 비 신청 및 지급→교육종료시 교육비 정산 및 결과보고
교육 내용	중점교육대상	신지식농업인, 선도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임직원, 농산물지도관련 공직자,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센터, 농협, 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신유통업체, 품질관리사, 경매사, 전통식 품 가공·제조업체, 기타 농식품 유통 및 가공업체 임직원 등
	전문과정 분야	-산지 마케팅분야 : 산지유통시설운영, 수확후 관리, 상품화전략 등 -소비자 마케팅분야 : 상품개발, 소비자 행동분석, 광고·홍보 등 -품목별 마케팅분야 : 품목별 특화 마케팅 능력 강화 -유통업경영혁신 : 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수립과 경영개선
	교과과정	유통이론, 현장실습, 선진사례연수
	교육기간 및 장소	6개월 정도, 교육장소 및 시간은 교육기관에서 결정

## ③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지역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핵심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다.

지역농업클러스터란 농촌에 클러스터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그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 결집체를 의미한다.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로는 과학기술체계, 생산체계, 기업지원체계 등의 핵심요소와 이를 네트워킹하는 시스템 연계기관, 기획·조정기관, 혁신인프라 등이 있다. 〈표 2-20〉은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시행지침서 상의 지역농업클러스터 유형이다.



〈표 3-20〉

## 지역농업클러스터 유형

구분	유형	설명
대상지역 범위에 따른 구분	기초단위	단일 시군구 또는 복수 시군구 클러스터
	광역단위	광역시도별 1개 또는 복수 클러스터
	초광역단위	2개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친 클러스터
주도적 혁신주체에 따른 구분	대학·연구소 주도형	대학·연구소 등이 주도적으로 지역 농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여 지역전략산업을 형성
	생산자단체 주도형	생산자단체 및 연합회를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가공·수출·유통부문 등이 참여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
	산업 관련기업 주도형	농산업 관련기업들을 기반으로 하여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형태
	지자체 주도형	지자체가 관련 기관의 지원 및 협력체계를 유도·구축하는 전형적인 지방 농정형
특성화 정도에 따른 구분	생산·유통 주도형	특정 품목의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관련 주체의 수평적 참여형태
	가공 주도형	특정 품목의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한 관련 주체의 수평적 참여형태
	테마 주도형	하나의 공통된 테마를 중심으로 한 관련 주체의 수평적 참여형태

자료 :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클러스터의 구성요소를 일정부분 확보하고 있는 지역 및 품목에 대해 성공가능성을 심사하여 투·융자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클러스터 정책의 사업성을 검증하여 2013년까지 10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표 3-21〉은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표 3-21〉

##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

지원 대상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
지원 조건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 내용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핵심생산기반조성사업,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기타 관련 농림사업이나 기술개발 등은 현재 사업과 연계 지원
사업시행절차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 사업계획 수립→시도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자율심사 및 평가→시도 사업신청서 제출→농림부 사업심사·선정 및 사업비 조정→예산 및 자금배정→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④ 내고향 잠재자원 개발 컨테스트 개최

이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출향 도시민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출향 도시민을 대상으로 고향의 잠재자원을 개발 및 활용하는 방안을 공모하여 시상하는 사업이다.

출향민은 농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이외 분야에 대한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어 농촌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리더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성공한 출향 도시민이 은퇴 후 고향에 정착하여 지역의 리더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3) 농촌지역 리더 교육

## (1) 농업인 교육 현황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1990년대 UR, WTO/DDA 농업협상 등으로

농업개방 압력이 커지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농업인 교육·훈련은 농업기술에 집중되었으나 이후 경영(회계 등), 유통, 지역개발 등으로 교육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표 3-22>는 농업인 교육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2〉 농업인 교육 현황

기관	교육 형태	인원 (명)	비고
1. 농림부	107개과정	105,484	
경영인력과	84개과정 : 위탁교육	46,969	농정시책, 창업농교육 등
유통정책과	1개과정 : 위탁교육	420	유통전문인력 양성
정보화담당관실	10개과정 : 위탁교육	54,350	농업경영정보 전문교육 등
농촌진흥과	1개과정 : 위탁교육	1,340	농촌지역개발 리더 양성
기금사업 (축발, FTA)	11개과정(전문교육)	2,405	양돈, 한우, 양봉, 사과, 배, 단감, 감귤 등 7개 품목
2. 농촌진흥청	21개과정 (중앙 1, 도 8, 시군 12)	1,090,430	영농기술, 농기계전문기술,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3. 농협중앙회	81개과정 (농업인, 직원, 임원교육)	39,496	영농기술, 농업경영, 유통, 농협운동 및 생활, 축산기술 교육 등
교육 소계	총 209개과정	1,235,410	
4. 지도사업	12개 사업	4,901	
5. 컨설팅	-농가 컨설팅 -브랜드 컨설팅	1,000 10	- 전문기술, 경영관리 - 업체 재무, 경영, 마케팅 등
총 계		1,241,321	

자료 : 농림부, 「농업교육체계개편 방안」,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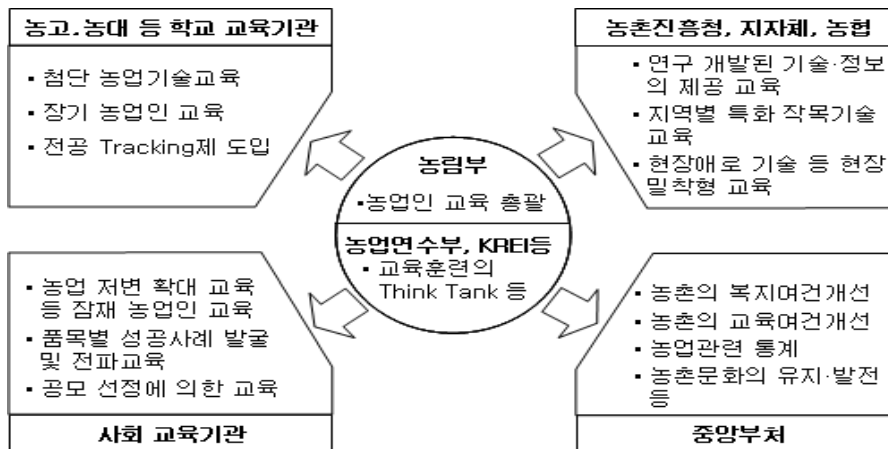
현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총 209개이며, 이중 농림부에서 107개 과정, 농촌진흥청에서 21개 과정, 농협중앙회에서 81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12개의 지도사업과 농가 및 브랜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인원은 총 1,235,410명이며, 지도사업 및 컨설팅을 합할 경우 총 1,241,321명의 농업인이 교육서비스를 받았다.

## (2) 장기 교육훈련계획

농림부는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에서 농업인력센서스와 농업인력특성 연구를 통해 주기적·체계적으로 농업인력 구조를 분석하고 농업인력 수급을 예측하여 이를 중장기인력 육성계획에 반영하는 인력수급예측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종합적인 인력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기관간 역할을 분담하였다.

중앙부처,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사회 교육기관 및 학교 교육기관의 역할은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농업인 교육기관별 역할 분담 및 특성화



자료 : 정예농업인력 육성대책(200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림부는 농업교육 총괄 및 농정시책 교육 등을 담당하고, 농업교육의 싱크 탱크인 농업연수부 및 농촌경제연구원은 연간 교육수요조사, 교육프로그램 모델 및 교육시스템 개발 등을 담당한다.

## (3) 농업인 교육기관

### ① 교육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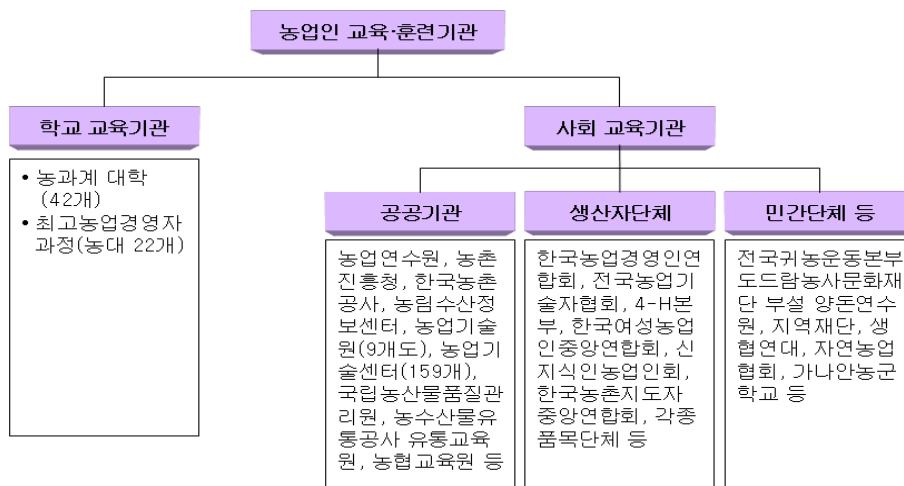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주로 공공기관, 생산단체, 민간단체 등의 사회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계 전문대학이나 농학계 대학에서 부설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농업교육협력체를 통해 특정 농촌지역에 특화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민간교육기관을 육성하고 농업 및 농촌 교육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각종 교육사업을 민간기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 해외연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연수일정 및 교육내용을 기획하고 전문연수기관을 공모하여 운영하고 있다(〈그림 3-5〉 참조).

〈그림 3-5〉

### 농업인 교육·훈련기관



## ② 지역농업교육협력체

지역농업교육협력체는 대학, 지자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인단체 등이 교육역량을 결집한 집적체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자원·인력·시설을 통합 활용하여 지역농업 특성에 부합되는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한다.

지역농업교육협력체에서는 지역경제품목 및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교육 및 농업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중심교육 및 소그룹 단위 토론식 교육 등 성과가 높은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중농이상의 경영규모 및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교육내용은 농업인 조직화, 브랜드화, 품종통일,

계약재배확대, 재배방법 통일, 신기술 보급 등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

〈표 3-23〉은 2007년 현재 지역농업교육협력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별 교육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3〉 지역별 지역농업교육협력체의 교육 내용

지역	주요 교육내용
경기도	마을개발, 명품쌀·축산, 잎맞춤교육 등 9개 과정
강원도	고랭지, 친환경유기농업, 한우, 혼농임업 등 5개 과정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딸기, 인삼 등 31개 품목교육과정
충청북도	농촌관광, 쌀, 한우 등 10개 과정
경상남도	파프리카, 딸기 등
경상북도	포도 생산·유통·가공, GAP, 농촌관광 등 6개 과정
전라남도	시설채소, 국화, 장미, 농촌관광 등 8개 과정
전라북도	친환경 쌀, 한우, 인삼 농촌관광 등 8개 과정
제주도	감귤, 농촌관광, 양돈 등 3개 과정
- 고창군	복분자, 농촌관광 등 8개 과정
- 남원군	복숭아, 포도, 메론 등 4개 과정
- 장수군	· 토마토, 인삼, 오미자 등 9개 과정

농림부는 2006년도에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수지역 협력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의 경우 교육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한데, 지역농업교육협력체와 같이 지역 내 교육역량을 결집한 단체를 만든다면 어업인 대상 교육기관이 부족한 현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4) 농업인 리더육성 교육프로그램

다음은 공공기관인 농업연수원과 생산단체의 농업인 리더육성 교육프로그램이다. 이외 민간단체에서도 리더육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 ① 농업연수원 리더 육성 교육

농업연수원은 농촌 및 농업을 이끌어가는 농림공직자와 핵심 농업인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공공기관으로 전문교육과정 설계 및 교재편찬,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 교육 및 학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3-24>는 농촌 지역 리더육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다.

<표 3-24> 농업연수원 리더육성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교육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목적 : 주요 농업정책 강좌를 실시함으로써 민·학·관의 교육연대 체계를 구축하여 우수농업인력 양성 및 농정시책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 -내용 : 농업·농촌정책방향, 농업통상정책방향, 농식품정책의 과제와 방향, 농산물마케팅 및 홍보전략, 우수영농 사례발표 등	농학계대학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및 지역특화농업전문인력과정 교육생 (합숙/100명)
지역개발 여성리더과정	-목적 : 농촌의 환경과 자연을 관광자원화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여성리더 양성 -내용 : 친환경관광자원 개발정책, 그린투어리즘 성공사례, 리더십 개발, 안내방법 지도, 토론 등	농촌관광 및 체험기반 지역의 선도 여성농업인 (합숙/40명)
여성농업인 리더십아카데미 과정	-목적 : 기획력 및 리더십개발을 통해 창조적 실천력을 갖춘 여성리더 및 강사요원 양성 -내용 : 여성농업인정책, 기획력 개발, 리더능력개발, 교안작성 및 실습, 현장견학	농림부에서 선발한 여성농업인 및 관련 지도자 (합숙/30명)
농촌지역 개발과정	-목적 : 농촌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활기찬 농촌으로 탈바꿈하는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내용 : 지역개발계획,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영향, 농촌지역 시책제도정책, 도시민의 농촌교류활성화 방안, 농촌복지관리 및 소득창출, 지적재산권의 이해와 권리행사	공무원, 기타 교육희망자 (비합숙/33명)
농촌관광 육성과정	-목적 :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이해 도모 및 새로운 농촌관광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활성화 유도 -내용 : 농촌관광 추진시책,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사례, 도농녹색교류 프로그램 개발, 관광농촌 만들기, 현장교육 및 토론 등	공무원, 기타 교육희망자 (비합숙/48명)
녹색농촌체험 마을지도자과정	-목적 : 경영마인드를 제고하여 농촌관광 활성화 -내용 : 농촌관광 육성방향 및 시책, 농촌관광 프로그램 활용 및 운영방안, 농촌관광 우수사례 발표 및 현지방문, 녹색농촌체험마을 지도 및 사후관리	관련 공무원, 농협직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 및 지도자 (합숙/40명)

### 농업연수원 리더육성 교육프로그램(계속)

프로그램명	교육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농업경영정보 리더(통합워크샵)	-목적 : 농업경영정보 우수사례 발표 및 리더간 지식·정보 교류를 통해 상호 벤치마킹의 기회제공 -내용 : 농산물 상거래/경영 분야 이슈, 넷/식파라치 대응 방안, 농산물을 위한 특허와 브랜드전략	농업인 (합숙/20명)
농업경영정보화 리더과정	-목적 : 교육생들의 지속적인 정보, 기술 습득을 지원 -내용 : 사례발표 및 토론, 농업정책 방향, 네트워크시대의 농업인의 리더십, 홈페이지 홍보 방안 등	농업경영정보화리더과정 교육생/농업인 (합숙/30명)

자료 : 농업연수원 홈페이지.

### ② 생산자단체 리더육성 교육

〈표 3-25〉는 생산자단체에서 운영하는 리더십 함양 교육프로그램이다.

〈표 3-25〉 생산자단체의 리더육성 교육프로그램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시기(기간)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농업경영인리더십육성과정 -혁신지도자육성/개발과정 -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선발자교육과정	2.1~3.31(2개월) 3.1~6.30(4개월) 7.1~12.31(6개월)
한국신지식농업인회	-신지식농업인반 교육 -지식농업경영인 육성교육	2.1~8.31(7개월) 3.1~11.30(9개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최고지도자과정 -선도농가지도자	3.31~10.18(9.5개월) 6.1~7.31(2개월)
한국농업CEO연합회	-농업CEO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3.1~6.30(4개월)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농농업지도자경영혁신과정	4.1~12.31(9개월)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여성농업인 혁신인재 비즈니스아카데미 -여성 농업인 핵심리더 혁신 리더십 과정 -여성 농업인 지역혁신 리더 육성과정 -여성 농업인 농협임원 역량개발과정	4.1~9.30(6개월) 1.1~2.28(2개월) 1.1~12.31(12개월) 10.1~10.30(1개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여성농업전문경영인학교 -여성 농업인 리더십 교육	3.1~11.30(9개월) 2.1~6.30(5개월)
농가주부모임농업인연합회	-여성농업인리더십교육	4.1~10.30(7개월)

자료 : 농림부 농업교육계획(2007).



#### (5)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AgriEdu.net)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은 농림부와 (재)농림수산정보센터가 수요자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축한 농업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이다. 농업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농촌 및 농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온라인 상에서 검색 및 신청 혹은 수강할 수 있다.

현재 이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기능은 교육과정 정보 검색, 온라인 강의 수강, 농업인 개인별 교육이력관리, 교육기관의 운영지원 및 교육진행 상황정보 관리, 그리고 교육생간·교육생과 강사간 커뮤니티 지원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농림부는 정부지원 농업교육의 진행상황 점검 및 교육이수 성과분석이 용이해졌으며, 또한 농업교육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4) 어촌과 농촌지역 리더육성 비교 분석

#### (1) 육성체계

어촌과 농촌의 리더육성은 각각 어업과 농업의 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을 기초로 하여 실시된다. 한편 어업과 농업의 인력육성정책은 수산부와 농림부가 분리되기 전인 1981년도에 실시된 “농어민후계자육성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어 육성체계가 비슷하다. 즉 모두 농어업의 발전단계 기준으로 단계를 설정하여 각 단계별로 맞춤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농어업을 이끌어가는 선도단계의 정책은 서로 사뭇 다른데, 어업은 선도경영인에 대해 어업인후계자와 같이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신지식어업인에 대한 활용 및 지원은 없으나, 선도농과 신지식농업인은 간접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후계농업인을 선도농으로 육성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동기부여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2) 지역리더 육성 사업

어촌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리더 인력 육성 사업이 없고 오직 어업 전문인력 육성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어업분야를 선도해갈 수 있는 선도경영인과 신지식어업인을 후계양성 및 지역개발 관련 사업에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

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지역개발에서 리더의 중요성을 깨닫고 리더육성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다만 농업 및 농업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사업과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

농업전문인력의 활용 사업을 살펴보면 농촌은 어촌에 비해 다양하다. 즉 선도농과 신지식농업인을 농업인턴제, 창업농가후견인제를 비롯하여 연수 및 현장훈련과정, 교육기관 강사, 지역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다.

그리고 인력육성사업은 아니지만 선도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농업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사업과 출향도시민을 활용하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한 어촌지역에서 리더육성 대안으로 적극 시도해볼 만하다.

### (3)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교육부분은 농업과 어업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우선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농업은 학교교육기관과 민간 사회교육기관이 풍부하다. 학교교육기관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농학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22개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어 각 지역의 농업인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어업의 경우 해양수산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6개에 불과하고 기존어업인 대상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교는 제주대학교, 경상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3개 대학교에 불과하다.

민간 사회교육기관의 경우 농업은 품목별 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각 단체에서 품목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리더십교육 및 농업인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환경단체 혹은 재단 등에서 지역개발과 관련된 교육이나 경쟁력 있는 농업방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업의 경우 품목에 대한 전문교육, 리더십 및 어업인 능력개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단체가 부족하다.

공공 사회교육기관의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이나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유통 및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실시되고 있지 않다.

어업인 대상 교육기관 수에 비해 농업인 대상 교육기관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어업과 농업의 유사성을 생각할 때 농업인 대상 교육기관을 활용한다면

부족한 어업인 대상 교육 인프라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 활성화를 위한 리더교육의 경우 농촌과 어촌의 정주여건 및 인구구성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농업인 대상 교육기관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농업인 대상 교육은 기관수가 많은 만큼 교육내용도 다양하며, 최근에는 지역개발 리더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어업인 대상 교육은 인프라의 부족 등의 이유로 육성정책과 관련된 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농촌지역의 정부기관, 대학, 농협, 농업인 단체 등의 교육역량을 결집한 지역농업교육협력체를 만들어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사무소별로 “지역 으뜸품종”을 개발·육성하고 지역특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수산업관련 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을 결집하여 잠재역량을 활용한 교육 및 지역개발 사업은 없다.

### 3. 일본의 농·어촌지역 리더육성 정책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농·어촌지역의 인력 육성은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이 중심이며, 지역 활성화를 주도할 리더 육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어업 인력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일본의 농·어촌지역 리더육성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일본의 농업리더 육성 정책

##### (1) 일본의 농업 교육 및 육성체계

일본은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학교교육으로부터, 취농준비, 청년농업인, 장년농업인, 지역리더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교육·연수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농업인력 육성 체계에서 최종단계가 지역리더인 것을 볼 때 일본의 농업인력 정책은 개인의 농업기술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지역 활성화와 연계되어 있다.

취농 이전까지는 정규 교육기관인 농업 전문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농업교육을 실시하거나 광역자치구의 농업대학교 혹은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습위주의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진 우수농가에서 교육을 받거나 챌린지 팜스쿨이나 취농준비학교를 통해 농업으로의 이직 혹은 농촌으로의 이주를 준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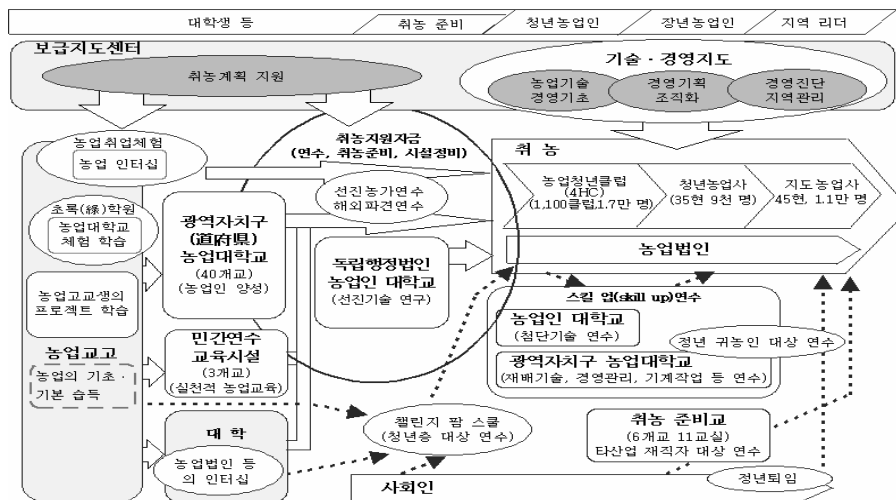
농업진입 이후에는 보급지도센터의 보급원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이나 경영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농업인들이 농업인대학교나 자치구 농업대학교에서도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규 농업진입자가 지역의 리더로 성장하게끔 각 시기별로 지원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각 시기별로 살펴보면, 취농 이후 초기단계의 젊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는 학습활동과 교류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미래 지역의 핵심 농업인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4H클럽이 있다. 일본은 2006년 현재 1,100클럽에서 1만7천명이 활동하고 있다.

장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청년농업사제도는 장래 우수한 농업경영을 목표로 하여 지역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청년농업인을 현에서 선정하여 연수 및 연구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청년농업사로 인정받은 장년농업인은 9천명이다.

〈그림 3-6〉

일본의 농업 교육 및 육성 체계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내부자료.

전문 농업경영을 실천하고 지역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지도농업사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후계자를 육성하게 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지도농업사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청소년 대상으로 농업연수를 시키고, 농촌청소년단체에 조언 및 지도를 실시하며, 농촌청소년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에 제언을 하고, 전국지도농업사연구회나 지도농업사연구회 등을 통해 정보·지식 교환이나 연수회를 개최한다. 2006년 현재 지도농업사는 약 1만명으로 청년농업사보다 그 수가 많다.

## (2) 일본의 식품·농업·농촌기본계획

일본 농업인력 육성 정책은 식품·농업·농촌기본계획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된다. “식품·농업·농촌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지의 감소 및 경작을 포기한 농지의 증가 그리고 농업인의 고령화 등 국내적 여건과, WTO·EPA/FTA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진전 등 국외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농업·농촌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식품·농업·농촌기본계획은 5년단위로 재검토되는데, 최근에 수립된 계획은 농업과 농촌의 다기능, 즉 식품의 안정 공급, 국토나 자연환경의 보전, 우수한 경관의 형성, 생물 다양성의 보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농업·농촌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분야에서는 안정적 공급, 농업분야에서는 지속적인 발전, 농촌분야에서는 농촌진흥을 목표로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농업·농촌 리더 육성과 관련된 “바람직한 농업구조의 확립을 위한 후계자(担い手) 육성 및 확보”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바람직한 농업구조란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농업 경영체가 경영하는 농지가 전체 농지의 약 7~8할 정도를 차지하는 농업구조를 의미한다. 이때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농업 경영체란 주된 종사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타 산업 종사자와 동등하고, 주된 종사자 1인당 생애소득이 타 산업 종사자 수준과 비슷한 경영체를 말한다. 한편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농업 경영체와 이를 목표로 경영 개선에 임하는 농업경영체 혹은 집단(集落) 영농체를 농업 후계자라고 한다.

앞으로는 일반 농업인 전체가 아니라 농업 후계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농업 경영 안정 대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농업인이 농업 후계자가 되는 방법은 농업인이 스스로 농업경영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정촌

으로부터 인정농업자로 인정받거나, 소규모 농업인이나 겸업농업인이 경리의 일원화 및 법인화하여 집단 영농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농업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인정농업자나 집단 영농체를 만들려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후계자 육성방안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후계자 육성을 위해 후계자육성종합지원협의회에서는 인정농업인가 되기 위해 필요한 농업경영개선계획서 작성방법 교육 및 경영내용 검토를 실시하고 있고, 집단 영농체 육성을 위해 법인화 계획 등의 일정관리, 계획 달성상황 파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업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활동의 재시작을 돕거나 농지 등의 농업자원을 정리해 주고 있다.

한편 후계자 지원방안으로 후계자육성종합지원협의회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상담·지도 및 영농 시스템 확립 등을 실시하거나, 각종 지원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후계자행동지원팀”에 의한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후계자행동지원팀은 후계자육성종합지원협의회 회원, 보급지도센터, 세무사, 상공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팀에서 융자주체형 보조, 무당보·무보증에 의한 킥 융자, 수퍼 L자금 등의 무이자화 조치, 집단별 경비 지급, 세제조치 등의 각종 지원책을 농업 후계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해 준다.

후계자(担い手) 행동지원 활동으로는 경영상담 및 지원활동, 스کیل업 지원활동, 후계자(担い手) 조직화 및 활동지원, 지역 영농 시스템 확립활동, 집단영농 조직 등의 법인화 활동, 지역 영농 시스템 확립활동, 신규 인재 육성 및 확보 활동 등이 있다.

## 2) 일본의 어업리더 육성 정책

일본은 동물성 단백질의 약 4할을 수산물을 통해 공급할 정도로 수산물 수요가 많은 나라이다. 최근 국제화로 인한 수출이 늘고 있어 기회요인이 되고 있지만, 수산자원이 감소되고 어업 생산구조가 악화되는 등의 위협요인도 안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어촌의 수산업 생산기지의이외의 어촌·어촌에 대한 다기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어업과 어촌을 둘러싼 국내외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정책의 효과를 높이

기 위해서 “수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고 있다. 최근 수산기본계획의 목표는 식용 어패류 자급률을 2017년에 65%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강한 수산업을 확립해 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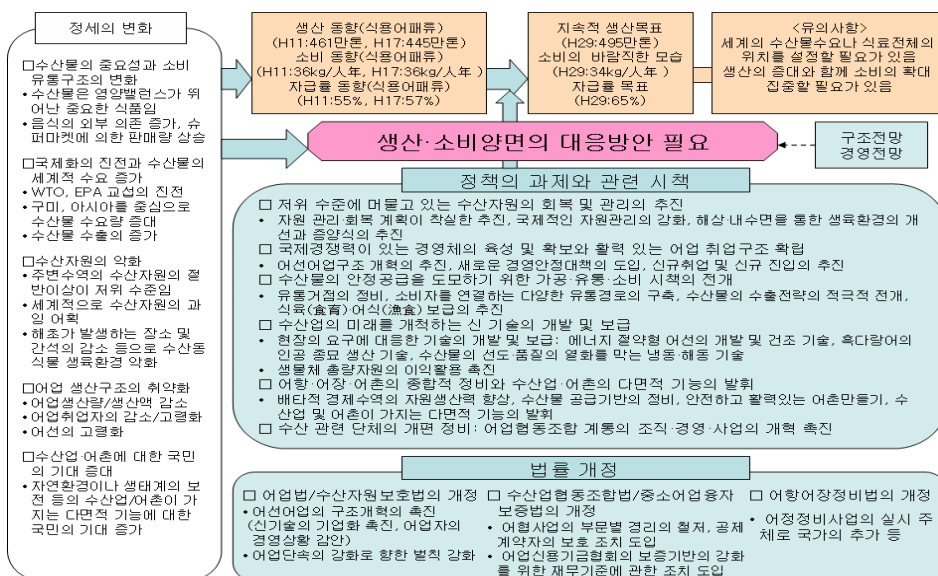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수산자원의 회복 및 관리, 국제 경쟁력이 있는 경영체의 육성·확보와 어업 취업 구조의 확립, 수산물의 안정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가공·유통·소비 시책의 전개, 수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어항·어장·어촌의 종합적 정비와 수산업 및 어촌의 다기능의 발휘, 수산 관련 단체의 개편 정비를 계획하였다.

어업인력 관련 정책은 “국제 경쟁력이 있는 경영체의 육성·확보와 어업 취업구조의 확립”으로, 경쟁력을 갖춘 어업 후계자 육성과 어업인력 확보 그리고 기존 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어업 후계자는 농업 후계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하는 어업인을 말한다. 어업 후계자의 확보활동은 사단법인 대일본수산물회와 어업취업자확보육성센터에서, 교육은 수산업개량보급 조직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림 3-7〉

#### 수산기본계획의 개요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내부자료.

어업인력 확보를 위한 대표적 방안으로 어업취업자확보육성센터 운영과 재챌린지(再 Challenge) 사업이 있다. 어업취업자육성센터에서는 어업인(연안 어업, 원양어업)이 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주고, 각 지역별 구인(연수생 포함)정보와 체험·지원제도를 소개해 준다. 그리고 비즈니스 매칭 박람회를 열어 사업 아이템을 가진 타 업종 종사자와 어협 및 어업인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재 챌린지 사업은 타 업종 사업가가 자신이 가진 노하우나 지식/기술 등을 토대로 수산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어촌에서 시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 조성금을 교부해 준다. 사업 지원자는 어업 챌린지 준비강습회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창업자는 이용 가능한 어장과 시설 등의 경영자원을 제공받는다.

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는 어업 스킬업(Skill-up)과 경영개선 추진사업이 있다. 어업 스킬업 사업으로는 어선선원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조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영개선 사업으로는 민간단체인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청년·여성 어업인그룹 리더자질 향상 대책, 어업경영과 지역활동에 관한 적극적 교류, 핵심어업인협업단체의 경영개선 대책과 어촌여성의 창업활동 대책 등을 지원하고 있다.

### 3) 일본의 민간단체활동

여기서는 농산어촌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는 리더의 육성에 기여하는 민간단체인 재단법인 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와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재단법인 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

이 기구는 2001년에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농림어업 체험협회, 고향정보센터, 21세기 마을만들기학교 등 3개의 재단을 통합하여 만든 단체이다. 이 기구의 주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지역활성화를 위한 IT 활용 가이드 제공
- “사람만들기”에 의한 농촌 활성화 지원 사업
-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 및 교류
- 그린투어리즘사업(등록 및 홍보, 운영방안 연구, 교육 등)
- 농·산·어촌 체험 민박사업(등록 및 홍보, 운영방안 연구, 교육, 개업 상담 등)
- 농산물 직매소사업(네트워크운영, 운영방안연구, 홍보) 등

이 중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주도할 리더를 육성하는 그린투어리즘의 인스트럭터(instructor) 육성 스쿨, 농촌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역산업 매니저 연수 세미나는 다음과 같다.

#### ① 그린투어리즘 인스트럭터 육성스쿨

그린투어리즘이란 농·산·어촌 지역에서 자연, 문화, 인간과의 교류를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활동이다. 이러한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교류활동을 통해 도시 거주민은 자연 및 고향을 경험하고자 하는 요구(need)를 해소하고 농·산·어촌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이 기구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사업으로 그린투어리즘을 운영하도록 “그린투어리즘 인스트럭터 육성 스쿨”을 통해 그린투어리즘 실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이수 후에는 수료증을 수여하여 피교육자에게는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데, 이 수료증은 그린투어리즘 참여자에게는 좋은 체험관광지를 선별하게 하는 신호역할을 한다.

이 스쿨에는 단계별로 3가지 과정이 있는데, 마지막 단계인 에스코트과정에서는 그린투어리즘으로 지역 활성화시키는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코디네이터과정에서는 리더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의견조정과 합의도출, 인재활용 방법 등을 배우며, 지역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NPO법인과 사업 홍보를 위한 마케팅에 대해 교육받는다.

〈표 3-26〉

## 그린투어리즘 인스트럭터 육성 스쿨 개요

구 분	에스코트 (escort) 과정	인스트럭터 (instructor) 과정	코디네이터 (coordinator) 과정
목표	농산어업의 체험이나 경관 등을 소개하고 즐기는 방법을 전달하는 ‘지역 안내인’ 육성	농산어업 체험이나 자연체험활동을 지도하는 ‘체험 지도자’ 육성	다양한 체험활동을 기획·입안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구성원의 의견을 조정하는 ‘기획입안자’ 육성
대상	만18세 이상으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할 의욕이 있는 자	만18세 이상으로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	인스트럭터 과정을 수료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
방법	강의, 그룹워크, 현장체험		
기간	2박 3일	3박 4일	3박 4일
인원	50명/회	50명/회	25명/회
장소	JA전국교육센터(동경)	JA전국교육센터(동경)	JA전국교육센터(동경)
수강료	4만엔	5만엔	5만엔
혜택	과정별 수료증 수여, 시험에 합격하면 인정 지도자로 등록		

자료 : 일본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 내부자료.

## ② 지역산업 매니저 육성

지역산업 매니저는 농산어촌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리더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조언자, 비즈니스 계획자로서 농·산·어촌에서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브랜드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혹은 그린투어리즘 등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에서 지역산업 매니저 육성을 위한 연수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표 3-27〉

## 지역산업 매니저 연수세미나 개요

목 적	- 농·산·어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기법 및 과제 교육 - 농·산·어촌에서의 창업이나 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지역과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교육		
대 상	지방으로의 UJI 턴 <sup>1)</sup> 을 희망하는 도시 주민, 농·산·어촌에서 창업하려는 자, 농·산·어촌 시읍면 직원, 해당 시읍면 내 단체 직원 및 거주자 등		
기 간	2일(2007년 3월)	인 원	60명
장 소	GRS비즈니스센터 야에스 건물 부속동(동경역)	경 비	2천엔
프로 그램	1. 국토에 입각한 지역산업 매니저의 역할 (후쿠이 타카시, 동경농공대학 생물시스템 응용과학부 객원 교수) 2. 지역자원을 살리는 “고향(クニ)”란? (세키하라 츠요시, NPOかみえちご山里7番俱樂部 전무이사) 3. 농산어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이노우에 히로시 츠카사, 이다시 산업경제부 기획과 관광카리스마) 4. 할머니들이 잎사귀를 상품화 한 연간 2.5억엔의 채색(彩色)산업 (요코이시 도모지, (주)彩色 대표이사 부사장) 5. 지역활성화와 브랜드 만들기 (마사도코로 이자, ((주)玄 대표이사) 6. 전원생활과 전원에서 창업 (코노 토시히코, 농업 생산 법인 사쿠라에초상다생산조합 대표이사) 7. 일본의 농업·농촌의 현재의 상태와 과제 (센가 유우타낭, 동경농공대학 지역생태시스템 학과교수)		

자료 : 일본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 내부자료.

이 연수 세미나의 주요 대상은 정년이후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비즈니스 노후를 가진 사업가이며, 목적은 이들로 하여금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개발하지 못한 농·산·어촌의 자원을 상품화하도록 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상품화된 자원은 농·산·어촌 거주민에게는 자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미래의 비전을 찾는 청년에게는 지역의 가치를 보여주어 농·산·어촌에서 정착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1) UJI 턴(turn)이란 진학이나 취직을 위해서 도시로 이주했다가 다시 출신지로 돌아오는 것(U), 진학이나 취직을 위해서 도시로 이주했다가 출신지 근처 지역으로 돌아오는 것(J), 출신지에 관계없이 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여 이주하는 것(I)을 말한다.

## (2)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일본 각 도도부현의 어업협동조합연합회나 지역의 어업협동조합을 연계하는 대표조직이며 현재 일본에는 약 1,600개의 어협에 45만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합회는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으며,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어업경영의 개선과 정부정책 및 어업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파악을 위해 각종 교류대회를 열어 조합원간의 교류 증진 및 정보 전달을 돕고, 핵심어업자 협동단체 등의 청년그룹을 육성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실시한 전국청년·여성 어업자 교류대회에서는 수산업 기본계획에서 언급한 “수산업·어촌이 갖는 다기능”과 관련된 어업인의 역할에 대한 패널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각 대상별로 살펴보면, 어협여성부협의회는 어협 조합원이나 그 가족의 여성을 대상으로 어촌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지역 및 어협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업청년연합회는 각 지역 청·장년 어업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및 지역·어협 발전을 위한 인적 교류, 각종 정보·의견 교환 등을 실시하고 있다.

## 4) 일본의 농·어촌지역 리더육성 정책의 시사점

### (1) 농업리더 육성 정책의 시사점

일본의 농업 교육 및 육성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농업 발전단계에서 최상위단계를 지역리더로 설정하여 농업전문인력이 자신의 농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인의 지역리더 역할은 주로 실무교육을 통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연수 및 연구 활동과 타 지역 지도농업사와의 교류를 통해 변화하는 세태에 적응하면서 지역의 농업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장년농업인을 지역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업사제도를 마련하여 특별한 경제적·제도적 지원보다는 교육 및 연수 혹은 타 지역 농업인과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일본의 농업인력육성정책은 “식품·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농촌의 주요산업인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후계자(担い手) 확보·육성과 집중적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육성과 지원의 관한 업무는 후계자육성 종합지원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세제·금융상의 각종 지원책을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수혜자인 농업인의 편의를 돕고 지원정책의 효과도 높이고 있다. 장래에는 농업 후계자들 중에서 지역의 농업을 활성화하여 농촌 발전을 주도하는 리더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2) 어업리더 육성 정책의 시사점

일본의 어업인력육성 정책은 경쟁력을 갖춘 어업후계자 육성과 어업인력 확보 그리고 기존 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리더 육성은 주로 민간단체인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주도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 청년·여성 어업인그룹 리더자질 향상 대책, 핵심어업인협업단체의 경영개선 대책 등이 있다.

## (3) 민간단체활동의 시사점

일본은 산업의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리더교육을 관련 민간단체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는 농·림·어업이 아닌 관광업으로 농·산·어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투어리즘 인트스트럭터 육성스쿨 중 코디네이터과정과 지역산업 매니저 연수 세미나를 실시하여 전문인력(리더)을 교육하고 있다. 이 기구는 이밖에도 보험개발, 홍보, 민박이나 농산물직판장과 같은 연계 사업 개발, 그리고 조사 및 연구 활동 등 그린투어리즘과 관련된 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조합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어업을 둘러싼 정세,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 그 속에서 어업인의 역할에 대한 연구, 경영개선 혹은 리더자질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어업인 단체는 어업인의 입장에서 해당 산업에 대한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리더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 4. 어촌지역 리더 육성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농촌지역 리더육성 실태와 일본의 농·어촌 리더육성정책을 비교하여 살펴본 어촌지역 리더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인력 발전단계에서 각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과 리더급 어업인의 활용이 미흡하다. 일반후계자가 전업경영인으로, 전업경영인이 선도경영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 필요하다. 선정된 일반후계자 중에서 우수 일반후계자가 전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어 규모 확대 및 기술·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어업경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 전업경영인간의 정보·지식 교류, 선도경영인으로부터의 실전지식 및 노하우 전수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선도경영인이나 신지식어업인의 경우 선도 어업인간의 교류 및 명예 부여로 후계자 양성 및 어촌지역 혹은 어업 개발에 주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잠재적 어업인에 대한 연수활동과 일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활동에 선도경영인을 적극 참여시키도록 한다. 이를 통해 어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잠재적 어업인의 취업을 유도하는 한편, 선도경영인에게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것이다.

둘째, 교육기관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교육내용의 다양하지 못하다. 그 해결책으로는 민간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교육시장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리더십, 정보·유통 등 어업이외 분야의 리더육성 교육 농업인 대상 교육인프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업경영인 이상 어업인에 대한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성장단계 이상의 어업인에 대해서는 집합교육보다는 개별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어업경영 진단 및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컨설팅은 수요조사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만들어 어업이외 어업인이 요청하는 분야에 대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평가시스템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도 하나의 방

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어업·어촌지역의 리더 육성은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어업인의 열의가 중요하다. 어업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수요조사에 의한 교육 내용 선정, 토론·실습·연수 등 참여식 교육방법 확대,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이 있다. 이밖에 수요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정책 정보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어업인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수법, 교육기간 및 장소 등을 정하여야 한다.

## 제4장 국내·외 사례 및 설문조사

### 1. 국내·외 사례조사

#### 1) 국내 사례조사

##### (1) 개요

홍성군 환경농업마을은 광역적으로는 대전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전까지는 국도로만 연결되어 있어서 교통이 비교적 불편한 반면 수도권에서의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은 용이한 편이다.

한편 홍성군 인근에는 대도시가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홍성읍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홍동면 소재 문당리는 삽교천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완만한 평야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벼농사가 널리 행해지고 있다.

문당리는 예전부터 대규모 영농과 축산이 아닌 소규모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데, 홍성군이 우리나라 한우 주산지의 하나라는 점과 홍동면 자체에 한우 사육 농가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이채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에는 2007년 9월 현재 8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친환경적 농산물에 의한 환경농업 실현과 농업을 통한 다양한 소득원 창출과 유통망 개선, 삶의 질 개선 및 살기좋은 주거환경, 녹색관광실현, 두레공동체를 회복하고 국토의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당 환경농업 마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정보화 기반을 통한 사이버 마케팅, 도시, 농촌교류에 의한 직거래 실시 등 지역 지원형 농업을 지원하며 사업계획의 기대효과로 새로운 마을 공동 소득원을 만들고, 대를 잇는 농촌구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보화 시대를 앞서며, 두레 공동체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문당리는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을 통하여 마을 특산품인 유기농쌀(흑향미,



백미, 햅쌀), 유기농 채소, 오리 등 특산물에 대한 전자상거래로 판로를 확장하고 마을의 부가가치 향상에 힘쓰며 마을 공동체 형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체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다.

## (2) 변화의 계기 및 정책적 지원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은 홍동면 소재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출신인 주형로 위원장이 1990년대 초반 은사로부터 오리농법을 이용하는 일본의 사례 기사를 접하고 이를 1993년에 인근 농가에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 마을 대표인 주형노씨는 신지식농업인으로 농업후계자 5명과 함께 마을 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편 문당리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초기에는 미미하였는데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매년 500만원씩이 오리구입비용과 냉동냉장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지원되었다. <표 4-1>은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에 대한 정책적 지원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에 대한 정책적 지원 실적

연도	지 원 내 역
1994	• 홍성군 농촌지도소에서 홍동면 문당리 3ha를 대상으로 오리 1,000마리 구입비용 500만원을 시범사업으로 지원
1995	• 홍성군 농촌지도소에서 홍동면 금평리 2ha를 대상으로 오리 1,800마리 구입비용 500만원을 시범사업으로 지원
1996	• 홍성군 농촌지도소에서 탈모기 1대, 냉동냉장시설 등에 500만원 지원
1997	• 홍성군에서 특화작물 육성지원 : 문당리 및 금평리 30ha를 대상으로 4,800만원 지원(오리 육추장 63평, 벼논오리 재배 그물망 및 전기목책시설) • 7월 29일 제2차 아시아 오리농법 교류대회 200만원 지원 • 농협에서 벼논오리 가공시설 지원 : 가공시설 30평(청둥오리 및 한약재 가공)에 대해서 1,000만원 지원, 이를 통하여 1면 1특화작목으로 지정됨
1998	• 유기농업실천농가 교육지원 : 200명에 대한 교육 등 80만원 지원
1999~2001	• 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문당, 금평), 농림부로부터 매년 4,500만원 지원
2000	• 환경농업교육관 설립에 따른 지원 : 3억원 (국비 15,0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10,500만원) • 이외는 별도로 주민기금 4,500만원과 주민노동력 부담, 3,000만원이 소요되어 총 3억 7,500만원 소요
2002	• 농림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 : 10억원

자료 : 주형로(2000), 홍성 환경농업마을

### (3) 문당 환경농업마을의 현황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은 법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에 따른 분배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금까지는 재투자 비용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현금 분배는 없었다고 한다.

법인 형태를 도입한 근본적인 이유는 마을 전체적 의사결정을 리드해 나가는 지도자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문당리는 환경 중시의 농업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미 약 15년 전부터 도입한 오리농법 이외에 우렁농법도 일부 도입하고 있다.

계절적 상황에 따른 농사체험프로그램으로는 모내기, 추수작업, 다양한 농산물채취 그리고 고구마캐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단체, 생협, 지자체 그리고 농민단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방문하고 있는데, 개별 가족단위의 체험활동은 실시하지 않고 YMCA와 같은 단체에서 여러 가족을 묶어서 단체로 방문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보통 2개월 전에 예약이 이루어져야 할 정도로 방문객이 많으며, 9월에서 11월 사이도 많은 방문객이 몰려서 1개월 전 예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1박 2일에서 3박 4일에 이르는 기간과 시기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마을 내 숙박에 따른 비용은 8,000원/인(어린이는 6,000원)이며, 식사비는 6,000원/식(어린이는 4,000원)으로 먹거리는 전부 유기농과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된 것만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농업 도입 후 농산물 판매가격은 상당히 올랐다고 할 수 있으나, 지역 주민의 노력과 농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생산량 저하 등을 감안하면 금전적으로는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흥동농협에서 100% 수매를 했으나, 3년 전부터는 제한 수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문당리의 농산물과 채소 그리고 오리 등은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직접 판매는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택배)로 이루어지고 있다.

#### (4) 마을지도자의 역할과 사고 : 인터뷰 내용

문당리 환경농업마을 주형로씨는 농촌은 개인이 아닌 마을공동체로서 살길을 모색하여야만 한다고 하는데, 개인으로서 소득을 올리면 밖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내부 즉 공동체 사회인 마을 내에서는 손가락질 받기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이 함께 하지 않는 농업과 농촌은 영속적일 수 없다고 하며,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문제점이 많다고 한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교과내용 중 일부라도 자연학습을 다루고 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에는 자연과 농촌 그리고 어촌 등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의 후세는 사회적 구조 전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농산물의 품종과 규모를 단일화, 대형화하는 전업농이 현재의 추세이자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옛날의 전통적인 생산방법 즉 친환경적인 생태순환형 농업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고 있다.

주형로씨는 “스스로의 자립이 기본이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운영에 따른 금전적 지원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이 인력 양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도시민이 문당리로 이주하여 농업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직업을 버리고 농촌에 적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여 지금까지의 직업과 연계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각급 학교의 교사, 이발사, 한의사, 포크레인 기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 내 정착하면서 소규모 농업과 기존 직업을 살려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이나 어느 곳을 막론하고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다음의 5가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첫째는 적극적인 마을 지도자가 존재하는가 여부, 둘째는 마을 사람들 스스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존재 여부, 셋째는 일정기간에 따른 마을 내 기금조성이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 넷째는 무농약, 저농약 등 친환경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로 아름다운 경관을 지녀 방문객을 끌 흡인력을 지녔는지 여부가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각각

의 마을발전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 2) 국외 사례조사

### (1) 교육을 통해 지역리더 육성 사례

후쿠시마현(福島県) 사메가와촌(鮫川村)의 신지 토오루(進士 澈, 이하 신지氏)는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이하 도농교류기구)에서 그린투어리즘 교육을 받았고 사메가와촌에서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신지氏는 전형적인 동경태생 도시민이었으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1980년 후반에 도시생활을 접고 후쿠시마현 사메가와촌으로 이주하였다. 일본 농·산·어촌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지역 행정기관(우리나라 면사무소)을 통하여 이주 허가를 받았으며, 촌장과 지역 행정기관의 기획조정과 공무원이 정착을 도왔다고 한다.

사메가와촌은 후쿠시마현 히가시시라카와군의 동북부에 형성되어 있는 아부꾸마(阿武隈)고원 남부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산촌으로, 넓게 형성된 초원, 맑고 깨끗한 계곡, 천문대 등 깨끗하고 청정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급속한 인구감소를 겪었다.

신지氏가 사메가와촌으로 이주한 당시에는 버블경제시기로 인성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서 산촌유학을 실시하였으나, 버블경제 붕괴이후 그린투어리즘으로 사업을 바꾸었다. 산촌체험관광은 (재)도시농어촌교류활성화기구(이하 도농교류기구)의 그린투어리즘 인스트럭터 육성스쿨에서 교육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으며, 사업 초기에는 교육 동기생과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실질적·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그린투어리즘 NPO법인 “아부꾸마 NSNET (Nature, School, Network)”를 운영하고 있다.

NPO 법인의 주된 사업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가지 체험프로그램이며, 이와 함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이어트 전원생활체험, 가족을 대상으로 주말 시골숙박체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산촌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밭에서 직접 딴 농산물을 이용하여 화덕 피자 만들기를 통해 먹거리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그림 4-1〉 NPO법인 “아부꾸마 NSNET”의 체험활동



그리고 각종 연계 및 교류사업으로 그린투어리즘 교육활동으로 전문학교와 연계하여 인턴십을 고용하고,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CONE)과 협력하여 성인체험 활동을, NPO법인 교육지원협의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대상 농업체험 활동을, NPO법인인 NICE와 연계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에서의 신지 氏의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이주초기부터 꾸준히 실시한 도시지역과의 교류활동으로 폐쇄적인 산촌을 개방화하는데 일조하였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농촌이나 어촌에 비해 산촌이 폐쇄성이 더 강하다. 현재 사메가와촌은 청년회를 중심으로 이주민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가구가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신지 氏는 자연스레 청년회와 이주민의 조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신지 氏가 리더역할을 하는 분야는 그린투어리즘 사업이다. 현재 신지 氏는 사메가와촌에서 지역을 연계하여 그린투어리즘을 진행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신지 氏의 그린투어리즘 사업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린투어리즘 NPO법인인 “아부꾸마 NSNET”에 회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농업·농가·레인지 체험 등 프로그램 진행자로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실제 숲, 농가레스토랑, 양봉, 버섯을 이용하여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린투어리즘의 아이템이 될 수 있는 통나무집 짓는 방법 등을 교육 받기도 한다.

또한 그린투어리즘 인력 육성을 통해 지역에 그린투어리즘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한다. 구체적인 인력육성 활동으로는 체험연수를 실시하거나 현에서 실시하는 그린투어리즘 양성과정이나 관련 강좌에서 강의를 한다.

신지 氏가 동경에서 사메가와촌으로 이주하여 지역에서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리더역할을 수행하는 과정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주준비기간 이주대상지와의 접촉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착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촌장의 도움을 받았다. 그린투어리즘 사업은 민간단체인 도농교류기구에서 교육을 받았고, 사업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사업이 정착된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화덕 오븐과 휴게정자 등의 시설을 지원받았다.

사메가와촌의 신지 氏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신지 氏는 교육을 통해 이주민이 지역을 활성화한 사례로, 농·산·어업 교육 혹은 농·산·어촌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지역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태도와 각 교육 동기생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지역 정착 및 리더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은 사람이 아닌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사업기획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사업기획능력을 위해 필요한 교육은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공급이 아니라, 피교육자의 필요(수요)를 충족(공급)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피교육자의 교육에 대한 필요를 이끄는 제도의 예로 사업계획서 제출에 의한 지원제도이나 교육 프로그램 제도가 있다.

## (2) 지방자치단체가 리더역할을 한 사례

사이타마현(埼玉縣)의 미야시로마치(宮代町)는 현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까지의 거리는 약 40km이다. 이곳은 본래부터 농촌지역으로 과도성장기시절에도 공업이나 주택 단지화되는 것을 지양하고 농업중심의 정책을 펼쳐왔다. 철도 2개 노선이 이곳을 지나고 있어 접근성은 좋은 편이며, 평탄지형으로 논·밭 등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미야시로의 주민은 논·밭, 농업용수로 형성된 전원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화로 비농가가 늘면서 농지를 전용하여 주택단지를 형성하려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에 미야시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 및 연구 발표회 등을 통해 농지가 갖는 생태계, 경관, 재해방지, 식량 공급, 교육과 관련된 기능을 알리고, 농지가 농가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것임을 인식시켜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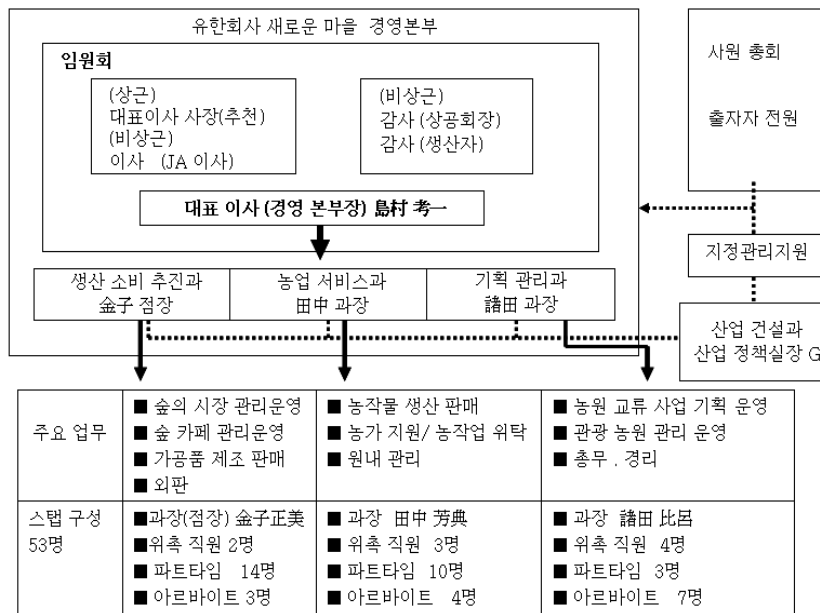
미야시로마치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1994년에 농업중심의 개발정책을 이끌어갈 조직으로 기획청문과, 농업이 있는 마을 조성추진위원회, 마을조성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듬해인 1995년에는 농업과 농지가 갖는 긍정적인 면들을 활용하기 위해 연구조직인 “농업이 있는 마을조성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정책방향을 정하고, 1997년에는 “농업이 있는 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2001년에는 야마자키마을은 농업중심 개발을 주도할 개발주체로 시민이 참가한 유한회사 “새로운 마을”을 설립하였다.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였으나, 2006년 현재는 민간인이 “새로운 마을”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자치단체로부터의 인적 지원도 종료되었다.

시민참가형 농업중심 지역개발 추진체인 “새로운 마을”은 주민의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농촌이 가지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을 주민 참여방식의 유한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출자금은 미야시로마치의 지방자치단체가 51%, JA南彩이 20%, 일반 주민이 13% 그리고 상공회의소와 금융기관 등이 16% 출자하였다.

새로운 마을에서 전통 농업방식 및 농촌 모습을 복구하고, 전문 농업인을 고용하여 미경작 농지를 위탁경작하여 농지를 유지하고, 직판장 혹은 가공 등 소득 증대방안을 모색하여 실시하고, 취농 희망자의 이주를 돕고, 평생 농업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마을의 시민농원, 체험농원, 허브동산, 전통방식의 논 등을 관리운영한다.

새로운 마을의 조직은 다음 그림과 같다. 생산 소비과에서는 유통 및 가공 부분을, 농업서비스과에서는 농작품 생산, 농업생산 위탁실시 등을 하고, 기획관리과에서는 농원과 관광농원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림 4-2>는 2007년 유한회사 조직도이다.

〈그림 4-2〉 유한회사 “새로운 마을” (2007년) 조직도



자료 : 일본 사이타마현 미야시로마치 내부자료.

농업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직판장을 설치하였으며, 농업인이 수확한 농작물을 자신의 가판대에 올려두면 회사에서 대신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사에 내는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5%이며, 농민은 판매금액의 85%에 대해 월말 정산한다.

우리나라 주말농장과 비슷한 형태이며, 촌에서 휴면농지를 사서 30㎡를 16,000엔에 임대해 주고 있고, 회의장소, 농기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촌의 좋은 수익사업이 되고 있다.

사이타마현의 미야시로마치는 지역개발 시 지방자치단체가 리더역할을 수행한 사례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초기 지방자치단체가 비전 및 개발방향 제시, 개발계획 수립 등을 하고 주체적으로 추진하되 실행에 있어서는 주민의 참가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그 개발주체를 민간에게 이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어업인 및 공무원 설문조사

### 1) 조사의 개요

####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본 설문조사는 어촌지역 리더육성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의 어업인 및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리더의 실태와 역할, 인력육성방안 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조사설계는 <표 4-2>와 같다.

<표 4-2> **설문조사 조사설계**

구 분	내용
조사대상	공무원 대상 : 어업인력담당자 어업인 대상 : 신지식인, 어업인 후계자, 어촌계장 등 지역리더
유효표본	공무원 대상 : 365매 어업인 대상 : 239매
조사방법	우편조사
조사기간	2007년 9월 1일 - 2007년 9월 21일

#### (2) 표본의 크기 및 구성

본 설문조사는 어업인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의 공무원과 어업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공무원 설문조사는 11개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과와 각 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우편조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총 배포설문지 400매 중에서 유효표본 365매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표 4-3〉

표본의 지역별 분포현황

지역	공 무 원		어 업 인	
	표본의 크기 (매수)	비율 (%)	표본의 크기 (매수)	비율 (%)
부산	25	6.8	10	4.2
경기·인천	50	13.7	10	4.2
강원	30	8.2	10	4.2
충남	40	11.0	25	10.5
전북	30	8.2	24	10.0
전남	43	11.8	60	25.1
경북	36	9.9	28	11.7
경남·울산	97	26.6	62	25.9
제주	14	3.8	10	4.2
계	365	100.0	239	100.0

어업인 설문조사는 전국 해양수산사무소 지도직 공무원을 통하여 각 지역별 어촌계의 신지식인, 어업인 후계자, 어촌계장 등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공무원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우편조사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총 배포 설문지 250매 중에서 유효표본 239매를 분석으로 대상으로 하였다.

## 2) 어업인 의식 분석 결과

### (1) 응답자의 일반사항 및 특성

어업인 응답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이 226(94.6%)명, 여성이 13명(5.4%)이며, 연령별 분포는 70대 이상 4%, 60대 23%, 50대 38%, 40대 27% 그리고 30대 이하가 8%로 나타나 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41년 이상이 8%, 31년~40년이 8%, 21년~30년이 27%, 11년~20년이 30% 그리고 10년 이하가 27%로 나타나 11년에서 30년을 종사한 어업인이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 (2) 어업인 설문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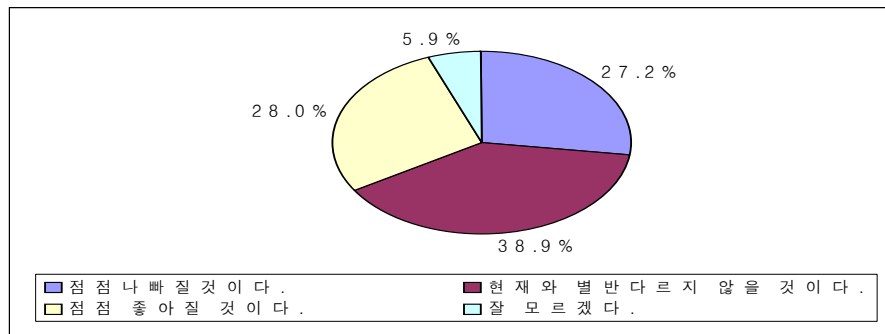
〈그림 4-3〉은 어촌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어업인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향후 어촌지역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현재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38.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점점 좋아질 것이다(28.0%)와 점차 나빠질 것이다(27.2%), 잘 모르겠다(5.9%)로 나타났다.

한편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은 28.0%에 머물러 앞으로의 어촌 지역 발전전망을 비교적 어렵게 느끼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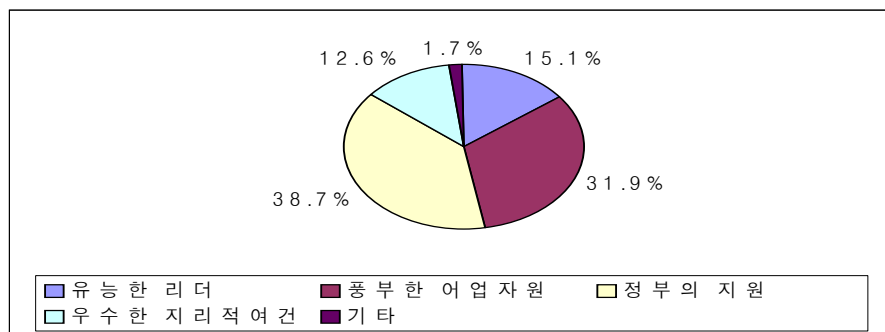
## 어촌지역의 발전가능성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에 대한 설문 결과로는 약 39%에 해당하는 어업인이 정부의 지원을 꼽았으며, 풍부한 어업자원이 약 32%로 뒤를 잇고 있어서 정부의 지원에 따른 어업자원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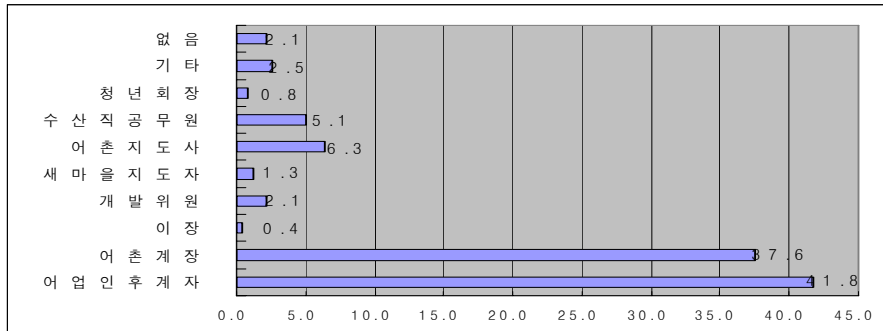
〈그림 4-4〉

## 어촌지역발전의 중요요소



현재 어촌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그룹으로는 어업인후계자(42%)와 어촌계장(38%)를 들고 있어서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 특히 마을 내 사람에 의하여 지역 의사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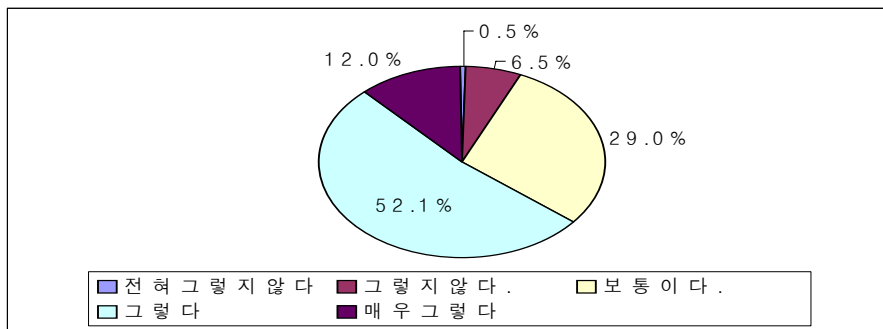
〈그림 4-5〉 현재 어촌을 주도하는 리더



어촌지역의 리더가 마을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약 64%, “그저 그렇다”라는 의견이 29%, 부정적인 의견이 약 7%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6〉 참조).

마을발전에 있어서 지역리더의 결정적 역할수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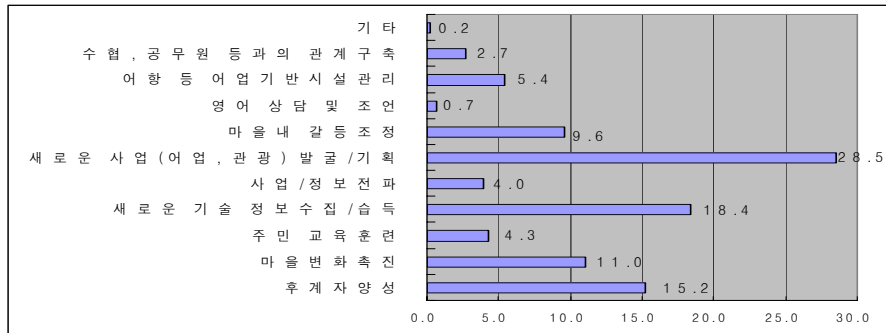
〈그림 4-6〉



지역리더로서는 새로운 사업(어업활동 및 관광 분야)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의견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리더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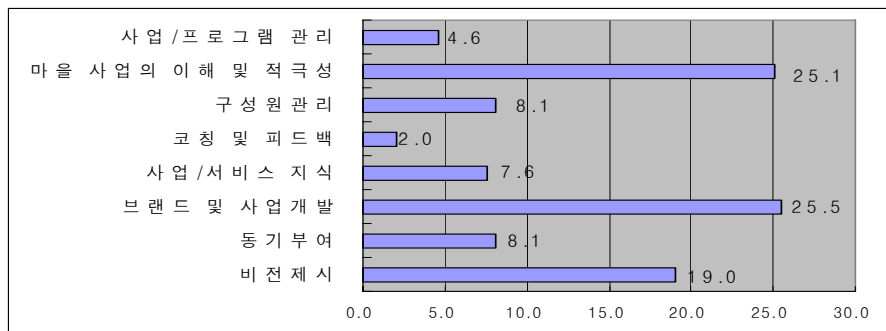
기대감은 소득 창출 부분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7〉 지역리더 역할에 있어서 중요요건



아울러 마을 지도자로서의 필요 역량에는 브랜드화 및 사업개발(25.5%)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적극성을 가장 높게 판단하고 있어서 “리더로서의 중요 역할”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어촌지역에 새로운 소득창출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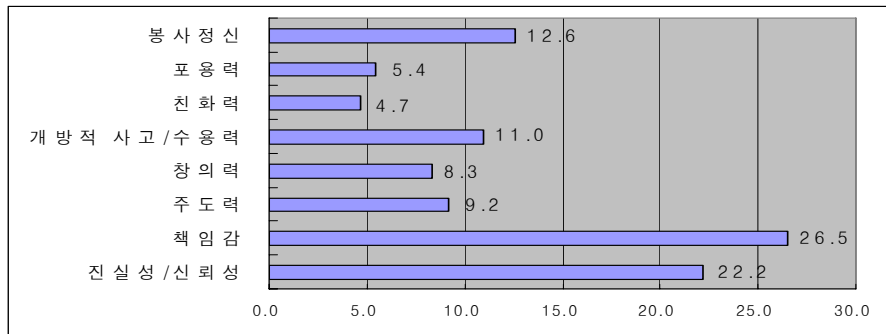
〈그림 4-8〉 마을리더의 필요 역량



마을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책임감(26.5%)과 진실성 및 신뢰성(22.2%)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하고 있다.

〈그림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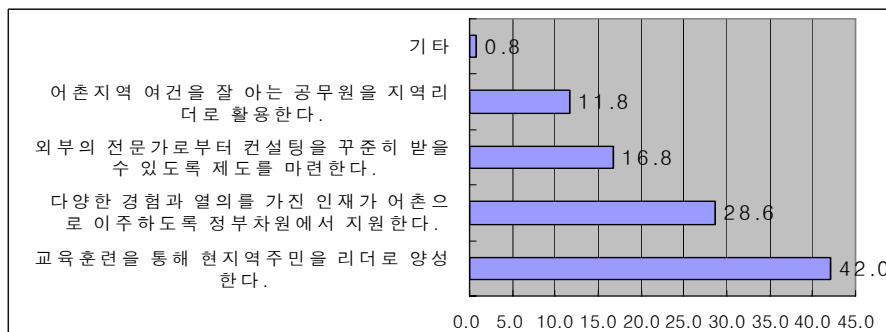
## 마을리더로서의 주요 덕목



어촌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 육성의 가장 효과적인 추진방법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재의 지역주민을 리더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한편 두 번째 효과적인 추진방법으로 다양한 경험과 어촌지역사회에 대한 열의를 지닌 인재의 어촌정주를 꼽고 있다.

〈그림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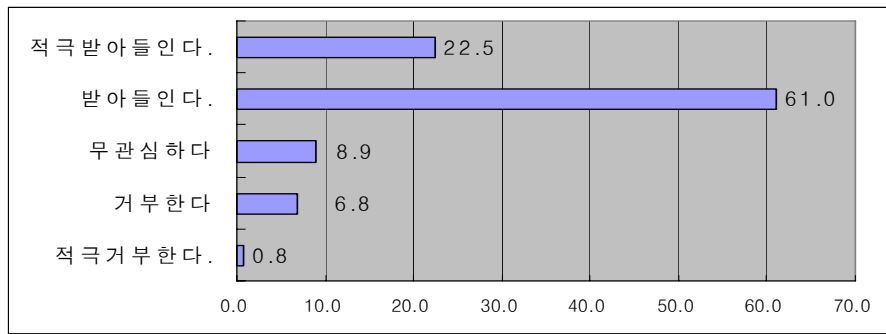
## 리더육성의 효과적인 방법



외부사람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적극적 수용의사 표명이 약 23%,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약 61%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외부인 유입을 꺼릴 것이라고 하는 편견과는 달리 비교적 외부인의 어촌지역 진입에 대해서 거부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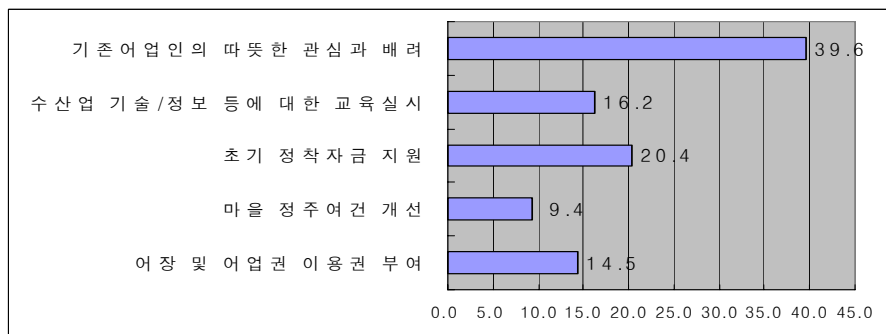
## 외부 인재에 대한 수용의사



외지인이 어촌지역에 정착하여 마을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기존 어업인 즉 마을주민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답하고 있다.

〈그림 4-12〉

## 리더역할 수행을 위한 이주민의 선결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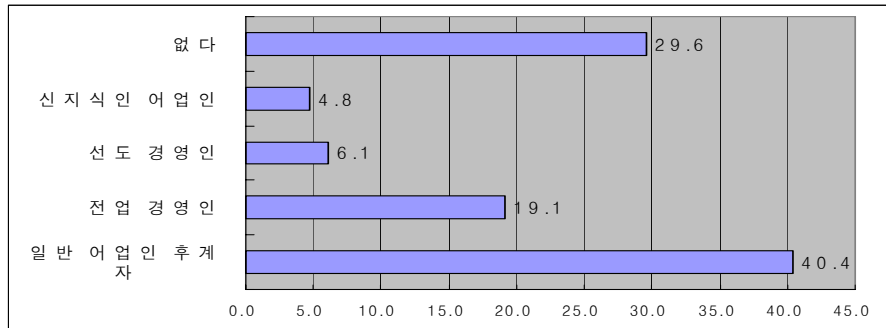
설문에 응답한 어촌 주민 가운데 본인이 직접 정부의 인력 육성정책 가운데 포함된 내용을 조사한 바, 일반 어업인 후계자 교육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약 4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업 경영인 교육 약 19%, 선도 경영인 교육 약 6% 그리고 신지식 어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약 5%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정부차원의 어떠한 인력육성 차원의 교육도 받지 않았다는 응답도

약 30%에 달하여 향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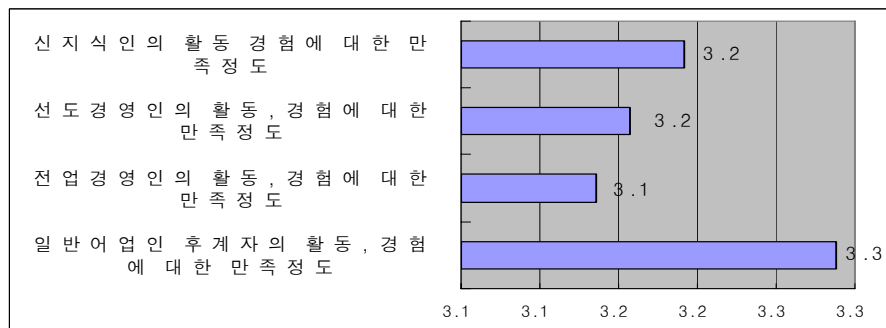
#### 본인에게 해당하는 인력육성정책



한편 정부에서 실시하는 어업인력의 육성책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일반 어업인 후계자, 전업 어업 경영인, 선도 어업 경영인 그리고 신지식 어업인의 4가지 교육을 이수한 각 어업인으로부터 5점 만점 척도에서 약 3.1~3.3 정도의 만족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어업인력 육성정책에 대한 Feedback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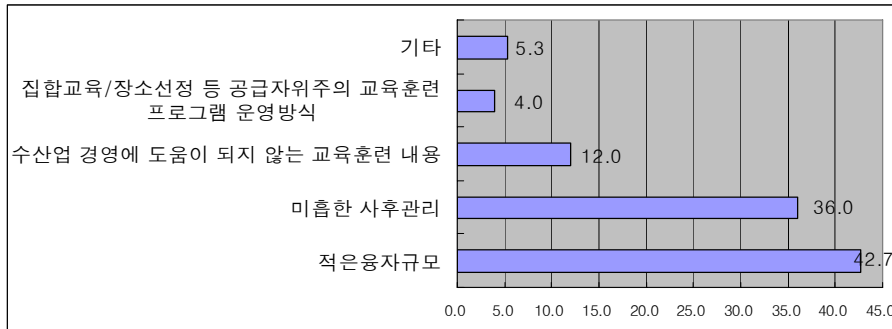
#### 어업인력육성정책 만족도(5점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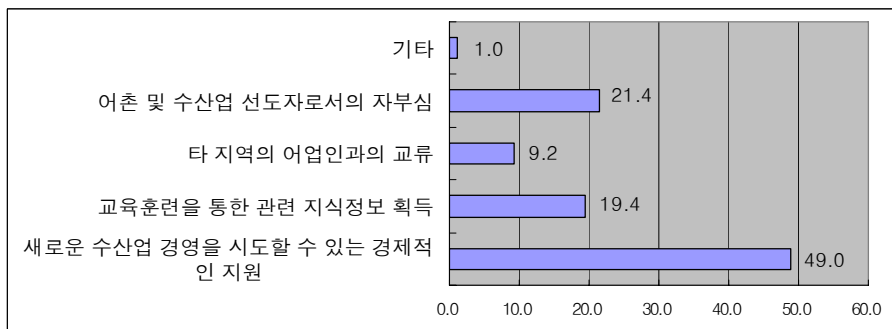
이와 같은 어업인력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불만족 사유와 만족 사유는 다음과 같다. 불만족 사유로는 적은 용자규모(43%)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미흡한 사후 관리(36%), 수산업 경영과 거리가 있는 교육 및 훈련 내용(12%)을 열거하였다.

〈그림 4-15〉 어업인력 육성정책에 대한 불만족 사유



만족하고 있는 사유로서는 새로운 수산 경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경제적 지원(49%)와 어촌 및 수산업 분야 선도자로서의 긍지(21%)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통한 지식과 정보 획득(19%) 등을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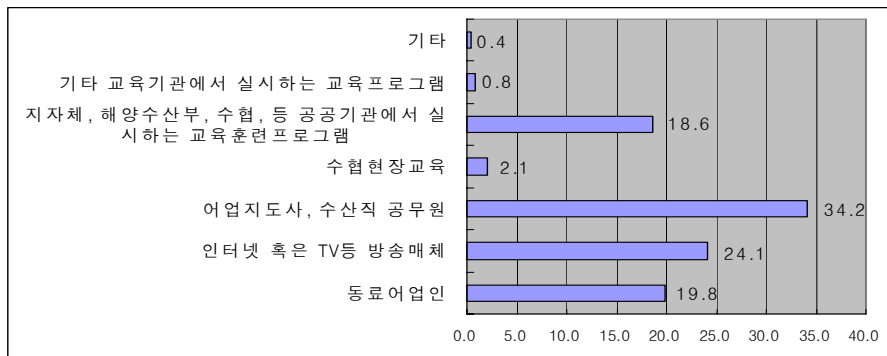
〈그림 4-16〉 어업인력육성정책 만족 사유



어업 생산 분야는 물론 어촌관광, 유통가공 및 마케팅 분야에 대한 지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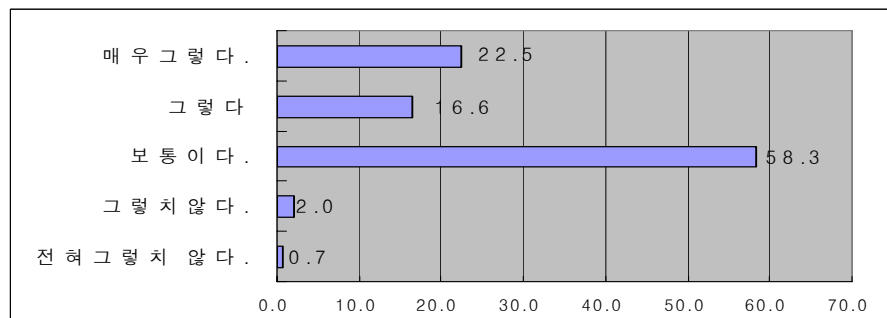
기술 그리고 각종 정보는 어업지도사와 수산직 공무원으로부터 얻는 경우가 약 34%로 가장 높아 수산 관계 공무원이 지역 내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TV 등 방송매체가 약 24%, 동료 어업인이 약 20%, 정부 및 수협 등 공공기관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약 19% 등 나타나 비교적 고르고 다양한 경로의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7〉 어업(어촌관광, 유통가공 포함) 지식·정보·기술 습득 경로



이미 받은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수산업과 관련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 약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인 답은 약 39%를 차지하여 다소 프로그램 내용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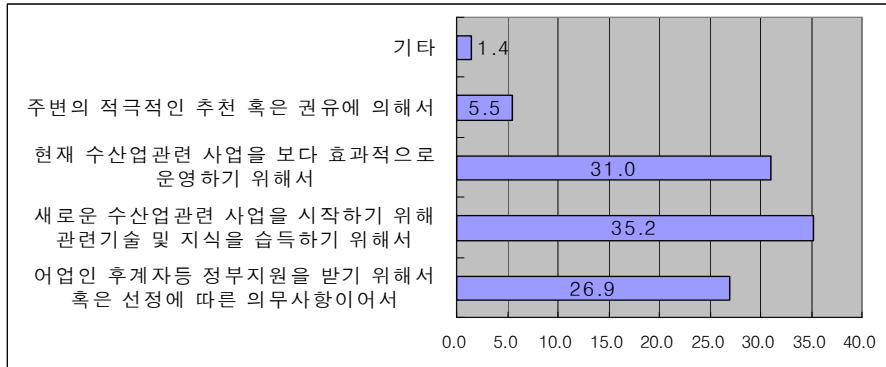
〈그림 4-18〉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도움 여부



교육훈련프로그램 수강에 따른 동기는 신규 사업을 위하여 사전에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이 약 35%로 가장 높고 현재의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 31%를 차지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동기를 지니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거나 의무사항 이행을 위함이라는 응답도 약 27%에 달하고 있다.

〈그림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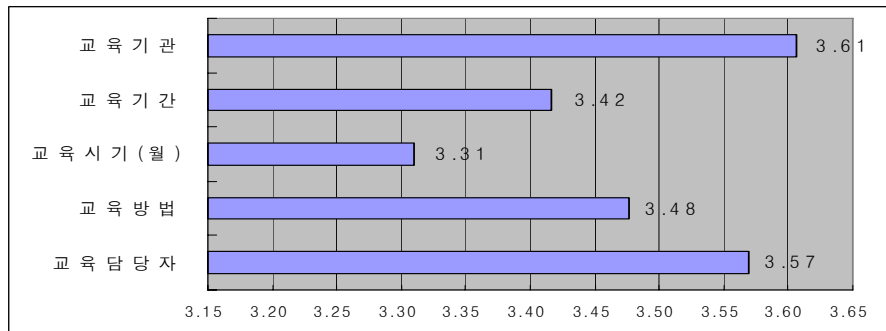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강 동기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교육기관과 교육담당자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시기와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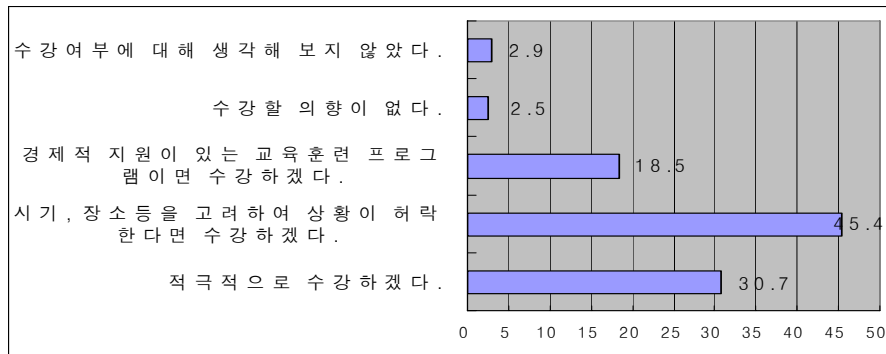
〈그림 4-20〉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방식 만족도(5점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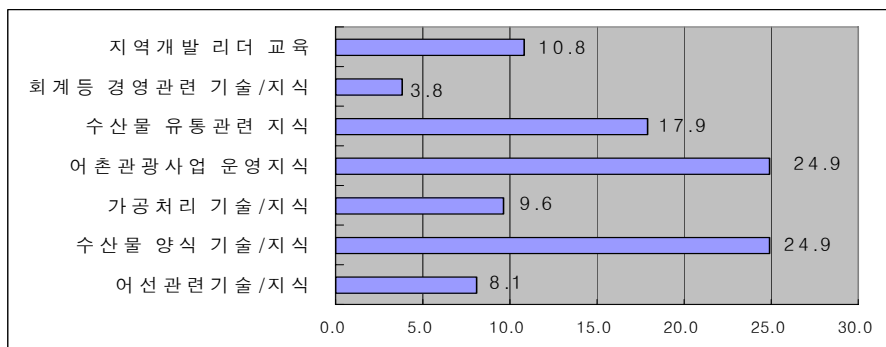
수산업 관련 사업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수강 의사를 타진한 결과, 적극적인 수강이 약 31%, 상황에 따른 수강이 약 45%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은 참여의사를 갖고 있으나, 경제적 지원을 조건부로 하는 참여의사도 약 19%를 보이고 있고 의향이 없는 경우도 약 5%에 달하고 있다(<그림 4-21> 참조).

〈그림 4-21〉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강 의사



어업인이 희망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 분야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높은 분야는 수산물 양식(24.9%)과 어촌관광(24.9%) 분야 그리고 수산물 유통(17.9%)으로 대부분 어촌지역의 직접적인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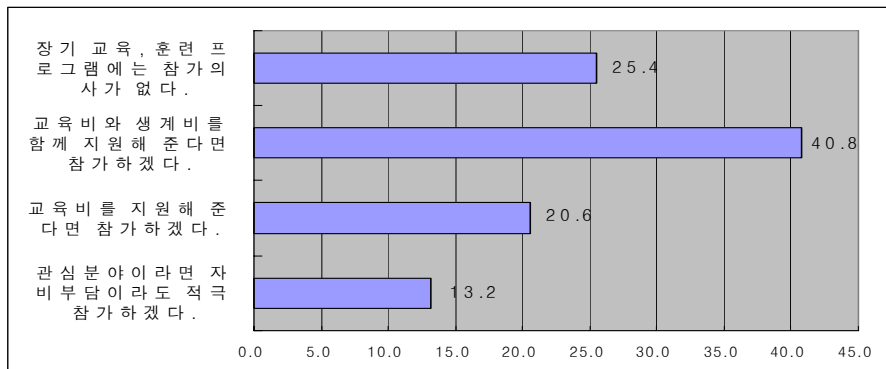
〈그림 4-22〉 수강 희망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



한편 3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의향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비 부담으로라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약 13%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에 “교육비는 물론 생계비를 함께 지원하면 참가하겠다”는 40.8%, “교육비를 지원하면 참가하겠다”는 20.6% 그리고 “이러한 장기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참가하지 않겠다”는 25.4%로 나타나 장기적인 교육 및 훈련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

〈그림 4-23〉 3개월 이상 장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 의향



### 3) 공무원 인식 분석 결과

#### (1) 응답자의 일반사항 및 특성

공무원 응답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이 308명(84.4%)명, 여성이 57명(15.6%)이며, 연령별 분포는 60대 0.3%(1명), 50대 15.8%(57명), 40대 42.1%(154명), 30대 33.3%(122명) 그리고 20대 8.5%(31명)로 나타나 30대와 40대가 75% 이상을 차지하였다.

수산직에 종사한 기간은 41년 이상이 8%, 31년~40년이 8%, 21년~30년이 27%, 11년~20년이 30% 그리고 10년 이하가 27%로 나타나 11년에서 30년을 종사한 공무원이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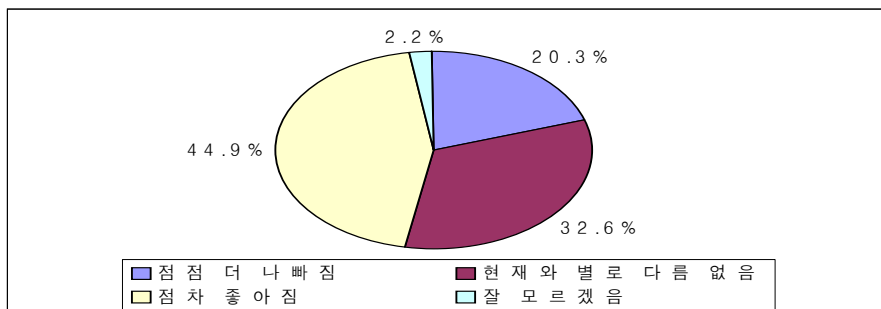
## (2) 공무원 설문내용 분석

향후 어촌지역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점차 좋아질 것이다(44.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와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32.6%),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20.3%), 잘 모르겠다(2.2%)로 나타났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은 어업인의 응답내용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어업인의 응답은 현재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38.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점점 좋아질 것이다(28.0%)와 점차 나빠질 것이다(27.2%), 잘 모르겠다(5.9%)로 나타났다.

〈그림 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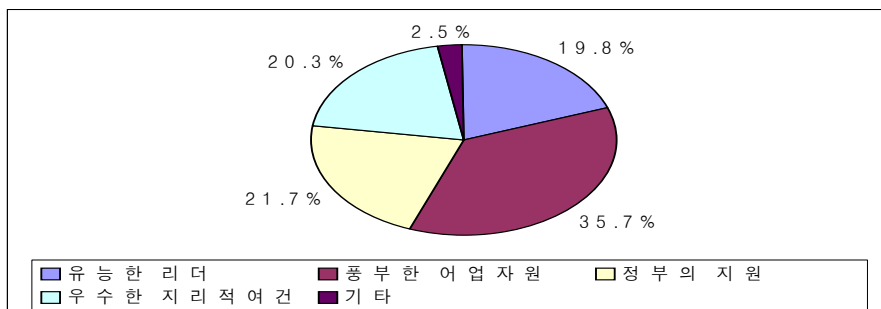
어촌지역의 발전 가능성



어촌지역이 발전하기 위한 중요 요소로서는 풍부한 어업자원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35.7%), 정부의 지원(21.7%) 등을 열거하였다(〈그림 4-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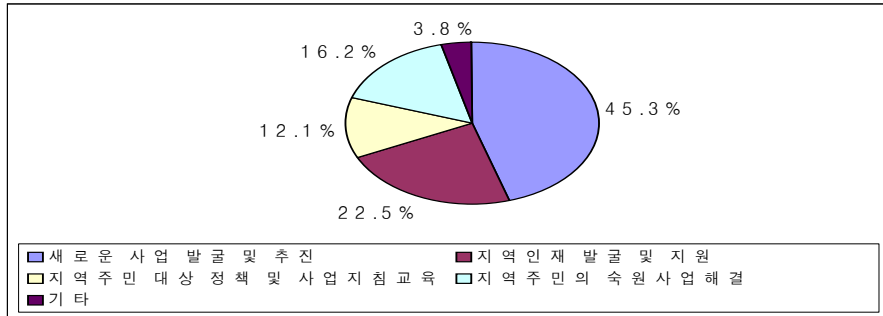
〈그림 4-25〉

어촌지역발전의 중요 요소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할로는 첫째,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추진(45.3%) 둘째, 지역 인재의 발굴과 지원(22.5%) 그리고 셋째,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16.2%)을 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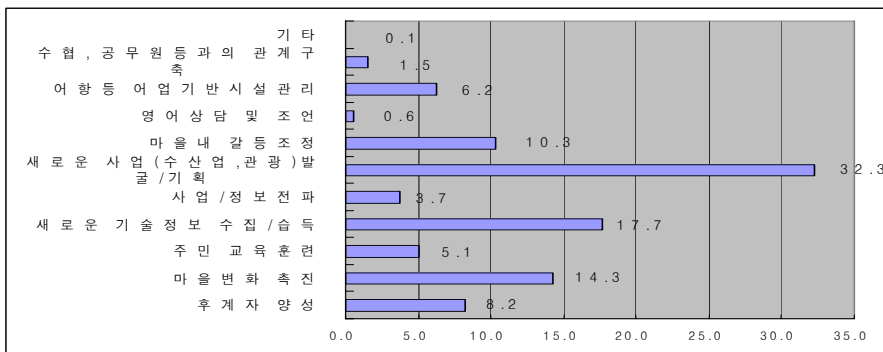
〈그림 4-26〉 어촌지역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



어촌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마을 지도자의 주요 역할로는 수산업과 관광 분야의 새로운 사업 발굴과 기획을 32.3%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기술 및 정보의 수집과 습득(17.7%) 순으로 보고 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어업인 또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기획에 가장 높은 28.5%, 새로운 기술 정보의 수집 및 습득에 18.4%의 응답율을 나타내 어업인과 공무원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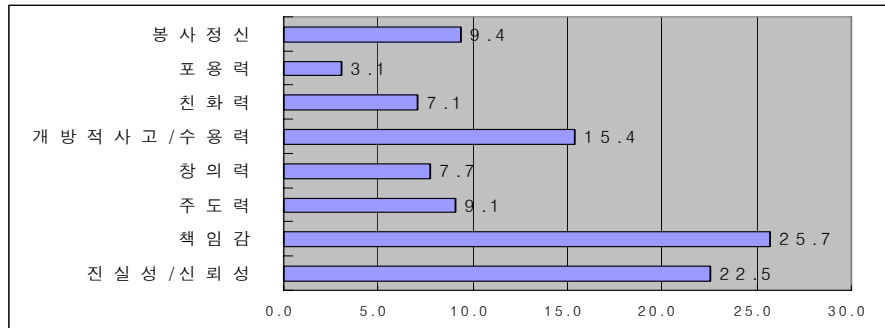
〈그림 4-27〉 마을발전을 위한 리더의 주요 역할



지역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주요 덕목으로서 공무원은 책임감(25.7%)과 신뢰성/진실성(22.5%)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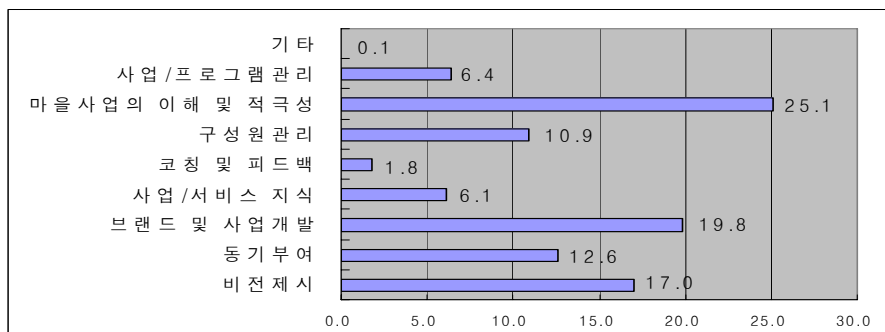
## 지역리더의 주요 덕목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한 마을 지도자로서의 요구되는 역량으로는 첫째 마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적극성(25.1%), 둘째 브랜드화 및 사업개발(19.8%) 그리고 셋째 비전제시(17.0%)를 들고 있다.

〈그림 4-29〉

## 지역발전을 위한 리더의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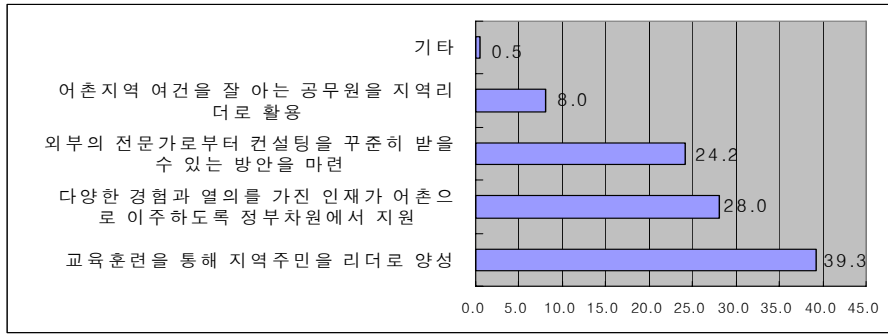


지역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마을리더의 육성방안으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지역주민의 양성에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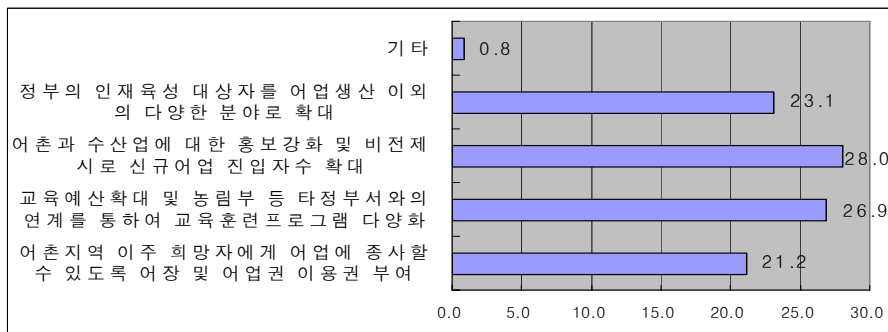
## 리더 육성 방안



어촌지역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는 “어촌과 수산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비전제시로 신규 어업 진입자수 확대”를 꼽았으며, 두 번째로는 “교육예산 확대 및 타 정부부처와 연계를 통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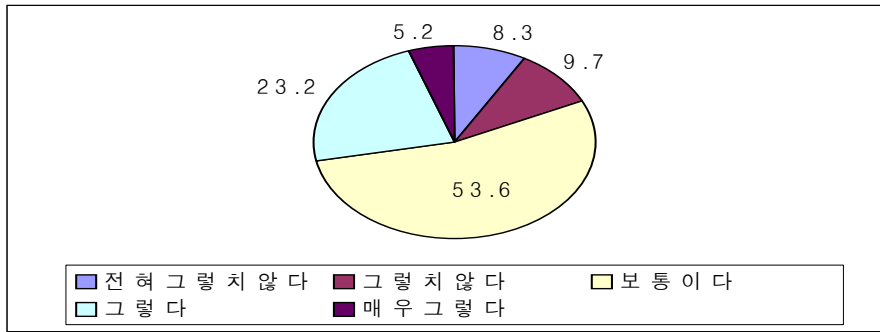
〈그림 4-31〉

## 리더육성의 필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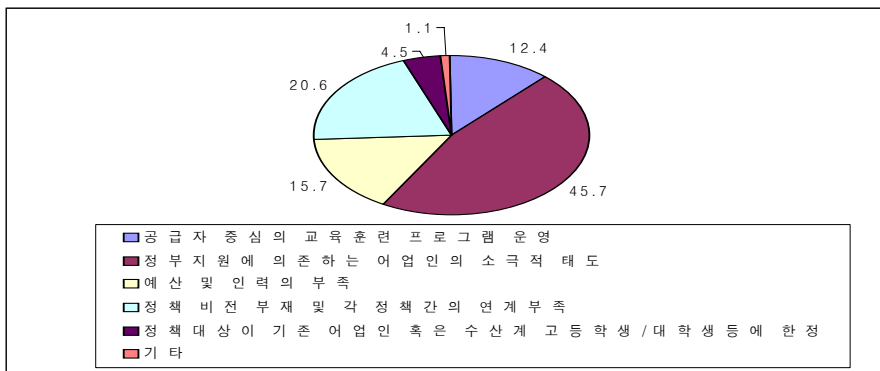
현재의 어촌지역 지도자 육성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다(53.6%), 그렇다(23.2%), 아니다(18.0%) 등으로 나타나 효과성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4-32〉 리더육성에 대한 현 인력육성정책의 효과성 여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육성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5.7%가 정부지원에 의지하는 어업인의 소극적 태도를 꼽고 있으며, 정책 비전의 부재 및 각 정책간 연계성 부족에 20.6%가 응답하여 정책 전반에 대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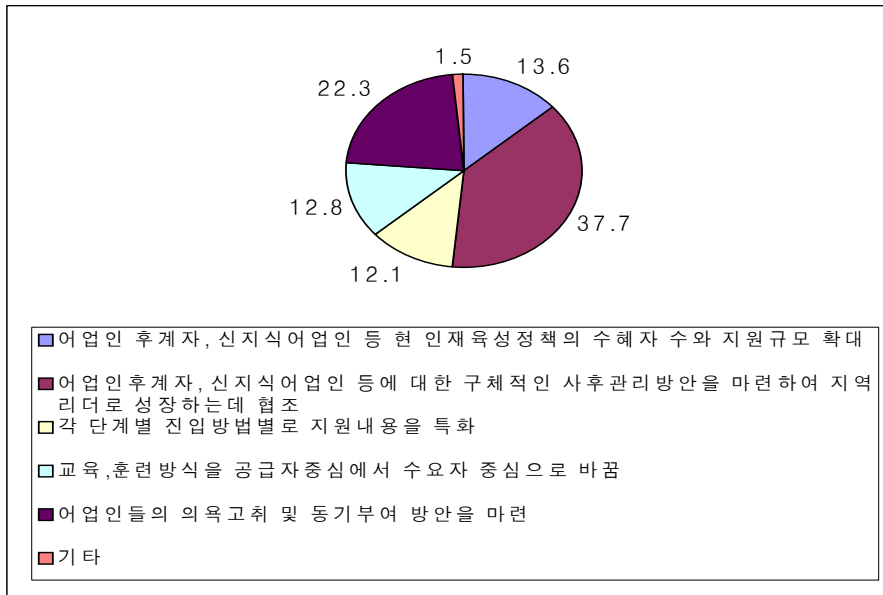
〈그림 4-33〉 현 어업인력육성정책의 문제점



한편 이와 같은 인력육성정책의 개선점으로는 어업인후계자, 신지식어업인 등에 대한 구체적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리더로 성장하도록 하여야 하며(37.7%), 어업인 의식 고취 및 동기부여(22.3%)를 열거하고 있다(〈그림 4-34〉 참조).

〈그림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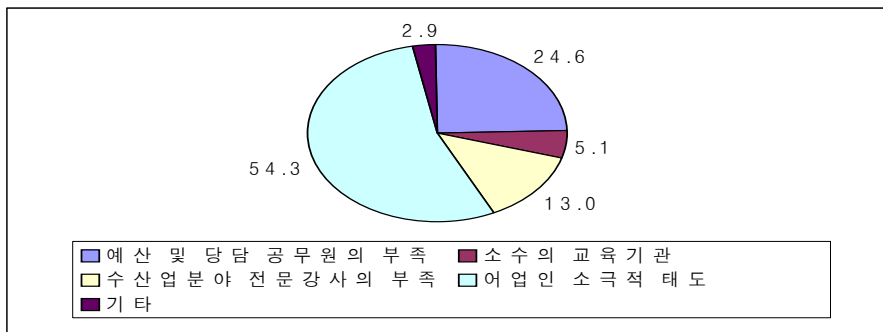
## 어업인력육성정책의 개선점



어업인 대상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애로가 큰 부분은 과반수 이상인 54.3%가 어업인의 소극적 태도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는 예산과 담당 공무원의 절대적인 부족(24.6%)을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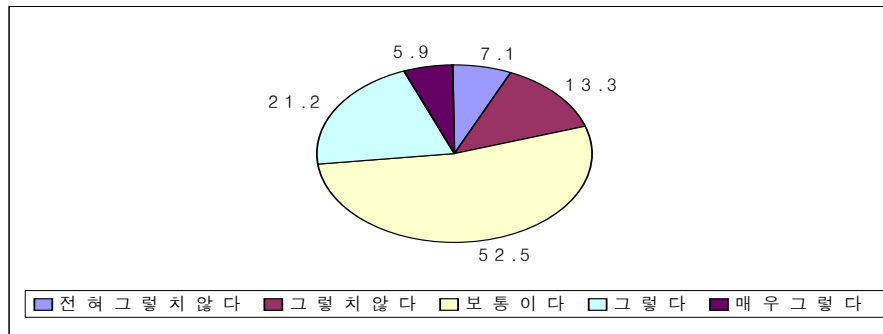
〈그림 4-35〉

## 어업인 대상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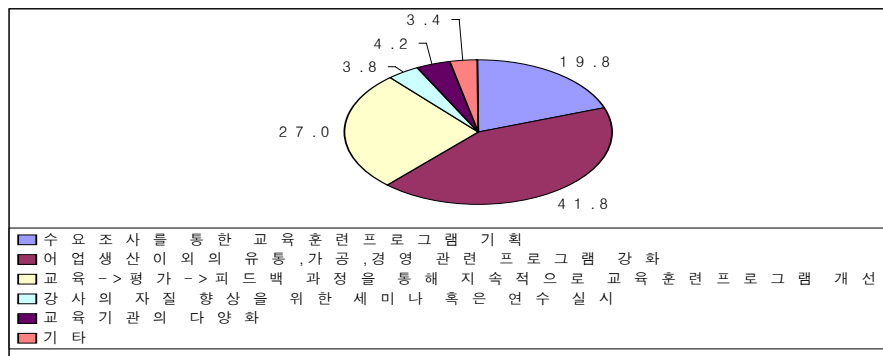
어업인 대상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영어활동과 어촌지역 정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다 52.5%, 그렇다 27.1%, 아니다 20.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6〉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영어·어촌정착도움 여부



앞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어업생산 이외의 유통, 가공 및 경영 분야의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41.8%), 교육과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을 실시(27.0%)하는 한편 수요 조사를 통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기획(19.8%)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림 4-37〉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



#### 4) 의식조사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 “어촌지역 리더육성 및 어업인 대상 교육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어업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를 분석하였다.

앞으로의 어촌지역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가장 컸으며, 점차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와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가 어업인 입장과 공무원 입장에서 각각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어촌지역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어업자원의 부족과 수입 수산물의 식탁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장래가 밝아 보인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어촌관광과 수산업 그리고 유통업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사업 발굴과 기획이 가장 큰 역할로 평가되고 있는 바, 향후 생산 위주의 어업활동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어촌지역 체험관광을 겸한 방문을 유도하여 생산자인 어업인과의 직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 수립이 요망된다.

농어촌지역 주민이 비교적 외지인 특히 도시민의 유입에 소극적이거나 배타적일 것이라는 선입관은 달리 이번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바는 어촌지역 주민과 지역 공무원 모두 상당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중인 인력육성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적은 용자규모와 미흡한 사후 관리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 한편 현재의 인력육성정책상의 문제점으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어업인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바, 정부의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어업인에 대해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수산업 관련 사업을 실시함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질의한 결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이 극소수에 불과함에도 향후 교육훈련프로그램 수강 의사가 소극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적 접근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

## 제5장 어촌지역 리더 육성 및 지원방안

### 1. 어촌지역 리더 육성체계

#### 1) 개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소득과 도시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어촌 삶의 질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주기능과 생산기능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의 유지·보전 기능을 가진 어촌의 발전은 차치하고 어촌기능의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어촌의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어촌의 노동 생산성 저하는 어촌 활성화를 가로 막는 장애요소이다. 즉 1차 산업으로서 수산업은 상대적으로 노동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촌의 노령화는 어촌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이고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 활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근에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유형상품과 무형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은 어촌의 어메니티와 결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촌주민은 이러한 어촌의 다양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형상품과 무형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촌주민은 수산물 생산에 비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유형상품과 무형상품의 생산에 소극적이다. 어촌주민이 수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어촌과 바다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 계발이 필요하다. 즉 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산기술의 교육뿐만 아니라 어촌과 바다의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 계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은 인적자원 계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어촌과 어업 관련 교육의

대부분은 해양수산인력개발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의 피교육생의 대부분은 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무 교육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다.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질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어촌주민의 대부분은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교육을 꺼린다. 특히 어업생산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인적자원 계발 교육에 대한 수요는 매우 낮다. 따라서 어촌에 대한 비전이 확고하고 지역 발전에 적극적인 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계발 교육을 실시할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육성한 어촌지역 리더가 어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어촌지역 리더 육성체계

〈그림 5-1〉은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체계를 나타낸다.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 목표는 ‘지역 리더 육성을 통한 어촌의 활성화’이다. 어촌지역 리더의 잠재적 자질을 가진 어촌주민 혹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촌지역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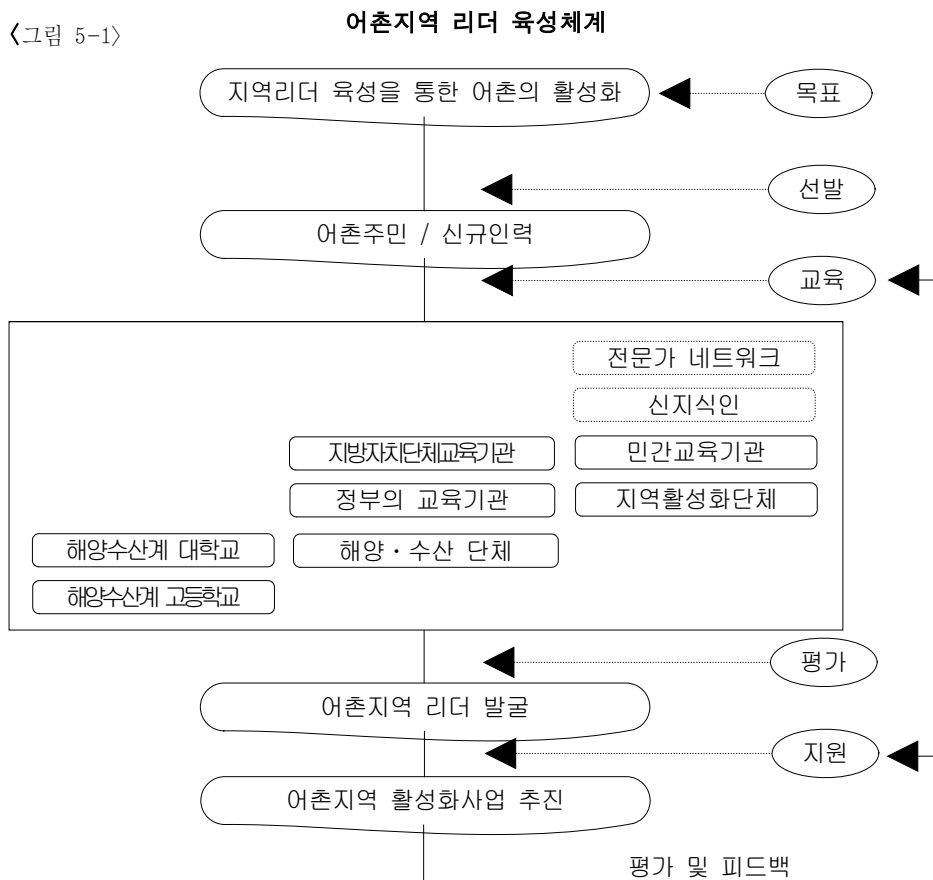
어촌지역 리더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은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다. 해양수산계 고등학교와 해양수산계 대학교를 포함하는 정규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의 교육기관과 해양수산 단체 등의 공공 교육기관, 그리고 신지식인, 민간 교육기관, 전문가 그룹과와 지역 활성화 단체 등의 민영 교육기관 등이 어촌지역 리더를 육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신지식인과 전문가 그룹은 독립적인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 교육기관의 우수한 강사진의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육은 국가 교육기관인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이 담당하고 있다. 정규 교육기관인 해양수산계 대학교의 일부는 최고 경영자 과정으로 어업경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교육환경과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영 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와 달리 지역 특성에 맞

는 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단체가 거의 없다.

그러나 정규 교육기관, 공공교육기관과 민영 교육기관 등이 어촌지역 리더 육성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보다 나은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촌지역 리더로서 잠재적 자질을 가진 자의 선발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 리더 교육 후 우수한 어촌지역 리더를 선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다. 평가시스템에 의하여 선정된 어촌지역 리더가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5-1〉





### 3) 교육기관의 활용

교육기관은 어촌지역의 리더 육성체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어촌지역 리더 교육의 자발적 수요가 적기 때문에 어촌지역 리더 육성을 담당하는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어렵다. 어촌지역 리더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기존 교육기관을 활용하여야 한다. 어촌지역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바다와 관련한 전공 교수가 있는 해양수산계 대학교에 어촌지역 리더 육성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정규과정으로서 학위과정이 아니라 교육 여건의 변화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기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어촌지역 리더 육성과정을 개설하여 어업 중심의 전문교육과정이 아닌 지역 리더의 육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산업협동조합과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수산단체가 지역 리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도 있다.

민간 지역리더 전문 교육기관과 지역 활성화 단체가 어촌지역 리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위탁교육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지식인을 포함한 어촌지역 활성화와 관련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경영컨설팅 제공과 강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교육기관이 어촌지역 리더 육성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교육기관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

해양수산계 대학교가 어촌지역 리더 육성교육을 담당할 때 기존 인원-대학교수와 행정원-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 리더 교육은 교육기관의 본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교육기관에 리더 육성과정을 추가 개설할 경우에 기존 교육시설, 행정인원과 강사 등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 지원이 용이하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이용 가능한 인원과 시설의 한계로 지역 리더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어촌주민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해양수산 단체가 교육과정을 개설할 경우에 어업 전문분야별 교육을 통한 업종의 생산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교육의 노하우가 부족하여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간 교육기관에 어촌지역 리더 육성과정을 위탁할 경우에 수요자의 자유로운 교육과정 선택과 교육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어촌과 어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리더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5-1〉

교육기관별 장·단점

교육기관 종류	장점	단점
해양수산계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어촌 관련 전문가 활용</li> <li>○야간 혹은 방학기간 활용</li> <li>○기존 행정인원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과정의 운영·관리 집중도 저하 우려</li> </ul>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교육시설 활용</li> <li>○기존 행정인원 활용</li> <li>○지역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방자치단체)</li> <li>○예산 지원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강사 부족</li> <li>○교육기간 연장 곤란</li> </ul>
해양수산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촌주민과 원활한 연계</li> <li>○어업전문교육 가능(품종별수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경험 부족</li> <li>○교육 강사 부족</li> </ul>
민간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교육프로그램</li> <li>○교육과정 선택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촌·어업분야 연계 강사 부족</li> </ul>
지역활성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활성화와 지역리더 육성 연계</li> <li>○교육의 피드백 활성화</li> <li>○지역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개설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강사 확보 곤란</li> </ul>

지역 활성화 단체가 어촌지역 리더 육성교육을 담당하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 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 통한 지역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피드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지역 리더의 교육효과도 피교육생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때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어촌지역 리더 교육은 어촌과 어촌주민의 여건상 자발적 수요가 낮은 편이다. 〈그림 5-2〉와 같이 의무교육의 성격이 강한 전문교육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그리고 어촌지역 리더 교육은 교육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민간 교육기관 혹은 지역 활성화 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해양수산계 교육기관과 해양수산단체는 전문교육과 지역 리더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그림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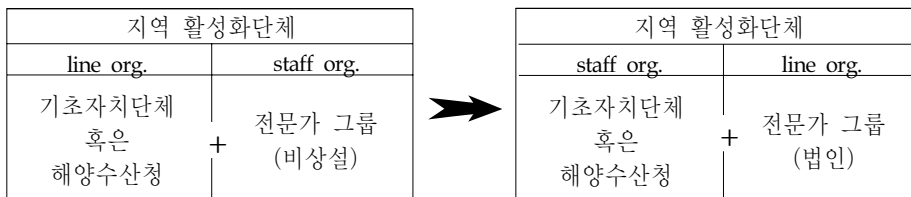
## 교육 담당기관의 분류

지역리더 교육			
전문 교육			
	정부 혹은 지자체 교육기관	해양수산계 교육기관 해양수산단체	지역활성화 단체 민간교육기관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단체가 어촌지역 리더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5-3〉은 지역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는 단계를 나타낸다. 지역 활성화단체 구성의 초창기에는 비상설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혹은 해양수산청이 지역 활성화단체의 라인조직의 역할을 한다. 전문가 그룹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이를 중심으로 법인성격의 지역 활성화단체를 조직하여 지역 활성화 사업과 어촌지역 리더 교육사업을 담당할 수 있게 한다.

〈그림 5-3〉

## 지역 활성화단체 구성방안



지역 활성화 단체의 중심인 전문가 그룹은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어업 전문가, 지역개발 전문가, 경관 전문가, 경영관리 전문가, 관광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사학자, 민속학자, 지리학자, 문학가, 생태환경 전문가와 건축 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청 혹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어촌의 고유한 자원의 이용에 적합한

전문가를 해당 어촌의 명예이장 혹은 명예 어촌계장으로 임명하여 지역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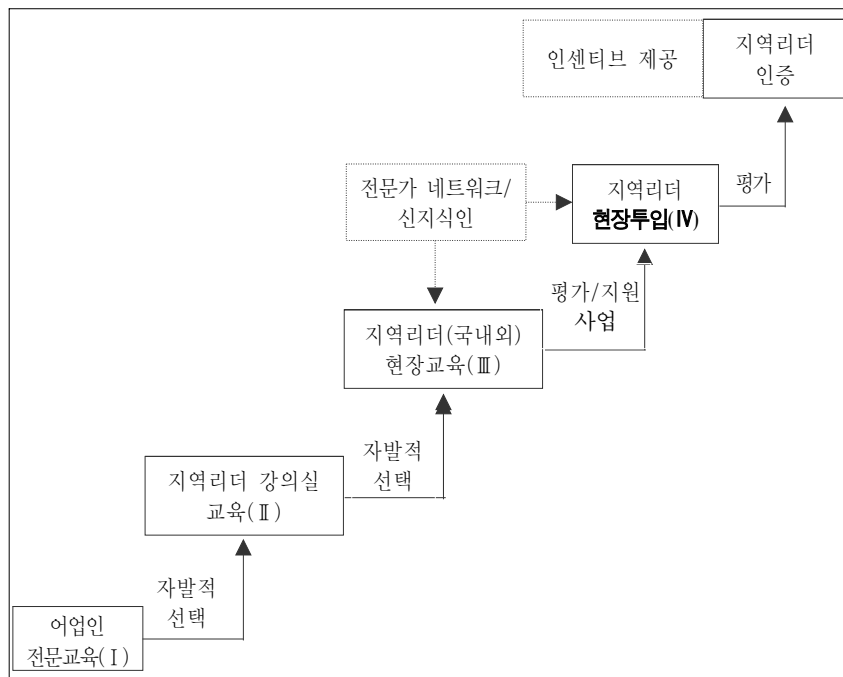
## 2. 어촌지역 리더육성

### 1) 어촌지역 리더육성 단계

〈그림 5-4〉는 어촌지역 리더 육성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의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어촌지역 리더 육성 단계이다. 어업인 전문교육(I)단계가 현재 해양수산인력개발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어업 또는 어촌관련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어촌지역 리더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생략될 수도 있다.

〈그림 5-4〉

어촌지역 리더 육성단계



어업인 전문교육(Ⅰ)단계를 이수한 자 중에서 지역 리더 강의실 교육(Ⅱ)을 선택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역 리더 강의실 교육(Ⅱ)을 실시한다. 그리고 지역 리더 강의실 교육(Ⅱ)의 수료자 중에서 지역 리더 국내외 현장교육(Ⅲ)을 선택한 자를 대상으로 지역 리더 국내외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같이 Ⅰ단계, Ⅱ단계와 Ⅲ단계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각 교육단계별로 교육기간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의무교육이 아닌 자발적 참여교육으로 통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지역 리더 현장투입 단계(Ⅳ)는 평가 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 리더 교육을 받은 자들에게 교육 받은 것을 토대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 리더가 수행한 투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 리더 인증서를 발급하여 지역 리더 육성함에 있어서 인적자원으로 활용한다.

## 2) 피교육생 선발단계

어촌지역 리더 육성의 첫 단계는 피교육생의 선발이다. 교육의 효과는 강사, 피교육생과 교육환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육성정책의 목적에 따라 피교육생의 상이한 선발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선발기준은 거주지, 피교육의 의사, 교육비용 부담, 선발인원과 교육 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어촌지역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대상자를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발할 것인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도 선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의 교육과정은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촌지역 리더 육성의 교육과정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 경우에 교육 대상자를 어촌주민과 어촌 이외의 거주자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어촌지역 리더 육성은 양식어업과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어촌주민과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도시주민까지 포함시킬 때 효과가 커질 수 있다.

둘째, 어촌지역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피교육생이 많을수록 교육효과가 커질 수 있다. 대부분의 어업인 대상 교육은 의무

교육이다. 즉 정부의 경제적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이수가 포함된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의무교육은 자발적 참여 교육보다 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어촌지역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부담 유형은 교육과정 개설주체인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피교육생의 부담, 그리고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피교육생의 공동부담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교육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교육비용의 부담주체는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중요한 요소이다. 어촌지역 리더교육은 교육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이 전문 어업교육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수요가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어촌지역 리더 교육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형성될 때까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비용을 교육의 공급자인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우에 피교육자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피교육자가 교육에 소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효과에 대한 사전 홍보로 교육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비용의 일부를 피교육생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대상 인원의 선발은 다수 교육과 소수정예 교육 중의 선택 문제이다. 다수 교육은 많은 사람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의 한계로 충분한 교육기간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나 소수정예교육은 교육목적에 적합한 소수의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일한 교육비용으로 다수교육보다 알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어촌지역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육성하는 어촌지역 리더 육성 교육은 소수정예 교육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피교육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교과내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피교육생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교육주체의 교육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촌지역 리더 육성과정과 어업 전문과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교육기간의 제약이 없을 경우에 어업 전문과정에 지역리더 역할에 대한 교과목을 추가하여 전문분야를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리더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어업의 전문가로

서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어촌지역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피교육생의 선발을 통한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촌지역 리더 육성의 피교육생 선발에 어업 전문가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중에 어촌지역 활성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어촌지역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어촌지역 리더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기관에 교육을 맡길 경우에 피교육생의 선발규모는 재정적 지원 규모에 의하여 결정된다. 현재 중앙정부가 어촌지역 리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에 중앙정부가 국비지원으로 어촌지역 리더 교육을 정부 교육기관 혹은 타 교육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교육 지원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에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피교육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피교육생의 지역리더 교육의 신청순에 따라 선발하는 하는 것과 신청자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선발과정이 단순하고 선발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리더의 자질여부와 관계없이 선발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후자는 전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촌지역 리더 교육의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법이다. 즉 어촌지역 리더 교육의 신청자 중에서 리더의 품성을 지니고, 리더가 거주하는 어촌지역의 활성화의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 교육기회를 먼저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어촌지역 리더 육성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어촌지역 리더 교육 대상자를 평가할 때, 평가항목은 리더의 자질과 리더가 활동하는 어촌의 활성화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촌지역 리더의 자질의 평가항목에 지역주민의 신뢰도, 지역 비전 제시 능력과 어촌 및 어업에 대한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촌의 활성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항목에 어촌의 자연자원과 인문자원, 어촌주민의 지역 활성화에 대한 의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어촌지역 활성화와 관련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1차 서면평가를 한 후에 2차 대면평가로 지역 리더 교육과정의 피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다.

### 3) 교육·훈련단계

교육·훈련과정은 어촌지역 리더 육성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이다. 즉 이 과정은 육성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선발한 후에 이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받는 과정으로서 어촌지역 리더 육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피교육생에게 어촌에 대한 비전, 어촌지역 리더로서의 의지, 리더의 자질 및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어촌지역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과정, 교육방식, 교육매체, 교육기간, 우수한 교육 강사의 확보와 교류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교과과정은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과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의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해양수산인력개발원에 어촌지역 리더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편성하거나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다.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어촌지역 리더 육성과 관련된 교과를 추가하여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교육생 중에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어촌지역 리더 육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어촌지역 리더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어촌주민을 선발하여 리더 육성의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위탁 교육기관은 교육비를 부담하는 주체가 각 기관을 평가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어촌지역 리더와 관련한 이론교육과 함께 현장교육과 국내외 성공사례 등에 대한 체험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촌지역 리더의 자질, 어촌의 비전, 어촌 자원의 활용방법과 어촌주민의 설득 등에 대한 이론교육으로 어촌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성공사례지역을 방문하여 지역리더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의 생생한 경험을 현장교육을 통하여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장교육은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교육효과는 강사와 대면 교육이 사이버 교육보다 효과가 크지만, 어업에 종사하는 어촌주민이 교육에 참여하기 쉬운 것은 사이버 교육이다. 사이



버 교육은 어촌주민에게 어촌지역 혁신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현장교육의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교육시스템이 교육 공급자에 의한 일방의 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자와 공급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어촌지역 리더 육성과 관련한 사이버 교육은 어촌지역 리더의 협조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어촌지역 리더가 어촌주민을 어촌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할 때 사이버 교육매체를 통하여 어촌주민을 설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촌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 시스템은 피교육생과 피교육생간의 교류의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피교육생과 강사간의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어촌지역 리더로 활동하는 것은 많은 갈등과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다른 지역 리더 혹은 강사와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교류공간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기관의 우수한 강사 확보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리더 육성 관련 전문가와 지역리더로서 성공한 사람 등을 강사로 확보하여야 한다. 전자는 이론적 교육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에 후자는 피교육생과 유사한 환경에서 지역 활성화를 이룬 지역리더의 현장 경험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의 교육일정과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의 제한으로 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의 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3일 미만이다. 교육의 특성에 따라 교육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론교육과 성공사례의 현장교육이 필요한 어촌지역 리더 육성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 4) 현장적용 단계

피교육생의 자비에 의한 교육은 물론이고 정부의 지원에 의한 교육도 피교육생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어촌지역 리더의 교육은 피교육생뿐만 아니라 어촌주민의 마인드를 변화를 통한 어촌지역 혁신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적용시킬 수 있는

장이 제공되어야 한다.

피교육생이 어촌주민일 경우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어촌이 자신이 혁신시켜야 할 대상이지만,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피교육생은 지역리더로서 역할을 하여야 할 대상지를 찾아야 한다. 피교육생이 어촌지역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지가 결정되더라도 대상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어촌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과 법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어촌지역 리더 육성에 있어서 교육 훈련과정도 중요하지만, 피교육생이 어촌지역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첫째, 어촌에 거주하는 피교육생은 지역 리더로서 활동할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촌 이외 거주자인 피교육생보다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은 확고한 편이다. 어촌지역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제공과 함께 인간관계도 중요하다. 즉 해당 지역주민과의 상호협조적인 관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역 이외의 인적 네트워크의 확보와 지원도 중요하다. 우호적인 인간관계는 리더의 품성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지역주민과 지역리더와 독립적인 인적 네트워크의 지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피교육생이 지역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적 인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피교육생이 지역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의 투자사업 지원은 이러한 여건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시설투자 중심인 정부 투자사업의 투자효과는 시설의 운영과 관리주체인 지역주민 혹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에 따라 다르다. 우수한 지역리더의 자질을 갖춘 자가 거주하는 어촌에 우선적으로 정부 투자사업을 집행한다.

## 5) 평가단계

평가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나눌 수 있다. 사전평가는 어촌지역 리더 육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피교육생에 대한 평가로서 어촌지역 리더로서 가능성에 대한 평가이다. 사전평가는 교육기관이 시행하고, 평가 자료는 어촌지역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이러한 사전평

가 자료는 피교육생의 적극적 수강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부의 시설투자사업과 인적자원을 연계시키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사후평가는 피교육생의 어촌지역 리더로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사후평가는 피교육생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서 어촌지역 리더로서 활동에 대한 사기양양과 동기부여의 역할을 한다. 사후평가 자료는 우수한 어촌지역 리더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로서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의 적극적 홍보 및 어촌지역 리더 육성의 개선방안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촌지역 리더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피교육생의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평가시기, 평가주체,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어촌지역 리더를 육성하여야 한다.

### 3. 어촌지역 리더 지원방안

#### 1) 경제적 지원방안

어촌지역 리더 육성과 관련한 협의의 경제적 지원은 교육비 지원을 의미한다. 반면에 광의의 경제적 지원은 어촌지역 리더 교육비용을 포함한 리더로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어촌의 활성화를 이끄는 데 필요한 지원을 의미한다. 어촌지역 리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교육비용의 지원, 사업비용의 지원, 컨설팅 비용의 지원과 인센티브의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 (1) 교육비용의 지원

바다를 접하고 있는 어촌은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어촌의 다양한 자원의 활용을 통한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자질 향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은 낮다.

어촌주민이 교육비용을 부담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어촌주민을 어촌지역 리더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하여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어촌지역 리더 교육은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교육비용보다 커질 수 있다. 즉 1차 교육인 이론 교육 기간 동안의 교육 관련 제반비용과 2차 교육인 현장연수 교육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더욱이 교육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교육 참가자의 기초 생활자금의 지급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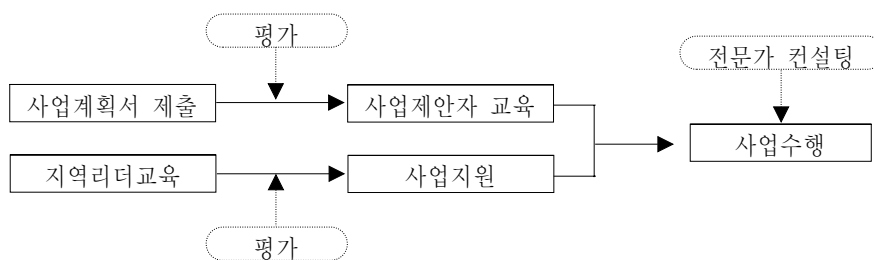
## (2) 사업비용의 지원

어촌지역 리더 교육은 어촌의 인적자원 계발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인적 자원과 하드웨어의 결합이 이루어질 때 어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즉 리더의 자질과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이 집행될 때 어촌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이 어촌지역 리더가 활동하는 지역과 연계가 가능할 경우에 어촌지역 리더가 거주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적자원과 시설투자의 결합은 집중과 선택이라는 정부 투자방향에 일치하는 것으로서 정부 투자사업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투자사업 지원 방안은 <그림 5-5>와 같이 두 종류가 있다. 지역리더 교육의 수강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특성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계획서의 제안자에게 사업시행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리더 교육을 수강한 자를 평가하여 지역리더가 거주하는 지역에 적합한 투자사업을 지원한다.

<그림 5-5> 지역리더 투자사업 지원방안



### (3) 경영 컨설팅 비용의 지원

민간기업은 사업의 추진 혹은 사업의 경영을 시작할 때는 물론이고 사업의 추진 과정에도 경영성과를 높이거나 경영개선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어촌지역 리더 또한 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촌지역 리더를 포함한 어촌주민들은 투자사업이 아닌 인적계발 혹은 사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꺼려한다. 따라서 이들이 어촌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로부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투자사업의 경영컨설팅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이고 어촌주민의 비전확신과 사업의 참여도를 높여 어촌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4) 인센티브의 지원

어촌주민은 정부투자의 사업유치 시에 비하여 사업추진 시에 참여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참여보다 사업자금에 관심이 높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투자사업에 대한 어촌주민의 재투자는 물론이고 정부투자의 대부분이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촌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자사업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어촌주민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 즉 어촌주민의 개별적 인센티브가 아닌 기존 투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

## 2) 법·제도적 지원방안

어촌지역 리더가 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제도적 지원은 어촌지역 리더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의 근거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어촌주민의 발상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법·제도는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개선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기존 법·제도의 근거가 된 환경의 일부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촌지역 리더 육성정책과 정부 투자의 연계를 통한 정부 투자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고려되어야하는 법·제도적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의 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촌 이외의 주민뿐만 아니라 어촌주민 간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법·제도는 어촌의 폐쇄성을 초래하여 어촌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어촌과 바다의 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의 유입과 계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부서별 투자사업의 연계를 통한 투자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부서별 투자사업의 연계는 어촌의 복합사업 추진을 촉진하여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생산부서, 유통·가공부서, 어촌관광부서와 어촌인력육성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투자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생산부서, 유통·가공부서와 어촌관광부서의 투자사업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대상지는 어촌지역 리더가 있는 어촌으로 선정할 때 높은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의 평가를 통하여 어촌지역 투자사업을 선정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지역자원, 지역리더, 대상지역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포함한 평가표를 기초로 투자사업 평가 위원회의 사업추진계획서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투자사업을 선정할 때 투자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어촌지역 투자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어촌지역 간의 투자사업의 홍보와 경쟁을 통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경진대회는 어촌지역 리더는 물론이고 어촌주민에게 사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서로 화합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투자사업의 경진대회는 어촌지역 리더의 역할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우수 지역에 대한 재투자 혹은 확대투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균등투자가 아닌 집중투자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6장 결 론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내륙국가가 갖지 못한 바다라는 자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바다에 접하고 있는 마을을 ‘고기를 잡는 마을’이라는 의미인 어촌이라고 한다. 이러한 명칭에 구속되어 정부의 수산정책도 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다른 공산품의 가격인상에 비하여 수산물의 가격인상이 낮아 어촌소득과 도시소득간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어촌의 기능을 고기를 잡는 마을로부터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의 어촌으로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촌주민이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업 이외의 생산에 관심이 적은 편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교과과정도 대부분이 어업중심의 교육이다.

따라서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계발의 교육이 시급하다. 그 일환으로서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이 요청되고 있다. 어촌지역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기존 어업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어촌주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어촌주민이 어촌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는 자질을 계발하는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농어촌의 활성화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계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정규 학교 교육을 통한 신규 농어업인을 확보하고, 지역 농업대학의 부설 교과과정에서 지역의 인적자원 계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수한 지역 리더의 발굴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상향식 투자사업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 법인단체가 인재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단기간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인재 육성의 특성과 농어촌의 어려운 환경

으로 인적자원 계발정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우수한 인적자원 계발을 위하여 인적자원 계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적자원 육성 교육을 받은 귀농자가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어촌지역 리더 육성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일본의 농어촌도 배타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로부터 인재 유입을 인적자원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이 도시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은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촌의 배타성과 투자사업과 인력 육성사업의 연계부족, 인력 육성 교육기관의 부족 등으로 우리나라의 어촌지역 인적자원을 계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정부투자 효과를 증가시키고,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인적자원 계발이 시급하다. 특히 어촌소득의 감소와 삶의 질의 저하로 사기가 저하된 어촌주민을 이끌고 갈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지역 리더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기관을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함께 현장연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의무교육이 아닌 자발적 참여교육이어야 한다.

셋째,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어촌지역 리더 교육을 받은 자의 지속적인 자질 향상과 지역 투자사업의 경영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어촌지역 리더 육성을 담당하는 부서와 어촌 투자사업 부서가 투자사업의 계획과 집행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어촌지역 리더가 작성한 사업추진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역에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여섯째, 어촌지역 리더가 추진한 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어촌지역 리더 육성과 지원방안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국내자료〉

강대구, 「농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 연구」, 농림부, 2004.

김진균·최민호·김재호, “농업인 교육과정 개발모형의 설정” 「한국농업교육학회지」 4(1), 한국농촌지도학회, 1997.

김진모, 「전환기농촌지도사의 역할과 능력개발 방향」, 한국농업교육학회 35(4), 2003.

김태곤 외,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간 비교연구(지역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11.

농림부, 2001년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 계획.

농림부, 2004년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농림부, 2006년 농업교육체계 개편 방안.

농림부, 2006년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추진계획.

농림부, 2007년 교육과정별 운영지침.

농림부, 2007년 농업교육계획.

농림부, 각 사업 시행지침.

농림부,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운영·관리교육 매뉴얼.

마상진, 최경환, 「농업인 교육·훈련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방안」 정책연구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11.

마상진·김영생,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박문호, 「농업인 민간위탁 교육·훈련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

- 구원, 2003.
- 박시현,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의 역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박진도 · 황수철 · 양병찬 · 유정규, 「농촌지역리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농정연구센터, 2004.
- 송미령 외,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12.
- 엄대호 외, 「지역리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시행 연구」,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2004. 12.
- 유정규 외, 「충청남도 농촌지역 리더육성 프로그램 실태 및 개발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06. 9.
- 이성·정지웅, 「지역사회조직론」, 학지사, 2002.
- 이용환, 김수옥, 정철영, 서우석, 나승일, 강대구  
「21C 신지식농업인화 방안 및 교육·훈련 연구」, 농림부, 2000.
- 이중웅 외, 「농민 후계자 육성사업을 위한 작목별 표준영농설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 이희수 외, 「지역인적자원개발 운영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4. 2.
- 정찬경, “농촌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의 지도자의 역할; 농가소득증대사업과 관련해서”, 「원광대 행정논총」 1, 1981.
- 정철영 외,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 방안」,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2002.
- 해양수산부, 「2007년도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7.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백서」, 2006.
- 해양수산부, 2005년 신지식인 업무 활성화 방안.
- 해양수산부, 2005년 어업인후계자등 선정 및 관리 요령.
- 해양수산부, 2007년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 개요.
- 해양수산부, 각 사업시행지침.

해양수산인력개발원, 「2007년도 교육훈련계획」, 2007.  
 허장, 정기환, 「농촌마을리더십구조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002.  
 황기형 외, 「어업인력 변화 분석 및 전망 연구(어가인구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12.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http://edu.at.or.kr/>).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http://www.agriedu.net/index.html>).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http://www.affis.or.kr/>)  
 한국해양수산연수원(<http://www.webkimft.or.kr>)

#### 〈해외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연보」, 2005.  
 농림수산성, 「수산기본계획」, 2005.  
 농림수산성, 어업 후계자(担い手) 확보·육성 대책종합 추진 사업비.  
 농림수산성, 수산업개량보급사업.  
 농림수산성, 「식품·농업·농림기본계획」, 2005.  
 농림수산성, 농업연수교육의 현황.  
 농림수산성, 농업 후계자(担い手) 육성·확보방안.  
 미야시로마치, 새로운 마을 운영형태.  
 미야시로마치, 농업이 있는 마을 기본계획.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 그린투어리즘 인스트럭터 육성 스쿨.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 지역산업 매니저 연수 세미나.  
 후쿠시마현 사메가와촌 홈페이지(<http://www.vill.samegawa.fukushima.jp>).  
 사이타마현 미야시로마치 홈페이지(<http://www.town.miyashiro.saitama.jp>).  
 Kirkpatrick, D., *Evaluating training programs : The four levels*,  
 San Francisco : BerrettKoehler, 1994.

- Michael, J.A., Paxson, M.C., & Howell, R.E., *Developing leadership among Extension clientele*, Washington, DC : USDA, 1990.
- Hustedde, Ronald J., "Developing Leadership To Address Rural Problems," in *Rural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Norman Walzer (ed.), New York : Praeger Press, 1991.

## 부 록 (설문지)

### 1. 어촌지역 리더육성 및 어업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어업인 대상)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원은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으로 어촌지역 리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설문조사는 어촌지역의 리더 육성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연구 이외의 다른 어떤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어촌지역 발전에 동참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 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2-2105-4970)

※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기타 난에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에 따라 한 가지만 선택하시  
어 ‘○’ 또는 √를 해주시시오.

1. 귀하는 어촌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① 점점 나빠질 것이다.      ② 현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③ 점점 좋아질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2. 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유능한 리더                      ② 풍부한 어업자원  
③ 정부의 지원                      ④ 우수한 지리적 여건(용이한 접근성 등)  
⑤ 기타

3. 귀하는 다음 중 누가 어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어업인후계자      ② 어촌계장                      ③ 이장  
④ 개발위원              ⑤ 새마을지도자              ⑥ 어촌지도사  
⑦ 수산직 공무원      ⑧ 청년회장                      ⑨ 부녀회장  
⑩ 기타(\_\_\_\_\_)      ⑪ 없음

**안내** “①~⑩”를 선택하신 응답자는 상자안의 질문에 응답해주시고,  
“⑪없다”를 선택하신 응답자는 바로 질문 “4”로 이동하십시오.

3-1. 귀하는 지역리더가 마을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마을의 발전을 위해 리더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후계자 양성      ② 마을 변화촉진      ③ 주민 교육·훈련  
 ④ 새로운 기술·정보 수집/습득      ⑤ 사업/정보 전파  
 ⑥ 새로운 사업(어업, 관광) 발굴/기획      ⑦ 마을 내 갈등조정  
 ⑧ 영어 상담 및 조언 ⑨ 어항 등 어업기반시설 관리  
 ⑩ 수협, 공무원 등과의 관계구축 ⑪ 기타(\_\_\_\_\_)

5. 귀하는 어떤 품성의 마을리더를 선호하십니까? 가장 선호하는 품성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진실성/신뢰성      ② 책임감      ③ 주도력  
 ④ 창의력      ⑤ 개방적 사고/수용력      ⑥ 친화력  
 ⑦ 포용력      ⑧ 봉사정신      ⑨ 기타(\_\_\_\_\_)

6. 귀하는 지역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리더가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2가지만 선택하십시오.

- ① 비전제시                      ② 동기부여    ③ 브랜드 및 사업 개발  
 ④ 사업/서비스 지식    ⑤ 코칭 및 피드백    ⑥ 구성원 관리  
 ⑦ 마을 사업의 이해 및 적극성                      ⑧ 사업/프로그램관리  
 ⑨ 기타(\_\_\_\_\_)

7. 귀하는 어촌지역의 발전을 주도할 리더 육성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훈련을 통해 현 지역 주민을 리더로 양성한다.  
 ② 다양한 경험과 열의를 가진 인재가 어촌으로 이주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한다.  
 ③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④ 어촌지역 여건을 잘 아는 공무원을 지역리더로 활용한다.  
 ⑤ 기타(\_\_\_\_\_)

8. 귀하는 외부에서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가 이주해온다면 받아들일 의사 있습니까?

적극 거부한다	거부한다	무관심 하다	받아들인다	적극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9. 어촌으로 이주해온 외부인이 어촌에 정착하여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어장 및 어업권 이용권 부여      ② 마을 정주여건 개선  
 ③ 초기 정착자금 지원      ④ 수산업 기술/정보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⑤ 기존 어업인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⑥ 기타(\_\_\_\_\_)

10. 귀하는 어촌지역 리더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육성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보 기>

- ① 경제적 지원      ②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③ 수산관련 제도의 개정      ④ 국내외 연수  
 ⑤ 기타(\_\_\_\_\_)

11. 다음 정부의 인력육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귀하가 포함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일반 어업인후계자    ② 전업 경영인      ③ 선도 경영인  
 ④ 신지식인 어업인    ⑤ 없다

**안내** “①~④” 문항을 선택하신 응답자는 상자안의 질문에 응답해주시고,  
 “⑤없다” 라고 응답하신 분은 바로 질문 “12” 으로 이동하십시오.

### 11-1. 활동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제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 통	만족	매우 만족
일반 어업인후계자	①	②	③	④	⑤
전업 경영인	①	②	③	④	⑤
선도 경영인	①	②	③	④	⑤
신지식인	①	②	③	④	⑤

↓  
질문 “11-2” 로

↓  
질문 “11-3” 으로

### 11-2. 불만족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적은 용자 규모
- ② 미흡한 사후관리
- ③ 수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훈련 내용
- ④ 집합교육/장소선정 등 공급자위주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방식
- ⑤ 기타(\_\_\_\_\_)

### 11-3. 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새로운 수산업 경영을 시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 ② 교육·훈련을 통한 관련 지식·정보 획득
- ③ 타 지역의 어업인과의 교류
- ④ 어촌 및 수산업 선도자로서의 자부심
- ⑤ 기타(\_\_\_\_\_)



13-1. 귀하는 지금까지 몇 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까?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13-2. 귀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습니까?

- ① 동료 어업인      ② 인터넷 혹은 TV 등 방송매체  
 ③ 어업지도사, 수산직 공무원  
 ④ 수협 관계자      ⑤ 기타(\_\_\_\_\_)

13-3.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어업인후계자 등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혹은 선정에 따른 의무 사항이어서  
 ② 새로운 수산업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관련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③ 현재 수산업관련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④ 주변의 적극적인 추천 혹은 권유에 의해서  
 ⑤ 기타(\_\_\_\_\_)

13-4.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이 수산업관련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 13-5.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 통	만족	매우 만족
교육 담당자	①	②	③	④	⑤
교육 방법	①	②	③	④	⑤
교육 시기(월)	①	②	③	④	⑤
교육 기간	①	②	③	④	⑤
교육 기관	①	②	③	④	⑤

## 14. 귀하는 향후 수산업관련 사업을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강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적극적으로 수강하겠다.
- ②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하여 상황이 허락한다면 수강하겠다.
- ③ 경제적 지원이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면 수강하겠다.
- ④ 수강할 의향이 없다.
- ⑤ 수강여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

## 15. 귀하는 어떤 분야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십니까? (희망 분야를 모두 선택하십시오.)

- ① 어선관련 기술/지식      ② 수산물 양식 기술/지식
- ③ 가공처리 기술/지식      ④ 어촌관광사업 운영 지식
- ⑤ 수산물 유통관련 지식      ⑥ 회계 등 경영관련 기술/지식
- ⑦ 지역개발 리더 교육      ⑧ 기타(\_\_\_\_\_)

16. 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리더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으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7순위: ) (8순위: )

<보 기>

- ① 수산업 역량 개발                      ② 경영 역량 개발(회계, 마케팅 등)
- ③ 리더십 개발                            ④ 어촌·어업 관련 정세 이해
- ⑤ 어촌·어업 관련 정책 이해    ⑥ 국내외 성공사례
- ⑦ 지역 자원 활용화 방안      ⑧ 기타(\_\_\_\_\_)

17. 귀하는 3개월 이상 장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관심분야라면 자비부담이라도 적극 참가하겠다.
- ② 교육비를 지원해준다면 참가하겠다.
- ③ 교육비와 생계비를 함께 지원해준다면 참가하겠다.
- ④ 장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는 참가의사가 없다.

18. 어촌지역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점 등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



## 2. 어촌지역 리더육성 및 어업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무원 대상)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원은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으로 어촌지역 리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설문조사는 어촌지역의 리더 육성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연구 이외의 다른 어떤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어촌지역 발전에 동참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 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2-2105-4970)

※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기타 난에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에 따라 한 가지만 선택하시  
어 ‘○’ 또는 √를 해 주십시오.

19. 귀하는 어촌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① 점점 나빠질 것이다.      ② 현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③ 점점 좋아질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20. 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유능한 리더                      ② 풍부한 어업자원  
③ 정부의 지원                      ④ 우수한 지리적 여건(용이한 접근성 등)  
⑤ 기타

21. 귀하는 어촌지역 발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추진      ② 지역 인재 발굴 및 지원  
③ 지역주민 대상 정책 및 사업 지침 교육  
④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⑤ 기타(\_\_\_\_\_)

22. 귀하는 마을의 발전을 위해 리더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후계자 양성                      ② 마을 변화촉진  
③ 주민 교육·훈련                      ④ 새로운 기술·정보 수집/습득  
⑤ 사업/정보 전파                      ⑥ 새로운 사업(수산업, 관광) 발굴/기획  
⑦ 마을 내 갈등조정                      ⑧ 영어 상담 및 조언  
⑨ 어항 등 어업기반시설 관리      ⑩ 수협, 공무원 등과의 관계구축  
⑪ 기타(\_\_\_\_\_)

23. 귀하는 어떤 품성을 갖춘 마을리더가 마을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끈다고 생각하십니까? 품성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진실성/신뢰성      ② 책임감      ③ 주도력  
 ④ 창의력      ⑤ 개방적 사고/수용력      ⑥ 친화력  
 ⑦ 포용력      ⑧ 봉사정신      ⑨ 기타(\_\_\_\_\_)

24. 귀하는 지역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리더가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2가지만 선택하십시오.

- ① 비전제시      ② 동기부여      ③ 브랜드 및 사업 개발  
 ④ 사업/서비스 지식      ⑤ 코칭 및 피드백  
 ⑥ 구성원 관리      ⑦ 마을 사업의 이해 및 적극성  
 ⑧ 사업/프로그램관리      ⑨ 기타(\_\_\_\_\_)

25. 귀하는 어촌지역의 발전을 주도할 리더 육성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훈련을 통해 현 지역 주민을 리더로 양성한다.  
 ② 다양한 경험과 열의를 가진 인재가 어촌으로 이주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한다.  
 ③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④ 어촌지역 여건을 잘 아는 공무원을 지역리더로 활용한다.  
 ⑤ 기타(\_\_\_\_\_)

26. 귀하는 어촌지역 리더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어촌지역 이주 희망자에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장 및 어업권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 ② 교육예산 확대 및 농림부 등 타 정부부서와 연계를 통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 ③ 어촌과 수산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비전제시로 신규 어업 진입자 수를 확대해야 한다.
- ④ 정부의 인재육성 대상자를 어업생산 이외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 ⑤ 기타(\_\_\_\_\_)

27. 귀하는 현 인력육성정책이 어촌지역 리더 육성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안내** “①~③” 문항을 선택하신 응답자는 상자안의 질문에 응답해주시고,  
“④~⑤” 문항을 선택하신 응답자는 바로 질문 “11” 로 이동하십시오.

**10-1. 현 인력육성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공급자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②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어업인의 소극적인 태도
- ③ 예산 및 인력의 부족
- ④ 정책 비전 부재 및 각 정책간의 연계 부족
- ⑤ 정책대상이 기존어업인 혹은 수산계 고등학생/대학생 등에 한정됨
- ⑥ 기타(\_\_\_\_\_)

**10-2. 인력육성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어업인후계자, 신지식어업인 등 현 인재육성 정책의 수혜자 수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 ② 어업인후계자, 신지식 어업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 ③ 각 단계별·진입방법별로 지원내용을 특화하여야 한다.
- ④ 교육·훈련 방식을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 ⑤ 어업인들의 의욕고취 및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기타(\_\_\_\_\_)

**28. 어업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예산 및 담당 공무원의 부족      ② 소수의 교육기관
- ③ 수산업분야 전문강사의 부족      ④ 어업인의 소극적인 태도
- ⑤ 기타(\_\_\_\_\_)

29. 현 어업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영어 및 어촌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안내** “①~③” 문항을 선택하신 응답자는 상자안의 질문에 응답해주시고,  
“④~⑤” 문항을 선택하신 응답자는 바로 질문 “13” 으로 이동하십시오.

12-1. 향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 ② 어업생산이외 유통·가공·경영 관련 프로그램의 강화
- ③ “교육->평가->피드백”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 ④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 혹은 연수 실시
- ⑤ 교육기관의 다양화
- ⑥ 기타(\_\_\_\_\_)

30. 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리더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으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 5순위:     ) (6순위:     ) (7순위:     ) (8순위:     )

<보 기>

- |                   |                       |
|-------------------|-----------------------|
| ① 수산업 역량 개발       | ② 경영 역량 개발(회계, 마케팅 등) |
| ③ 리더십 개발          | ④ 어촌·수산업 관련 정세 이해     |
| ⑤ 어촌·수산업 관련 정책 이해 | ⑥ 국내외 성공사례            |
| ⑦ 지역 자원 활용화 방안    | ⑧ 기타(_____)           |

31. 어촌지역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점 등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



### 어촌지역 리더 육성과 지원방안

---

2007年 12月 27日 印刷  
2007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李 正 煥  
發行人  
發行處 韓國海洋水産開發院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

組版・印刷/한성애드컴 2266-6559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